

ISSN 2586-6206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제1권 제1호 2018

부산외국어대학교 다문화연구소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학회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제1권 제1호

부산외국어대학교 다문화연구소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학회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제1권 제1호

<목 차>

강현주▪ 초등학교 통합 교과서의 다문화요소 분석: 1, 2학년 통합 교과서를 중심으로	4
노승인▪ 영화 <불온한 당신>과 <꿈의 제인>에 나타난 성소수자에 관한 한국사회 문화다양성의 수용성 제고	30
박혜인▪ 재한 외국인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53
이경주▪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의 과제	77
이도경▪ 다문화사회 구성원의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민요 부르기의 실험적 연구: 타액의 코티졸 변화 예비연구	101
이수경, 김정임, 양민철, 김세진▪ OBE를 적용한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연구: I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을 중심으로	127
이채임▪ 결혼이주여성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중국출신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155
전수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분석과 다문화교육 방향 모색	179
허 훈▪ 북한이탈여성 통일 관련 인식에 관한 연구	204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창간호 회보	228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학회 회칙	231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236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윤리규정	238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논문투고규정	242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학회 회원 명부	244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Vol. 1 No. 1

<Contents>

Hyun-Joo Kang ▪ Analysis of Multicultural Factors in Integrated Textbook for Elementary School: Around the first and Second grades	4
Seung-In Roh ▪ The Enhancement of Multicultural Acceptance of Korea Society on Sexual Minority Appearing in the Films, <Troublers> and <Jane>	30
Hye-In Park ▪ A Study on the Cultural Adaptation Stress of Foreigners in Korea	53
Gyeong-Joo Lee ▪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Korean Education in 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	77
Do-Kyong Yi ▪ Effects of Singing Folk Songs to Reduce Stress for Multicultural Population	101
Soo-Kyeong Lee, Jeong-Im Kim, Min-Cheol Yang, Se-Jin Kim ▪ Application of Outcome-Based Education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Program	127
Chae-Im Lee ▪ A Study on the Value of the Marriage Immigrant Women	155
Su-Hyun Chun ▪ Analysis of Adolescents' Perceptions of Defectors and the Direction of Multicultural Education	179
Hun Heo ▪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the Unification of Women in North Korea	204

초등학교 통합 교과서의 다문화요소 분석

- 1, 2학년 통합 교과서를 중심으로-

강현주

(부산외국어대학교)

《목 차》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2 연구방법
 - 1.3 분석준거틀
2. 이론적 배경
 - 2.1 다문화교육 목표
 - 2.2 다문화교육 내용 요소
3. 분석 및 내용기술
 - 3.1 2015 개정 초등교육과정 분석
 - 3.2 통합교과 분석
 - 3.3 통합교과 다문화요소 및 내용 분석
4. 결론

<Abstract>

Kang Hyun Joo. 2018. 1. 15. **Analysis of Multicultural Factors in Integrated Textbook for Elementary School: Around the First and Second Grades**,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1, 4-29.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multicultural content of the Korean Elementary School Textbook revised in 2015. This study abstracted the framework of multicultural factors for analysis of multicultural contents from the research on “Revision

Guidelines by Analysis of Multicultural Factors in Secondary Curriculum and Textbook”. The analyzed textbook is the integrated winter textbooks for both the first and second grades revised curriculum in 2015. Several findings were represented as follows: first, the frequency of multicultural content displayed five times in first grade and nineteen times in second grade respectively. Second, the analyzed textbooks did not include contents directly associated with multiculturalism. In addition, the frequency of content very falls short in the second semester in the first grade. Activities and experience is important in the acceptance of unfamiliar cultures or circumstances and perception of otherness when students enter the elementary school and make friends with pupils from other countries. Thus, multicultural contents' frequency of within textbooks is very crucial. Finally, the revised curriculum focused on activities and experiences about the theme and content in the textbook and was developed around block chassis. For teaching the textbook content, teachers must perfectly understand textbooks through teacher training, as well as be able to control the classroom situation. At the same time, teaching materials and tools for the revised curriculum should be distributed to teachers in the class. The textbooks of reflecting right values on multiculturalism as well as a view of the world will assist in cultivating the ability to live in a multicultural society respecting for other cultures and values. Besides, it grows into human beings which live together in this world. In this respect,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and textbook content should be improved by supplementary revision fitting for the growth of humanity in the multicultural era.(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ey words] Multicultural factors, Multicultural education, Multicultural content, 2015 Revised curriculum and textbook, “basulzul” textbooks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지구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급속도로 세계화가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기술의 발달은 지역과 민족의 경계를 허물고 인간의 활동 범위를 전 지구적으로 확대하였다. 우리나라 또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여 이는 사회 전반적인 것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교육에서도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백옥련, 최충옥, 2012).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은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은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 다문화 교육이 범교과적 주제로 포함되어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이는 공교육에서 다문화 관련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다문화 교육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보다 일상적인 것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보다 구체적으로 교육의 요소로 가장 많이 자주 접하는 교과서 속에 그 내용이 자연스럽게 구성되어야 한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도 다문화 교육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통합교과서에 대해 분석한 논문은 2000년대 초반 및 2010년대에 2007 교육과정 개정 이후 분석이 되었으나, 현재 2015 개정 이후에는 이와 관련된 분석 논문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기존의 선행연구 분석에서 2007 개정교과서의 다문화 내용 요소 분석 결과 지식의 이해 범주에 머물러 있는 한계점을 나타냈으며, 이후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에 대한 한계점의 보완 및 수정이 이루어 졌는지에 대한 분석 또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5 초등 개정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1, 2학년의 2학기 겨울 교과서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겨울’ 영역은 ‘나라’와 ‘겨울’이 대주제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가 소주제이므로 겨울을 주제로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이

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다문화 관련 내용이 많아 분석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조영달(2009)의 연구 “초·중등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다문화적 요소 분석을 통한 개정방안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2015 개정 교과서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1-2학기, 2-2학기 ‘겨울’ 교과서 속의 다문화적 요소 분포 및 그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1.2 연구방법

첫째, 2015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 및 교과서 요소 분석을 통해 다문화적 내용을 추출하고 분석했다.

둘째, 분석대상으로는 2015년 개정된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초등학교 1-2, 2-2학기 겨울 바슬즐 교과서를 선정했다.

셋째, 도출된 분석결과를 통해 2015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 및 바슬즐 교과서에 다문화적 내용의 분포 및 교과서 속의 다문화적 내용의 실체를 살펴보았다.

1.3 분석 준거틀

본 연구는 조영달(2009)의 연구 ‘초·중등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다문화적 요소분석을 통한 개정방안 연구’에서 분석 준거의 틀을 마련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내용 분석의 타당성 및 신뢰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조영달의 분석에서 ‘다문화적 내용요소 분석틀’을 사용했다. 조영달의 연구 분석 틀은 교과서 내 다문화적 내용요소와 기술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다문화적 내용요소 분석틀은 바람직한 다문화 교육과정 및 교과서가 갖추어야 할 내용 요소에 관한 것으로, 정체성, 다양성, 다원성, 사회정의라는 핵심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틀에 비

추어 현행 교과서들이 다문화 내용요소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정 및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 분석 틀을 사용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다문화교육 목표

다문화교육을 정의하려면 다문화교육의 목표 설정에 기반이 된다. 국내·외 연구에 나타난 다문화 교육의 목표를 종합해 보면 공통된 목표는 다문화사회 능력 배양과 모두를 위한 교육에서 찾을 수 있다. 다문화교육에 대해 다문화사회에서 필요한 능력 배양에 대해 연구한 연구자는 Banks(2008), Niteo(2007), 모경환(2012), 오은순(2009), 전재영(2011) 등이 있다.

Banks(2008)는 다문화 사회에서 필요한 능력에 대해 학생들이 학교 및 지역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할에 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 태도,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Niteo(2007)는 기초교육 및 태도와 가치를 경험하고 명료화하는 하나의 과정이라 정의했으며, 모경환(2012)은 지구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역량을 함양한다고 주장했다. 오은순(2009)은 문화적 상대성과 다양성을 이해하고, 일상생활 속 문화 간 갈등과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며 새로운 문화를 재창조할 수 있는 창의력을 길러준다고 나타났다. 전재영(2011)은 다문화 문제에 대한 이해 능력을 바탕으로 다문화적 상황과 문제에 대한 판단 능력을 함양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자세를 고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먼저 Banks(2008)는 소수집단 아동 뿐 아니라 모든 학생이 다문화

사회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능,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주류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을 통해 비주류 집단에 대한 문화를 대안적 성격으로서의 교육과정으로 제시했다. Niteo(2007)는 다문화교육을 영향력 있는 교육, 비판적인 교육, 모든 학생에게 중요한 교육, 반인종편견교육, 사회정의적교육 이라 분류하였다. 모경환(2012)은 주류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의 시민적 자질 육성과 소수자를 위한 배려, 교육의 기회균등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다문화교육은 모든 학생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철학을 기본으로 한 구체적인 교육과정 속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다문화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종, 문화, 계층, 계급, 개인의 정체성을 유아기부터 발달시켜야 하며 다양한 집단 내에서 그들의 구성원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것을 발달시키도록 도와야 하며, 또한 나와 다른 것에 대한 개방성과 흥미, 차이를 포함하여 기꺼이 하려는 의지, 협력에 대한 열망을 지닌 채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Banks, 2008).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인식하고, 서로간의 상이한 점과 유사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다문화교육의 목표에 대한 논지를 살펴본 바, 다문화교육 목표는 학자들마다 그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다문화교육을 배우는 학습자들이 다문화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다양한 집단속에서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다른 문화와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를 배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2 다문화교육 내용요소

다문화 가정의 ‘다름’ 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요소들이 정립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교육의

핵심은 무엇보다 다양한 민족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통해 다양성과 평등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다(이인재, 2010). 때때로 다문화사회에서 우리는 다른 민족에 대해 종종 편견을 갖기도 하는데 이는 사회 속에서 다양한 인종과 민족을 이해하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데 커다란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다문화교육의 내용요소로는 일반적인 문화와 더불어 다양한 사람들과의 협동능력, 집단속에서의 정체성, 반편견, 평등성 등의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인재(2010)가 정리한 주요 내용을 제시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다문화교육 내용 요소와 영역

내용요소	하위 요소	영역
문화	문화 일반에 대한 이해, 각 문화 간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한 이해 각 문화에 대한 이해 및 존중감 기르기 문화 간 긍정적 태도 발달시키기	지식 · 이해 가치 · 태도
협력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 및 협동 능력 증진하기(다문화 현상 조사 및 해석 능력, 의사소통 기능, 대인 및 집단 간 민주적 절차준수, 의사결정, 갈등 해결, 협력 등)	기능 ·
반편견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기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기르기	가치 · 태도 기능
정체성	긍정적 개념 기르기, 정체감 및 집단 정체감 형성	가치 · 태도
평등성	국가, 민족, 성, 능력, 계층에 대한 긍정적 태도 갖기 인간이 평등하다는 신념 형성하기	지식 · 이해 가치 · 태도
다양성	다양한 개인과 집단의 존재 인정(다름에 대한 인정과 존중: 타문화 인정 및 존중, 사회적 소수자 인식 및 존중) 다양성을 존중하는 마음 갖기	가치 · 태도 기능

전희옥(2008)은 사회과 다문화교육 내용요소에 대해 지식, 기능, 가치태도 참여의 4가지 영역에 대해 하위요소로 사회적 기능과 역할, 사회 갈등 문제, 고정관념 문제, 인권 문제로 제시하였다.

사회적 기능과 역할에서는 작게는 가족부터 크게 정치, 경제, 교육, 복지, 여가문화 등 제도 속에서 주어지는 역할 및 갈등으로 보았으며, 사회갈등 문제에서는 갈등의 차원을 개인내적, 개인 간, 개인과 집단, 개인과 국가 등으로 보았고 갈등의 역사 및 기능을 그 요소로 보았다. 또한 고정관념 인권관련 문제에서는 그 개념 및 주요 대상, 문제 사례를 다문화교육 내용요소로 정의하였다.

이지은(2008)의 연구에서는 영어 교과영역에서 다문화 요소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영어 교과서 지문 속 인종, 성별, 나이, 사회적 계급, 신체 및 정신 결함 상태를 통해 다양한 인물들의 다문화적 요소를 분석하는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각 교과 과목의 내용 및 특성에 적합한 다문화 내용요소를 구성하였으며, 과목에 따라 방향성은 조금 달랐지만 큰 틀에서는 다문화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다양성 존중을 공통적 사항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3. 분석 및 내용 기술

3.1 2015 개정 초등교육과정 분석

3.1.1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배경 및 방향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중요한 개정 배경 중의 하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대한 국가·사회적 요구이다.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대한 국가·사회적 요구와 함께, 초·중·고등학교 교육의 실태 및 2009 개정 교육과정 운영 실태와 관련된 문제의식도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중요한 개정 배경이 되었다.

개정 방향으로는 국가·사회적 측면에서 새롭게 제시된 인재상에 적합한 교육과정 체제를 구축하고, 행복한 학습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습 경험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교육과정 진로진학부, 2017).

3.1.2 추구하는 인간상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기존의 인간상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포함하여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제시했으며,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여섯 가지 핵심역량을 제시했다(한국교육개발원, 2015).

3.1.3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기본사항

2015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 중 초등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교과에서는 누리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생활도구의 활용, 자연 탐구 활동 및 신체 활동을 강조함으로써 몸으로 익히는 활동을 강화하여 할 줄 아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한국교육개발원, 2015).

3.1.4 초등학교 편제와 시간 배당기준

2015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도 학년군, 교과군, 교과(군)별 20% 범위 내 증감 허용, 교과 집중이수¹⁾ 등의 지침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이외에도 창의적 체험활동 하위 4개 영역(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및 입학초기 적응 활동, 정보통신활용 교육, 보건 교육, 한자 교육 강화 등의 사항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3.2 통합교과 분석

2009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통합된 초등학교 1,2학년 바른생활, 슬기로운, 즐거운 생활은 2015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2009 개정 초등 통합교과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방법을 채택했다. 특히 역량 중심의 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하였고, 학생들의 활동과 참여 중심의 수업이 되도록 지침을 제시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 이에 따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바른생활은 실천 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에 따른 기능과 역량으로 세분화 된다. 1. 기능으로는 되돌아보기, 2. 스스로하기, 3. 내면화하기 4. 관계 맺기 5. 습관화하기 가 있다. 그리고 역량으로는 1. 알아서 척척(자기관리 역량) 2. 생각을 나누어요(의사소통 역량) 3. 우리 함께해요(공동체 역량)를 다루고 있다.

2) 슬기로운 생활은 탐구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탐구활동에 따른 기능과 역량으로 나누어진다. 기능으로는 1. 관찰하기 2. 무리 짓기 3. 조사하기 4. 예상하기 5. 관계망 그리기가 있다. 그리고 역량으로는 1. 자료를 찾아요(지식정보처리 역량) 2. 다르게 생각해요(창의적 사고 역량) 3. 생각을 나누어요(의사소통 역량)들을 다루고 있다.

3) 즐거운 생활의 활동목표는 표현활동이다. 표현활동에 따른 기능과 역량으로 나누어진다. 기능으로는 1. 놀이하기 2. 표현하기 3. 감상하기가 있다. 그리고 역량으로는 1. 다르게 생각해요(창의적 사고 역량) 2. 마음으로 느껴요(심미적 감성 역량) 3. 생각을 나누어요(의사소통 역량)로 구성되어있다.

겨울의 영역은 나라와 겨울로 대주제로 정하고 나라의 핵심 개념은 우리나라, 다른 나라가 소주제이고 겨울의 핵심 개념은 겨울맞이와 겨울나기가 소주제이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고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상황이 있다.’, 다른 나라는 ‘각 나라는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겨울맞이는 ‘사람들은 겨울의 자연 환경에 어울리는 생활을 한다.’, 겨울나기는 ‘사람과 동식물은 겨울 환경에 적응하며 생활한다.’를 일반화된 지식

으로 학습하도록 하였다. 내용요소는 교과를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로 나누어서 학습하도록 하였다.

바른 생활은 교과서의 ‘나라’ 영역 중 ‘우리나라’ 부분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문화를 학습함으로써 타문화에 대한 이해 및 공감능력을 학습하도록 하였고, ‘겨울’ 영역에서는 나눔과 봉사 및 동식물보호, 그리고 겨울방학 생활과 그에 따른 학습의 계획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슬기로운 생활은 ‘나라’ 영역 중 ‘우리나라’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상징과 문화’, ‘남북한의 생활 모습과 문화’를 학습하도록 하였고, ‘다른 나라’ 부분에서는 ‘다른 나라 문화’와 ‘다른 나라 노래, 춤, 놀이’를 학습하도록 하였다. ‘겨울’ 영역에서는 ‘겨울 날씨와 생활 이해’와 ‘겨울철 생활 도구’, ‘동식물 탐구’와 ‘겨울에 하는 일’을 학습하도록 하였다.

즐거운 생활은 ‘나라’ 영역 중 ‘우리나라’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상징 표현’과 ‘남북한의 놀이, 통일에 대한 관심 표현’을 학습하도록 하였고, ‘다른 나라’ 부분에서는 ‘다른 나라의 노래, 춤, 놀이 즐기기’와 ‘문화 작품, 공연 감상’을 학습하도록 하였다. ‘겨울’ 영역에서는 ‘겨울 느낌 표현’과 ‘놀이 도구 제작’, ‘동물 흉내 내기’, ‘겨울철 신체 활동’을 학습하도록 하였다.

3.2.1. 1학년 2학기 분석

겨울 1-2는 두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80차시로 학습하게 되어 있다. 겨울 1-2의 1단원은 우리나라, 2단원은 우리들의 겨울로 구성되어 있다. 각 단원은 40차시를 학습하게 되어 있다. 겨울 1학년 2학기의 1단원 우리나라에서는 첫째, 문화 간의 차이를 존중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즉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둘째, 자신이 가족과 오랜 시간 동안 이별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며 분단에 의한 이산 가족의 사례를 읽고 가족과 만나지 못하는 슬픔에 공감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이산가족의 아픔과 통일의 필요성 알 수 있다. 셋째, 북한과 같은 민족임을 알고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pp52-55에서는 북한과 남한의 문화 중 무엇이 똑같은가를 학습하며 북한과 남한이 한민족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북한과 남한의 ‘같은 놀이’를 통해서는 한민족임에 대한 공감을 학습할 수 있으며, ‘다른 노래’를 배움으로서 분단의 세월만큼 달라진 문화에 대한 인정 및 그에 따른 타문화에 대한 존중을 학습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집(한옥), 음식, 그릇, 한복에 대하여 공부하며 우리나라에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고, 이러한 전통은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문화라는 것을 학습한다. 다른 나라는 그 나라만의 또 다른 특별한 상황에 의해서 문화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고 타문화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다. 2단원 우리들의 겨울에서는 겨울에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세계 곳곳의 겨울 모습 및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한 활동, 그리고 다른 나라 친구들과 함께 겨울활동 및 비밀 친구가 되어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타문화에 대한 관심 및 흥미를 유발할 수 있으며, 다른 나라 사람 및 국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표 2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1-2학기 내용구성>

단원명	활동요소	차시	차시명(주제명)
1. 여기는 우리나라	만나요	1-3/40	여기는 우리나라
	해봐요	4/40	수업 만들기
		5-6/40	재미난 우리 놀이
		7-8/40	색이 고운 우리 옷
		9-10/40	얼씨구나 우리 노래
		11-12/40	맛나고 정겨운 우리 음식
		13-14/40	아름다운 우리 그릇
		15/40	조상의 지혜가 담긴 우리 집
		16-17/40	알록달록 우리 문양

단원명	활동요소	차시	차시명(주제명)
		18/40	수업 만들기
		19-20/40	우리나라 국기, 태극기
		21/40	우리나라 노래, 애국가
		22-23/40	우리나라 꽃, 무궁화
		24/40	노래로 부르는 우리나라
		25-27/40	우리나라를 소개해요
		28/40	수업 만들기
		29-30/40	무엇이 똑같을까
		31-32/40	같은 놀이, 다른 노래
		33/40	우리는 한민족
		34-36/40	통일이 된 우리나라
37-38/40	통일 비행기		
	마무리해요	39-40/40	‘여기는 우리나라’ 안녕
2. 우리들의 겨울	만나요	1-3/40	우리들의 겨울
	해봐요	4/40	수업 만들기
		5/40	꽁꽁꽁, 땅이 얼었어요
		6-7/40	추위도 신나요
		8/40	겨울 놀이터에서
		9-10/40	얼음위에서 빙글빙글
		11-12/40	동장군이 왔어요
		13-14/40	추운 겨울을 건강하게
		15/40	수업 만들기
		16-17/40	송이송이 하얀 꽃송이
		18/40	눈송이
		19-20/40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어요
		21-22/40	눈사람을 만들어요
		23/40	꼬마 눈사람
		24-25/40	쌍인 눈을 치우며
		26-27/40	하얀 겨울을 즐겨요
		28-30/40	도화지 속의 겨울
		31/40	수업 만들기
		32-33/40	우리 이웃을 둘러봐요
		34/40	비밀 친구가 되어
		35/40	사랑의 마음

단원명	활동요소	차시	차시명(주제명)
		36/40	다함께 즐겨요
		37-38/40	마음을 전해요
	마무리해요	39-40/40	‘우리들의 겨울’ 안녕
		80	

3.2.2 2학년 2학기 분석

겨울 2-2에의 1.단원명은 두근두근 세계여행이다. 가고 싶은 나라에 대해서 호기심을 먼저 느끼한 후 그 나라에 대해서 조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있다. 그 후 다른 나라의 명절, 풍습, 예절에 대해서 공부한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공부한다. 공통점과 차이점에 따라 더운 지역과 추운 지역의 의상이 달라짐을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사는 집도 다양한데, 그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에 따라서 추운지 더운지에 따라서 집의 모양이 다르지만 그 지역의 환경에 따라 사람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나라의 음식과 놀이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서로 다르지만 다른 것을 인정하고 나와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대하는 바른 태도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어 있다. 2단원은 겨울탐정대의 친구 찾기로, 겨울잠을 자는 동물과, 겨울철 활동하는 동식물에 대한 이해 및 스스로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를 통해 추운 겨울 동식물에 대한 보호 및 자연에 대한 이해와 다가오는 겨울 방학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였다.

<표 3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1-2학기 내용구성>

단원명	활동요소	차시	차시명(주제명)
1. 두근두근 세계 여행	만나요	1-3/40	두근두근 세계 여행
	해봐요	4/40	수업 만들기

단원명	활동요소	차시	차시명(주제명)
		5/40	가고 싶은 나라
		6-7/40	알고 싶은 나라
		8-9/40	세계 여행
		10/40	함께 존중해요
		11/40	수업 만들기
		12-13/40	입어보고 싶어요
		14-15/40	알록달록 세계의 옷
		16-17/40	이런 인사 저런 인사
		18/40	안녕, 여러분
		19/40	수업 만들기
		20-21/40	다른 나라 집 구경
		22-23/40	똑딱똑딱 다른 나라의 집
		24-25/40	다른 나라의 음식
		26-27/40	잔치잔치 열렸네
		28-29/40	다른 나라의 장난감
		30-31/40	함께 놀아요
		32-33/40	함께 불러요
		34-35/40	함께 지켜요
		36-37/40	다른 나라의 춤
	38/40	어울림 한마당	
	마무리해요	39-40/40	‘두근두근 세계 여행’ 안녕
2. 겨울 탐정대의 친구 찾기	만나요	1-3/40	겨울 탐정대의 친구 찾기
	해봐요	4/40	수업만들기
		5/40	겨울잠을 자요
		6/40	잠만 자도 괜찮을까?
		7-8/40	겨울잠을 자러 가요
		9/40	수업만들기
		10/40	겨울잠을 자지 않아도 괜찮아요
		11/40	내가 청설모라면
		12/40	겨울은 너무 힘들어
		13-15/40	겨울철의 동물 친구들
		16-18/40	동물들을 도와주세요!
		19/40	수업만들기
		20-21/40	겨울눈아, 넌 누구니?
		22-23/40	겨울눈아, 널 담을래

단원명	활동요소	차시	차시명(주제명)
		24-25/40	식물의 겨울나기
		26/40	이렇게 지켜줘요
		27/40	수업만들기
		28/40	어떤 새를 만날 수 있을까
		29/40	소리개 떴다
		30-31/40	날아라! 종이새
		32/40	탐정수첩 5. 나는 겨울을 어떻게 보낼까?
		33-34/40	줄넘기를 해요
		35-36/40	방학 계획을 세워요
		37-38/40	3학년올 준비해요
	마무리해요	39-40/40	겨울 탐정대의 친구 찾기 안녕
		80	

3.3 통합교과 다문화요소 및 내용분석

<표 4 통합 교과서에 나타난 다문화요소 및 내용>

내용요소 관련목표	하위요소	세부내용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I정체성 (identity)	①개념(ocptadcharctrstcsofiett)			
I다문화 정체성 확립	②차원(diensin of identity)	a. 개별 정체성		
		b. 집단 정체성		
		c. 다문화 시민 정 체성		1
	③형성 및 변화(hangeofientt)			
④성향 (orientation ofidentity)	d. 긍정적 자기 인 식			
	e. 긍정적 타인 인 식	1		
D다양성·다 원성 (DiversityP)	⑤문화 다양성· 다원성 인식 (awareness of cu)	a. 문화의 다양성	3	6
		b. 타문화에 대한	1	7

luralism) 다문화 능력 배양	ltural diversit y · pl uralism)	흥미와 관심		
		c. 타문화에 대한 인정 및 관용		2
	⑥문화다양성에 대 한 태도 및 관점 (attitude of cultural diversity)	d. 한국의 다문화 상황인식		
		e. 문화 다양성의 가치인정		2
		f. 문화에 대한 바 람직한 관점		1
	⑦문화집단 간 상호의존성 (inter-cultural group relationship)			
	S사회정의 (Social Justice) 사회정의 실 현	⑧사회정의감 (sense of social justice)		
⑨ 인 권 존 중 (respect for human rights)		a. 인권 개념 및 유형		
		b. 인권보장을 위 한 노력		
⑩평등 (equality)		c. 평등의 개념		
		d. 평등의 가치		
		e. 소수자의 개 념 · 특징		
⑪소수자 (m inority)		f. 소수자의 유형		
	g. 소수자에 대한			

	⑫차별 (discrimination)	태도		
		h. 차별의 개념		
		I. 차별 현황·사례		
		j. 차별 개선 노력		
소계			5	19

2015 개정 교육과정 통합 교과서 1-2학기과 2-2학기 겨울 경우 다문화적 내용 빈도수가 1학년 2학기의 경우 5, 2학년 2학기의 경우 19로 나타났다. 핵심영역으로는 1학년 2학기는 D 다양성에서 3번, 2학년 2학기는 문화의 다양성과 다원성의 인식이 13번으로 나타났다. 1학년 2학기 교과서에서는 총 5번으로 다문화 요소가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2학년 2학기 교과서에서는 다문화 요소가 중복되어 나타났으며, 그 빈도수 또한 1학년 2학기 보다 4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 및 연구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통합 1-2학기과 2-2학기 겨울 교과서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표 5 1-2 겨울교과서의 다문화적 내용 분석>

연번	단원	쪽	주요내용	분류
1	1단원	36	다양한 국기 모습 사진	D-5-a
2	1단원	41	세계 여러 운동선수들 삽화	D-5-a
3	2단원	104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겨울놀이 하는 모습 삽화	D-5-a
4	2단원	128	다른 나라 학생과 한국 학생들이 친구가 되어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모습 삽화	I-4-e
5	2단원	136	다양한 나라의 겨울풍경 그림 삽화	D-5-b

1은 경기장에서 태극기 외 다른 나라(2개 국가)의 국기와 경기장내 다양한 외국인들 사진을 보여줌으로써 문화의 다양성을 나타

내고 있다.

2는 올림픽에 출전한 여러 나라의 선수들과 국기를 삽화로 나타내어 문화의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다.

3은 겨울에 하는 놀이의 모습을 삽화로 나타냈는데, 눈사람 만들기, 스케이트타기, 눈썰매, 눈싸움 등 다양한 겨울 놀이 활동을 다양한 나라의 아이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삽화로 나타내어 문화의 다양성을 표현하고 있다.

4는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이 서로 비밀친구가 되어 친구를 돕는 모습을 삽화로 나타내어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여 타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5는 세계 다양한 나라의 겨울풍경 그림을 보여줌으로써 타문화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1학년 2학기 겨울교과서에서는 다문화적 내용이 총 5번 정도로 분석되며, 그 내용은 총 5번 중 3번이 문화의 다양성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처음 학교에 입학하여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타문화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하여 이후 교과서에서 습득한 지식을 실생활에서 적용하고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초적인 내용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S 사회정의 요소분석에서 평등, 소수자, 차별의 요소들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그 내용이 보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처음 학교에 입학했을 때 자신과 다른 외모와 언어를 사용하는 친구들에 대해 선입견 및 편견을 가질 수 있으며 나와 다름을 틀림으로 착각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적 보강이 이루어진다면 문화적 다양성의 인정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타민족문화 및 사람을 성숙하게 받아들이는데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다.

<표 6 2-2 겨울교과서의 다문화적 내용 분석>

연번	단원	쪽	주요내용	분류
1	1단원	8	다양한 나라의 집, 음식, 의복 모습 사진	D-5-a
2	1단원	20-23	가고 싶은 나라 국기 삽화	D-5-b
3	1단원	24	가고 싶은 나라 소개 및 자료 정리 모습 삽화	D-5-b
4	1단원	30-37	다른 나라 문화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 함께 생각하는 모습 삽화	D-6-f
5	1단원	38-39	다른 나라 전통의상 삽화 및 사진 삽입	D-6-e
6	1단원	42-43	다양한 나라의 전통의상 삽화	D-5-b
7	1단원	44-49	세계의 인사말 소개 삽화 및 세계의 아침인사 노래 소개	D-5-a
8	1단원	52-57	세계 곳곳 다른 나라의 집 소개 삽화	D - 5 - a , D-5-b
9	1단원	58-63	세계 곳곳 다른 나라의 음식 사진 삽입	D - 5 - a , D-5-b
10	1단원	64-69	다양한 나라의 어린이들이 노는 모습 및 장난감 활동 삽화	D - 5 - a , D-5-b
11	1단원	68-73	세계의 여러 민요 부르기 삽화	D - 5 - a , D-5-b
12	1단원	74-77	다른 나라 친구들에게 지켜야 할 예의 소개	D-5-c, I-2-c
13	1단원	78-83	세계 여러 나라의 춤 소개 및 민속춤 의상 만들기 삽화	D-5-b, D-5-c, D-6-e

1은 세계의 다양한 나라의 의, 식, 주 및 문화를 보여줌으로써 문화의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다.

2는 가고 싶고 알고 싶은 나라의 국기 및 자랑거리에 대해 나타내어 올림픽에 출전한 여러 나라의 선수들과 국기를 삽화로 나타내어 타문화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3은 가고 싶은 나라에 대해 소개하고 이에 대한 조사 과정을 나

타내어 타문화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4는 다른 나라 문화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를 함께 생각하는 것으로 문화에 대한 바람직한 관점에 대해 나타내고 있다.

5는 다른 나라의 전통의상과 소개함으로써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6은 다양한 나라의 전통의상을 소개하는 것으로 타문화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다.

7은 세계의 인사말 소개 삽화 및 세계의 아침인사 노래 소개로 문화의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다.

8은 세계 곳곳의 다양한 나라의 집들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문화의 다양성 및 타문화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다.

9는 다양한 나라의 음식에 대한 소개를 함으로써 문화의 다양성 및 타문화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다.

10은 다양한 나라의 어린이들이 노는 모습을 살펴보고, 세계 여러 장난감을 만들어 봄으로써 문화의 다양성 및 타문화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다.

11은 세계 여러 나라의 민요를 부름으로써 문화의 다양성 및 타문화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다.

12는 서로 다른 나라의 친구들을 만났을 때 지켜야 할 예절에 관한 설명으로 타문화에 대한 인정 및 다문화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예의 및 정립 정체성에 대해 고민할 수 있다.

13은 세계 여러 나라의 춤 소개 및 민속춤 의상 만들기에 대한 내용으로 타문화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 내고, 타문화를 인정하며 다양한 문화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게 한다.

2학년 2학기 겨울 교과서에서는 총 다문화적 내용이 19번으로 분석된다. 1학년 2학기보다 14번 가량이 증가하였지만, 내용 분석 결과 중복되는 것이 많으며 2학년 겨울 교과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문화의 다양성과 인식에 대한 것이 많다. 1단원의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 수업 시, 실제 학생 참여 활동을 통해 I 다문화 정체

성 확립 요소 또한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양한 나라의 전통의상 및 언어, 음식, 집 등을 다양성의 이해와 더불어 이것을 받아들임으로써 개인 및 집단의 정체성을 이해하며 자신의 고유문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자신 및 타인의 문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교과서에서는 대부분 소개에 그쳐 이를 활용하고 실제 아이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활동 및 토론은 부족한 실정이다. 1,2학년 아이들의 특성상 토론이 어렵다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서로의 문화에 대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교사의 피드백이 주어진다면 자신 및 타인의 정체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다문화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 함양 또한 기를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의 분석과 통합 1-2, 2-2 학기 겨울 교과서의 다문화적 내용 분포 및 실제적인 내용을 파악 후 비교하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5 개정 교육과정 통합 교과서 1-2학기과 2-2학기 겨울 경우 다문화적 내용 빈도수가 1학년 2학기의 경우 5번, 2학년 2학기의 경우 19번으로 나타났다. 핵심영역으로는 1학년 2학기는 D 다양성에서 3번, 2학년 2학기는 문화의 다양성과 다원성의 인식이 13번으로 나타났다. 1학년 2학기 교과서에서는 총 5번으로 다문화 요소가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2학년 2학기 교과서에서는 다문화 요소가 중복되어 나타났으며, 그 빈도수 또한 1학년 2학기 보다 4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문화의 다양성에만 주로 집중되어 나타났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 특히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에서도 단편적인 문화의 다양성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실제 학교 혹은 교실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

고 초점이 일반 학생뿐만 아니라, 현재 거주 중인 다문화 학생을 고려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과서의 내용 및 중복에 관련하여서는 2015 개정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에 비교할 수 있는데, 2015 개정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3-4학년은 성취기준의 수가 48개에서 24개로 축소되었으며, 영역 간 내용 중복성이 해소되었다. 대신 다른 파트와의 영역 간 통합 및 유기적 연계성을 강화하여 균형 있는 학습이 강화되도록 하였다. 현재 통합교과에서 가지고 있는 중복 문제 및 다양성에만 치중되어 있는 교과서를 이와 같이 수정 편재한다면 더 좋을 것이다(은지용 외, 2015).

둘째, 2015 개정 통합 교과에서는 다문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 거의 없으며, 특히 1-2학기에는 그 빈도수가 매우 부족하다. 처음 학교에 입학해 다양한 친구를 만나는 시기인 1학년에 다른 나라의 학생들과 다름을 인정하고 그러한 문화를 받아들이는 활동 및 체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교과서에 제시된 글 및 삽화, 사진 등의 자료를 통해 다문화를 접할 수 있게 되므로, 1,2학년 학생들의 올바른 다문화 태도 형성을 위한 교과서 내 다문화 관련 내용수의 빈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과서의 내용 보완 및 실제 교실 혹은 사회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다문화 아동을 대하는 학생들의 인식 재고와 더불어 교사의 역량 또한 매우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이 주제 및 교과 내용을 활동을 통해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므로 블록 차시 위주로 개발이 된 바, 교과서를 지도함에 있어 교과서 내용에 집중함과 동시에 교실의 상황에서 자율적으로 체험하고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사연수 및 통합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보충하고 보강할 수 있는 각종 자료의 배급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통합 교과 속 다문화 내용 분석결과 학교 및 교육과정에서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관심과 변화에 새롭게 대처해야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세계화와 다양화로 인해 달라진 생활

모습은 세계시민으로서 자질을 함양하고 올바른 가치와 태도를 신장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 교육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교과서에서 다문화 교육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김무정, 2011).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및 세계관을 반영한 교과서는 궁극적으로 다문화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다른 문화와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게 하여 타인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통합 활동을 통한 다문화에 대한 이해 및 체득은 지구촌 사회에서 살아갈 중요한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며, 서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고 존중할 줄 아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게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통합 교과 1-2, 2-2 겨울 교과서에서 전반적인 다문화 교육의 내용에 대해 분석 및 제시했지만, 이후 전 교과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 분석 및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교과서 개정 시 다문화에 대한 내용 보강 및 자료의 수정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과정진로진학부(2017). 2015 개정 교육과정 및 안정과 성장 맞춤형 교육과정의 적용을 위한 초등 1,2학년 지도자료집.
- 교육부(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초등학교-.
- 교육부(2017). 초등학교 1,2학년 바슬즐 교과서 「겨울」, 한국교원대학교 바슬즐 주제별 교과서 초등 통합 편찬 위원회, 교학사.
- 김무정(2011). 초등학교 통합 교과서의 다문화 교육내용 분석. <한국도덕교육> 36권,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335쪽~360쪽.

- 조영달(2009). 초중등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다문화적 요소분석을 통한 개정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모경환·황혜원(2007). 중등 교사들의 다문화적 인식에 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39권 3호, 한국사회과교육학회. 79쪽~100쪽.
- 백옥련·최충옥(2012). 다문화교육에 대한 기술, 가정과 교사의 인식도 분석 모형 개발, <다문화교육> 3권 2호, 한국다문화교육학회. 25쪽~50쪽.
- 오은순 외(2008).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방안 연구: 사회과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은지용·이간용·최병택·한춘희(2015). 2015 개정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 시안의 기본 방향과 주요 특징 및 변화 양상, <사회과교육> 54권 4호, 한국사회과교육연구회. 65쪽~83쪽.
- 이인재(2010). 다문화사회에서의 초등학교 반편견교육, <윤리교육연구> 22권, 한국윤리교육학회. 253쪽~272쪽.
- 이지은(2008). 다문화주의 관점에서의 고등학교 교과서 분석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18권,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21쪽~56쪽.
- 전재영(2011). 다문화교육연구 실태를 통해 본 개선방향, <다문화교육연구> 4권 2호, 한국다문화교육학회. 17쪽~41쪽.
- 전희욱(2008). 다문화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방향. 초등교육학회 2008년 학술대회 제2분과 다문화주의 교육내용과 방향.
- 한국교육개발원(2015).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과 주요 개정 내용, 온정덕.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5).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2, 초등 통합 교과 교육과정 및 안전한 생활. 연구보고 CRC2015-25-2.
- Banks, J. A. & Cookson, P., et al.(2001). Diversity Within Unity: Essential Principles For Teaching and Learning In

a Multicultural Society. *Phi Delta Kappan*, 83(3)
pp.196-203.

Johnson, J. R. & Nieto, J.(2007). Toward a Cultural Understanding of the disability and Deaf Experience: A Content Analysis of Introductory Multicultural Education Textbooks. *Multicultural Perspectives*, 9(3), pp.33-43.

필자 소개

성 명 : 강현주

소 속 : 부산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 박사과정

전자우편 : love200f@nate.com

투고일: 2018. 1. 15 / 심사일: 2018. 2. 2 / 심사완료일: 2018. 2. 9
--

영화 <불온한 당신>과 <꿈의 제인>에 나타난 성소수자에 관한 한국사회 문화다양성의 수용성 제고

노승인

(부산외국어대학교)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 2.1 성소수자(Sexual minority) 개념
 - 2.2 성소수자에 대한 선행연구 및 인식
3. 영화에 나타난 성소수자에 대한 한국사회의 시각
 - 3.1 동성애자 : 영화 <불온한 당신>
 - 3.2 트랜스젠더 : 영화 <꿈의 제인>
4. 성소수자에 대한 수용성 제고
 - 4.1 담론
 - 4.2 교육
 - 4.3 법·정책
 - 4.4 종교
5. 결론

<Abstract>

Roh Seung In. 2018. 1. 15. **The Enhancement of Multicultural Acceptance of Korea Society on Sexual Minority Appearing in the Films, <Troublers> and <Jane>**,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1, 30-52. In this thesis, I examined the

various absurdities, prejudices, discrimination currently undergoing in Korea society through Korean films of representing sexual diversity <Troublers> and <Jane>. Although the perception of sexual minorities is gradually improving, Korean still has a high negative perception about it among the members of society. Furthermore, the possibilities legislating an independent law for same sex couples in other to granting legal protection to them are not high.

As a way of promoting a more positive view of Korean, providing adequate protection for LGBTQIA in Korea society, I presented it from the view of education, law and policy, and religion. The reasons for it are because the members of the societies agree that the human rights of sexual minorities should be respected. To erase the shadows of discrimination against sexual minorities, educating prospective Korea society about the complexities of sexual orientation should be a key component of multi-cultural education. we live that changing times demanded a more flexible diversity and acceptance.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ey Words] discrimination, prejudices, sexual minorities, independent legislation, LGBTQIAH, human rights.

1. 서론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과 더불어 사회적소수자에 대한 인권 문제도 점차 주목을 받고 있다. 성(性)소수자의 권익 보호 수준은 곧 해당 국가의 인권 보장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만큼 성소수자 문제는 인권 문제의 뜨거운 이슈들 중 하나이다. 과거와는 다르게 성소수자가 당당하게 자신의 성(性)정체성¹⁾을 밝히는 경우가 많아졌고, 퀴어 문화 축제가 열리는 등 성소수자의 인권을 인정하고 보

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우리사회에서도 성소수자는 더 이상 감출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동성애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여 함께 생활하고 있는 동성커플에게 혼인법을 적용하여 법적인 보호를 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사회 구성원들이 동성커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한 입법부에서 성소수자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들을 위한 사회적 이해가 확산되고는 있지만 성소수자들의 삶의 고뇌는 사회의 편견과 무관심 속에 여전히 묻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상의 눈에는 불온한 삶을 살아왔지만 자신의 선택 앞에 당당한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그린 두 영화를 바

1) 본고에서 사용하는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성적지향이란, 성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어떤 성별에 이끌리는지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성적 지향에 따른 정체성 범주는 같은 성별에 이끌리는 동성애자(게이, 레즈비언), 다른 성별에 이끌리는 이성애자, 남녀 두 성별에 대해 이끌리는 양성애자(바이섹슈얼)로 통상 분류한다. 그러나 성별정체성은 반드시 남성 혹은 여성으로만 구별될 수 없다는 지평에서 다양한 성적 지향을 지칭하는 범주들 또한 존재한다. 성별정체성이란, 자신이 스스로 인식하는 자신의 성별을 말한다. 성별정체성은 생물학적 성별과 일치할 수도,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후자를 일컬어 성전환자 또는 트랜스젠더(Transgender)라고 한다. 생물학적 남성으로 태어났으나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사람을 트랜스젠더 여성(male to female, 약칭 MTF), 생물학적 여성으로 태어났으나 스스로를 남성으로 인식하는 사람을 트랜스젠더 남성(female to male, 약칭 FTM)이라고 한다. 그러나 스스로 특정한 성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각하는 경우도 있으며 남녀 이분법적인 성별 구분 자체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 트랜스젠더 여성·남성 이외에도 중성(gender-neutral), 양성(androgyn), 젠더 퀴어(gender queer) 등 다양한 성별정체성 범주로 표현하고 있다. (장서연 외,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4, p.8).

탕으로 한국사회에서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다양성의 인정이라는 측면에서 이들의 삶을 이해하고 유예된 이들의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성소수자 가운데서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에 국한되었음을 밝힌다.

2. 이론적 배경

2. 1 성소수자(Sexual minority) 개념

성(性)소수자란 시스젠더(Cisgender), 이성애자(Hetero sexual)를 제외한 모든 소수성을 가진 사람을 아우르는 표현이다. 시스젠더란, 자신이 깨닫고 인식한 성별과 사회에서 부여 받은 성별이 일치한다고 느끼는 사람을 말하고(Oxford Dictionary, 1990), 이성애자란 이성에게 성적 정서적 애정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즉, 성소수자란 주류와 다른 성적 지향과 성(性)정체성으로 인해 편견과 차별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사회적 소수자 집단을 말한다. 성소수자에는 LGBTQIA 즉,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ity), 트랜스젠더(Transgender), 자신의 정체성에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Questionary), 인터섹스(Intersex), 무성애자(Asexual), 등이 포함된다(양희선, 2017).

성소수자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성정체성(sexual identity)과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성정체성(gender identity)의 사전적 의미는 자신의 젠더에 대한 자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에 대한 사회문화적 정의와 관련된 자아의식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은 성적인 관심, 성적인 욕망이 어떤 성적 대상을 향해 있는지에 관한 자기인식을 말한다. 1980년대에는 성적 선호(sexual preference)라는 용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

는 동성애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거나 노력하면 바꿀 수 있는 선호나 기호의 차원으로 오인(誤認)하게 한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성적지향이 한 개인의 임의적 선택이 아니라, 그 개인을 둘러싼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요인들이 매우 복잡하게 상호작용한 결과로 본다.

성적지향은 성(sex), 정체체성(gender identity), 성역할 등과 구별되는 것으로 자신의 성적지향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시기는 사람마다 다르다(김문조·김철규·최은정, 1999: 267-287).

2. 2 성소수자에 대한 선행연구 및 인식

동성애 합법화가 이슈로 등장하는 등 사회 곳곳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만 성소수자를 보는 다양한 시각도 여전히 있다. 김상학(2004: 169-206)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 감정, 거리감 등을 연구했다.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 응답자가, 나이가 젊고 미혼일수록, 대도시 출신일수록, 정치사회의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동성애 관련 수강 경험이 많을수록 동성애에 대한 태도가 보다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예비교사들은 공통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자신의 편견을 인지했다고 신경희·강미옥(2014: 723-739)은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인식 확장과정에서 개인적인 편견을 기존 사회의 권력구조로 연결시켜 생각하는 예비교사들과 그렇지 않은 교사들로 나누어졌으며, 사회구조 속에 숨어있는 편견을 발견한 참여자들은 성소수자에게 가해지는 차별에 맞서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그렇지 않은 교사들은 성소수자들이 ‘정상’의 범주로 돌아와야 함을 강조하였다.

국내 상담자의 동성애혐오반응에 관한 연구에서 서영석·이정림·강재희·차주환(2007: 213-237)은 148명의 상담자들에게 동성애혐오반응을 인지, 정서적 반응, 행동의도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해서

살펴본 결과, 상담자의 내재적 종교성향과 권위주의적 성향이 강할수록 동성애자들에 대한 사고가 부정적이었고, 부정적인 정서반응 역시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상담 경력이 많은 상담자일수록 동성애자들에 대해 덜 부정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었고, 부정적인 정서반응 또한 덜 할 것으로 지각하였다. 그러나 행동적 차원의 동성애 혐오반응은 상담경력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중의 시각을 대표하는 미디어에서도, 성소수자들에 대해 어떤 시선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국내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성소수자의 재현은 실제 사회에 존재하는 것보다 적게 재현되거나, 왜곡되어 재현된다고 박지훈·이진(2013: 5-42)은 밝히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성소수자들에 대해 일부 정치권이나 보수 종교단체들은 불편한 시각을 보이고 있다. 최근 방영된 EBS의 성소수자 관련 프로그램이 일부 종교단체 등에게 항의를 받으면서 조기종영하게 되었고, 기독교학술원 원장인 김영한 박사는 유엔(1989년 이후)이 동성애를 인권범주에 넣은 것은 1948년 보편인권정신에 위배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한 성소수자 차별 금지 결의안에 찬성함으로써 유엔의 입장을 지지했다. 그러나 한국사회 내에서는 아직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2007년 발의한 ‘대한민국 차별 금지법’은 세 차례에 걸쳐 제정이 시도 되었으나, 성적지향을 포함한 몇 가지 항목을 차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반대로 2013년 법안은 철회됐다. 2014년 발의한 ‘인권교육지원법안’ 역시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한 보수단체들은 이 법안에 동성애 허용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며 반대하여 철회됐다. 김한길, 최원식 의원은 차별금지법안을 철회하거나 민홍철 의원은 ‘동성 간의 합의된 성관계’를 형사처벌 하도록 균형법을 개정하도록 제안하기도 하였다. 정치인으로서 드물게 성소수자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박원순 시장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을 바꾼 점 등은 정치인에게 미치는

성소수자 이슈의 영향력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동성애를 옳지 않다고 가르치는 것이 먼저’라며 서울학생인권조례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삭제하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고 아산정책연구원(2015)은 보고했다.

3. 영화에 나타난 성소수자에 대한 한국사회의 시각

3. 1 동성애자 : 영화 <불온한 당신>

영화 <불온한 당신>은 존재를 지우려고 하는 사람들에 맞서 존재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삶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공존과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담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다. 다양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하는 시대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성소수자로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쉽지만은 않다. 사회의 통념에 온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오랜 시간을 ‘불온(不穩)’의 편견에 시달려야만 했을 그들의 이야기, 영화 <불온한 당신>은 성(性)이라는 주제를 넘어 우리 안에 자리한 ‘혐오’와 ‘차별’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깔끔하게 정리된 집에 사는 70대 어르신. 꼼꼼하게 면도를 끝내고 집을 나서면, 가는 곳마다 믿고 따르는 동생들이 많은 이 형님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다.

“사람들은 내가 남자인 줄 안다니까. 절대 여자라고 생각 안 해요”

자신의 성(性)을 스스로 선택하고 70평생을 남자로 살아 온 사람 ‘이목’ 하지만 한 번도 자신의 선택에 대한 미련이나 후회를 가져 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7-8살 때였을 거야. 이상하게 어려서부터 나는 여자가 아니라는 걸 마음에 각오한 거 같아. 왜냐하면 여자가 좋아. 예쁘고 좋아”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 속에서도 절대 뒤로 숨는 법이 없었던 그의 삶. <불온한 당신>은 70평생 자신의 선택을 지키며 살아온 성소수자의 삶과 그의 이야기를 통해 편견에 시달려야만 했을 우리사회의 성소수자들에 대하여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하며, 그들의 삶을 존중하고 혐오가 만연해지고 있는 세상에 공존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여자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온 바지씨(이목)²⁾, 분명 존재하지만 존재 자체를 부정당해야 했던 사람. 그들의 모습은 우리의 생각처럼 ‘불온’ 할까?

단일민족 국가임을 강조하는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의 존재는 가부장적, 이성애적 이데올로기에 반대되는 위협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단일성(homogeneity)을 강조하며 주류 문화가 비주류 문화를 억압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한국사회는 주류집단과 다른 비주류집단의 생각을 배제하는 획일화된 사고와 문화를 오랫동안 지켜왔으며, 해방 후 기독교적 사상이 전통적 유교주의 문화와 결합됨으로써 우리사회에서 동성애를 허용하지 않는 구조와 이를 금기시하는 문화가 더욱 강화되었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동성애자들은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철저히 숨긴 채 살아 가야 했으며 만약 동성애자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무수한 사회적 차별과 억압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신경희·강미옥(2014: 723-739)은 언급했다.

영화 <불온한 당신>은 세상의 눈에는 불온한 삶을 살아왔지만 자신의 선택 앞에 당당한 동성애자들을 그린, 성소수자에 대한 부르는 이름조차 없었던 노년세대를 발굴하고 성소수자의 존재를 여전히 혐오하고 부인하는 지금의 시대를 기록하고 있다.

2) 바지씨: 당시 성소수자들이 사용하던 은어로 남성성의 매력을 풍기는 이들을 특정 의상에 빗대어 지칭한 말

이영감독은 퀴어 대담(2017)에서 영화제작시 반대자들 즉, 혐오 세력들에 의한 감시를 받아야만 했으며 취재를 거부당하기도 했고, 성소수자들에 대한 잘못된 정보나 거짓된 주장들을 할 것을 요구받 으며, 협박을 당하면서도 취재를 위해 항의 할 수 없었던 점이 고통스러웠다고 했다. 성소수자들에게 인권은 곧 목숨이다. 아산정책 연구원의 보고(2015)에 따르면, 한국인은 다른 소수자 인권에 비해 성소수자 인권문제에 대해 아직 뚜렷한 입장이 없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성소수자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모름/무응답’ 으로 평가를 유보한 비율은 28.3%나 되었는데 이것은 여성, 노인 인권문제에 대해 평가를 유보한 비율에 비해 4~5배나 높은 수치라고 한다.

영화에서도 혐오세력들의 공격을 보여주는데 ‘혐오’ 와 ‘차별’ 이라는 것이 어떤 폭력인지를, 삶과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겪을 두려움이 어떠한지를 생각하게 하는 장면이다. ‘혐오’ 와 ‘차별’ 에 대한 폭력은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 견디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 ‘한국 LGBTI 사회적 욕구조사(2013)’ 에서 레즈비언은 76.7%가 자신이 레즈비언이란 점을 긍정적으로 느낀다고 응답하면서도 차별과 폭력을 해결할 방향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성원(2016)은 이런 연구 결과를 감안하면 위협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여성 동성애자들이 개인 수준의 긍정적 정체성의 대처 자원으로 활용하여 문제해결 중심 대처를 할 가능성이 남성 동성애자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즉, 여성 동성애자들이 직면한 스트레스가 불안정한 사회경제적 지위, 여성 성소수자로서 소수자 집단 안팎으로 경험하는 폭력 등과 같이 개인적인 수준에서 해결 방안이 없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스트레스일 수 있다.

영화에서는 개인과 광장, 한국과 일본, 다양한 계층, 다양한 공간들 등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점점이 쌓여가면서 영화가 만들어 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최근 몇 년 간 한국사회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혐오’ 라고 하는 것과 맞물려

‘혐오’가 성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에게 행해지는 일부의 이야기라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이러한 설정은 ‘혐오’의 영역이 일반인들이나, 혐오와는 상관없다고 여겨지던 사람들에게 까지 확장되어가는 과정들을 보여주고자 함이라고 이영감독은 말했다. 또한 이것은 이 영화 안에서 개인과 사회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사회영향력이 어떻게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지를 표현하고 있고, ‘혐오’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사회적으로 공개 되어가는 상황에서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한다.

3. 2 트랜스젠더 : 영화 <꿈의 제인>

어디에도 받아들여지지 못한 소녀 ‘소현’과 누구와도 함께 하길 원하는 미스터리한 여인 ‘제인’의 특별한 만남을 그린 <꿈의 제인>은 사회적소수자를 향한 감독의 애정 어린 시선을 담고 있으며, 꿈과 현실을 오가는 영화적 체험을 선사하는 작품이다. 버려지는 게 두려워 걸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림자처럼 맞춤형 인간으로 살아가는 ‘소현’과 미스터리 하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트랜스젠더 ‘제인’, 말하는 것보다 듣고 생각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느끼게 해준다. 영화 <꿈의 제인>은 제인의 입을 빌려 모두에게 격려와 위로를 전하고자 한다. 특히,

“이런 게 같은 인생 혼자 살아서 뭐하니. 그래서 다 같이 사는 거야. 우리 죽지 말고 오래오래 불행하게 살아요.” -제인

라는 말처럼 얼핏 삶을 향한 자조처럼 보이는 대사들은 삶이라는 끈을 홀로 힘겹게 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함께 살자’는 메시지를 전하며 그들의 삶에 격려를 보낸다. 영화 속에서 제인은 윤리의식을 강조하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가령 가출팸들이 모여서

케이크를 먹는 장면에서도 똑같이 나눠먹던가 모두가 먹지 않던가 하라는 이야기를 한다. 혼자만의 세상에서 벗어나 사람들 속으로 다가가고 싶어 하는 소현, 그러나 다가가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던 소현은 제인을 통하여 ‘함께’ 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

우리사회에서 트랜스젠더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경계인, 어릴 때부터 당했을 주변에서의 따돌림, 상처가 많지만 그 상처를 견뎌야만 하는 이미지로 떠오를 것이다. 그러나 영화에서는 보호받아야 할 한 개인을 향한 트랜스젠더의 관심과 사랑이 오히려 우리로 대변되는 ‘소현’을 성장하게 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반성적 사고를 갖게 하고 동시에, 성소수자는 치료의 대상도 아니고, 서구의 산물이거나 시혜적으로 돌봐야 할 존재도 아니며, 성소수자나 비성소수자를 막론하고 모두 다양성을 가진 동등한 인간이라는 점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보여 진다.

이호림 외(2015: 64-94)는 트랜스젠더 정체성은 동성애와 마찬가지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정신질환이 아니다. 오히려 트랜스젠더에게 필요한 의료적 지원은 성별 위화감의 정도와 주변 환경 등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호르몬 요법, 수술 등 의료적 조치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것임에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진의 이해 부족과 사회보장제도의 미비로 이러한 의료 접근권이 사실상 전혀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인간의 성별이 태어나면서부터 신체적 특징에 따라 정해진다는 믿음, 성별이 남/여 두 가지만 존재한다는 믿음, 성별 이분법에 기초한 이러한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 다양한 성별을 가진 개인들이 그 자체로서 존중받을 때, 우리 사회에서 보다 많은 트랜스젠더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제인과 소현은 정우라는 같은 인물을 만나려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둘은 정우가 일하고 있는 ‘뉴월드’ 라는 공간을 찾아가게 되는데, 처음에 찾아갔을 때 ‘뉴월드’는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처리되어 나온다. 하지만 극의 후반부 제인의 죽음 후 소현 혼

자 찾아 갔을 때는 화려한 조명을 보이며 왕성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장면으로 바뀌어서 보여 준다. ‘뉴월드’는 어쩌면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이 꿈꾸는 ‘새로운 세상’이 아닌가 여겨지며, 또한 성소수자인 제인이 하나의 인간으로 인정받고자 했으나 거부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인의 부재와 대비되어 우리사회의 모순과 편견의 민낯을 보여주고자 함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자신이 일하는 클럽에 언제든지 출입을 허한다는 스탬프를 소현의 팔목에다 찍어 주는 장면은 인상적이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그 스탬프에 쓰인 글자는 ‘UNHAPPY’이다. 우리는 스탬프와 관련된 이론을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바로 ‘낙인이론’이 그것이다. 사회에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인격체임에도 불구하고 인권을 유린당한 채 살아가야하는 사회적소수자들, 특히 성소수자들은 ‘UNHAPPY’와 같은 스탬프를 하나씩 가슴에 찍힌 채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4. 성소수자에 대한 수용성 제고

4.1 담론

문화다양성수용은 인식과 태도의 문제이고,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담론에 대한 고려가 우선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가 문화적 다양성을 가진 동등한 존재이며, 다문화주의 관점에서 시민권을 보장해야 할 사회구성원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이러한 변화는 성소수자 운동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성소수자들은 낙인된 타자로 규정당해 온 억압의 역사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대표하면서 인간 성정체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존하자는 운동을 벌여 나가고 있다.

본고에서 선정한 영화 ‘불온한 당신’은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영화는 2013년 제작되었으나 반대세력으로 인하여

상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성소수자 운동과 시대의 변화에 따른 인식의 전환과 함께 2016년에는 올해의 여성영화인 다큐멘타리상, 제7회 DMZ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한국경쟁부문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하였고, 2017년 올해의 독립영화로 선정되었다. 또한 세계 21개 영화제에 초청되기도 하였다. 영화 ‘꿈의 제인’은 영화계 평단과 언론, 관객들의 열렬한 지지를 이끌어내며 각종 SNS를 통해 팬덤까지 형성시키며 제42회 서울독립영화제 관객상과 함께 한국영화기자협회 기자들이 직접 선정하고 시상하는 제9회 올해의 독립영화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이처럼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식과 편견은 과거에 비해 진일보하였지만, 여전히 보수적인 편견의 시각은 세상 곳곳에 가득 차 있다. 사람들은 사회적 편견 속에서 게이와 레즈비언 같은 사회적소수자들과의 연대가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를 더 위협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기도 하고, 사회적 수치심을 갖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 사회적소수자들의 열린 마음과 솔직한 마음의 표현을 통해 다문화와 문화다양성에 살고 있는 지금은 서로를 받아들이고 신뢰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들의 삶이지만, 언젠가 나의 삶이 될 수 있고, 모든 삶은 누구에게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James A. Banks(2016: 57)에 의하면 다양성이란 다문화 국가 안에서 살고 있는 집단들의 내부 및 집단 간에 존재하는 인종, 문화, 민족, 언어, 종교의 광범위한 편차를 나타낸다는 것이기 때문에 인종, 성, 사회계층, 종교와 같은 다양한 변수들은 복잡한 양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고 상호작용성과 상호관련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공동체적 연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였다.

우리사회의 성소수자들을 위한 문화다양성 수용성제고를 위한 담론으로 ‘차별금지’나 ‘성정체성 인정’의 문제를 아우를 수 있는 ‘구성권(membership)’을 고려해 보았다. 이용승(2014: 197-8)은 ‘구성권(membership)’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원들의 법적 지위와는 일정 무관하게, 해당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마땅히 인정되고 부여받아야 하는 권리와 지위, 그리고 그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정체성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4.2 교육

차별은 결국 교육의 문제다. 모경환(2009: 245-270), 차경수·조대훈(2012)은 다문화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의 역할이라고 하였다. 교사는 교육과정을 통해 조직된 교과 내용을 그대로 학생에게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만 취하지 않는다. 자신의 교육학적 지식과 경험을 함께 섞어 새로운 교수법적 지식을 가지고 수업에 임하고 교육과정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에서 교사는 공식적,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의 소수자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교사의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와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조대훈(2006: 211-241)은 밝히고 있다. 구정화(2013: 31-53)는 초등 교사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연구를 통해 그들이 인식하는 사회적 소수자가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빈곤층 등으로 매우 범주가 좁다는 것을 알려준다. 따라서 교사의 소수자에 대한 인식 범위를 넓혀 줄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영화에서는 성소수자들이 감염인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격리되어야 할 존재로 비취지고 있다. 더불어 살아가야하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소수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교육받지 못했다. 그 예로 서울시교육청, 성북구청에서 인권선언문제를 정할 무렵에 반대세력의 저항과 부딪히는 장면이 보여 지는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인권선언문에 포함되어있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라는 명시이다. 조대훈(2011: 205-237)은 동성애에 대한 고등학교 사회과 교사들의 교수적 태도를 측정하였다. 동성애에 대한 교수적 태도는 권위주의 성향, 성차(sex difference), 동성애 지인

의 존재 여부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교사의 다문화에 대한 접촉과 경험이 교사의 다문화 교수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한동균(2009)은 소수자 교육은 학생들의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해소함으로써 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다고 하였다.

한국의 다문화교육은 대체로 부가적 접근법에 가깝다. 부가적 접근법은 “교육과정의 기본적 구조 및 목적의 변화 없이 종종 책, 단원 또는 교육과정을 수업에 첨가시키는 방식”(Banks, 2011: 294)이다.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이 부가적 접근 이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차별, 반편견의 견지에서 교육과정 전반에 걸친 평가, 평가에 기초한 교육과정 변경이 진행되어야 하고, 지식을 구체적인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는 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승용(2016)은 다문화수용성이 지식과 실천을 포괄하는 개념인 만큼, 공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교육에는 학생들의 실천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을 위한 교육이 학교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학교와 함께 기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 가정일 것이다. 이승용(2016: 22)은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내면화한 부모의 경우 자녀의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충격을 받으며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성소수자 청소년들은 세상이 모두 등을 돌려도 반드시 곁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공간인 가족 안에서도 언제나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고민과 긴장을 경험한다. 일반적으로 가족이 “자신과 가장 가깝고 신뢰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가족은 가장 자기 모습 그대로,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마주하고 싶은 대상”이다. 김지혜 외(2016: 33)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가족은 “가장 먼저 자신을 알리고 싶은 대상” 이면서도 동시에 “커밍아웃하기 가장 어려운 대상”이기도 하다고 했다. ‘꿈의 제인’에서 주인공 제인은 가족이 없다. 그녀는 가출청소년들과 함께 생활하며

자신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기를 자청한다. 그들이 함께하는 그 공간만큼은 제인이 꿈꾸는 완벽한 세상이 된다.

성소수자 청소년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가족과 같은 친밀한 대상에게 인정받거나 지지받지 못하게 되면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게 된다. 또한 삶의 희망을 상실할 수도 있다. 강병철(2006: 22)은 이러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은 자살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했다. 더불어 미국의 경우 “상당히 많은 수의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가족으로부터 언어적, 신체적, 성적 학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된 바 있음을 강병철(2006: 38)은 언급했다. 따라서 학교교육과 함께 가정에서의 교육을 위한 부모와 가족 전체의 교육까지 포함한 대안이 요구 된다고 본다.

4.3 법·정책

사회적소수자 집단에 대한 거리감은 사회적소수자 집단에 대한 편견, 보수 혹은 진보적 성향과 같은 정치적 성향에 영향을 받는다(구정화, 2013: 31-53). 김상학(2004: 169-287)은 인구학적 특징 혹은 가족적 배경보다는 정치적 성향이 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영화에서도 ‘불온’이라는 딱지가 대중을 선동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가 됐다. 반대세력들은 ‘불온’을 좌파로 규정하며 증오의 대상으로 생각한다. 증오의 대상이 소수자나 약자일 경우에는 전이가 더욱 쉬어진다.

따라서 소수자를 보호하는 지원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누가 소수자인지를 규정하고, 그들의 삶을 살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소수자를 특정하는 즉시 소수자는 타자화 혹은 대상화 될 수밖에 없고,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낳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세월호와 관련한 장면에서는 ‘애도를 강요하지 말라’는 혐오 세력의 말과 함께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지내라’는 이야기들이 성소수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공공장소에 함부로 나오지 말라’는

언설과 접치는 순간, 세월호 참사 이슈가 어떻게 보면 퀴어 정치학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이슈가 되는 장면이 영화 속에서 만들어진다. 한국은 인권과 관련된 여러 국제조약을 비준한 상태이며³⁾ 그러한 조약들에서는 차별금지의 원칙을 조약의 기본원리로 삼고 있다. 정부는 이미 비준한 각종 국제인권조약의 실현을 위하여 국내에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차별사례집 모음집(2011: 38)에서는 각종 국제조약 및 기구에서는 권고를 통하여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해왔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된 것)은 19가지의 차별금지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차별금지사유로 ‘성정체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트랜스젠더는 이름과 성별의 변경 및 혼인에 관한 권리의 보장으로 이미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존재하는 한 트랜스젠더는 여전히 차별의 대상(이준일, 2009: 148)이 될 수밖에 없다. ‘꿈의 제인’에서 주인공 제인은 ‘태어날 때부터 불행이 시작되고 그 불행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기분’이라고 말한다. 성소수자들은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이들의 성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 따라서 성정체성은 성별이나 장애 또는 성적지향과 구분되는 개념이므로 ‘성정체성’이라는 명시적인 차별금지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3)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다자조약 제1006호, 대한민국 적용일 1990. 07. 10);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다자조약 제1007호, 대한민국 적용일 1990. 07. 10);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EDAW)」(다자조약 제855호, 대한민국 적용일 1985. 01. 26);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RC)」(다자조약 제1072호, 대한민국 적용일 1991. 12. 20);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AT)」(다자조약 제1272호, 대한민국 적용일 1995. 02. 08)

4.4 종교

퀴어 축제나 성소수자들의 집회 때마다 종교인들과의 마찰을 종종 접할 수 있다. 앞서 보았던 영화 <불온한 당신>에서도 그러한 장면들이 보여 진다. 성소수자와 종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김상학(2004: 169-206)은 종교적 성향을 불교, 기독교, 천주교, 기타, 종교 없음으로 두고 각 종교적 성향에 따른 소수자 집단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는 기독교가 자신의 종교라고 답한 응답자가 다른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비해 동성애자에 대해 유난히 거리감이 높음을 보여준다. 영화에서도 공청회와 퀴어문화축제 장면들에서부터는 작품의 ‘또 다른 주인공’ 들인 각종 우익/종교단체가 등장한다. ‘이 땅은 하나님 땅이야! 안돼! 예수그리스도의 땅이야!’ 라고 하며 땅에 드러눕는 장면들이 보여 진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를 믿는 여부 혹은 종교의 종류가 아니라 해당 종교에 대하여 개인이 갖는 몰입도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을 하였는데, 이는 조대훈(2011: 205-237)의 연구에서 더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다. 조대훈(2011: 205-237)의 연구는 단순히 종교 유무나 종교의 종류가 아니라, 종교의 내현적, 외현적 성향을 변인으로 두고 조사하였다.⁴⁾ 내현적 종교 성향이 높을수록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을(서영석 외, 2006: 213-237, 조대훈, 2011: 205-237)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은 성소수자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갖지 못한 채 종교적인 이유에서 동성애는 신에 대한 범죄이며 건강한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병리현상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2012년 설문조사에서 종교학교의 목사 및 종교 수업, 혹은 기독교인 교사의 혐오발언은 반복적으로 보고되었다. 예컨대 종교수업

4) 내현적 종교 성향은 종교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생각하고 종교에 충실한 삶을 사는 태도를 말한다. 이에 반해 외현적 성향은 종교를 수단으로 삼아서 종교에서 물질적 혹은 정신적 가치를 얻기 위해 종교를 가지는 태도를 말한다(조대훈, 2011).

에서 “동성애는 더러운 행위이며 죄악” 이라고 가르치거나, 학생이 “레즈비언이 뭐 었냐. 물었을 때 교사가 “성경에서 금지했으니 안 된다” 고 대답하기도 하며, 한 기독교인 영어교사는 “동성애자들은 죄악이고 신께 버림받은 존재” 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반스쿨팁(2012: 6)은 이처럼 학교 현장에는 기독교 신앙에 기초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비난과 비하, 혐오를 여과 없이 표출하는 교사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성서의 내용을 현대적 시대상황에 맞추어 다르게 해석하기도 한다. 향린교회 부목사 고상균은 ‘동성애는 죄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성서 역시 그 시대의 산물이다. 우리가 지금시대에 그것을 받아들일 때는 일정부분의 해석을 가진 필터링’ 이 필요하다고 했다. 예수의 말씀이라고 알려진 복음서에서는 동성 관계 문제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3세기부터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의 성 습관을 비난했고(이승민·이진화 역, 2016: 36-37) 이것은 기독교가 동성애를 혐오하는 밑거름이 됐다고 J Boscwell(1980: 37-38)은 밝히고 있다. 그러나 당시의 비판은 오늘날의 동성애 혐오와 완전히 다르다. 또한 ‘자연의 이치에 따른’ 성교를 신이 정한 질서로 여기고 숭고한 모범으로 보았으며, ‘자식을 낳는 것 외에 다른 목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것은 모두 자연을 더럽히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현대적 의미의 동성애 혐오와는 달랐고, 단지 그 시대의 기독교에 권력을 안겨준 시대의 특수한 물질적 조건이 낳은 결과였다. 아시리아 법률에 있는 ‘자연의 이치를 거슬러 교접하는 자’ 같은 막연한 문구는 동성애 뿐 만 아니라 생식과 관계없는 모든 성관계를 심각하게 비난했던 것이다.

5. 결론

지금까지 한국사회의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성소수자들을 바라

보는 시각은 어떠한지, 이들에 대한 수용성 제고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교육, 법·정책 그리고 종교적인 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성소수자의 경우, 우리사회를 오랫동안 지배해 왔던 남성 중심주의 문화에서 여성과 함께 ‘성적 약자’로 간주될 수 있다. 우리사회는 아직 ‘이성애주의’가 지배적 규범으로 간주되는 사회이다. 하지만 이성애주의는 남성 중심의 사회에 의해서 규정되는 사회적 규범으로 이것은 남성 지배를 강화하는 근거가 된다(조대훈, 2011:205-237). 동성애 논의 자체가 터부시되는 이와 같은 현상은 한국사회가 극단적이고 노골적인 형태의 동성애 혐오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교육 담론에서 성소수자 문제를 포함하는 것은 그 자체가 사회구성원들의 인식변화에 도전을 주는 일이다.

그러나 교육개혁에 관한 쟁점에서 최근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화두는 인권교육이다. 인권은 사회의 주류에게만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신경희·강미옥(2014: 723-739)은 교사들은 소수자에 대한 인식변화와 수용능력을 함양하도록 변화의 계기와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성별, 장애, 인종 문제등과는 달리 성소수자 이슈는 반차별 인권교육에서도 배제되는 주제이고, 인권교육을 다루는 책자에서도 성소수자라는 단어는 찾기 쉽지 않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일탈적 낙인과 폭력은 학교 울타리 안에서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여전히 이 사회는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를 ‘불편한 존재’로 여긴다. 하지만 이들은 ‘불편한 존재’가 아닌 우리의 ‘친구’이자 ‘이웃’이다.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높이고, 성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과 무지로 인해 인정받지 못한 인권과 그들의 삶을 보장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다문화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과제이다. 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실천적인 교육, 법, 제도, 정책이 요구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강병철(2006). 청소년 성소수자의 생활실태 조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구정화(2013). 초등 교사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연구, <시민교육연구> 45권 3호, 한국사회과교육학회. 31쪽~53쪽.
- 김상학(2004). 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 <사회연구> 1권 7호, 한국사회조사연구소. 169쪽~206쪽.
- 김지윤·봉영식·강충구·이지형(2015). 한국 유권자와 이슈Ⅲ: 성소수자(LGBT) 인식. 2015-04.
- 김지혜 외(2016). Q로 만드는 울타리-청소년 성소수자 인권 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 보고서, <청소년성소수자 위기지원 센터 명동>. 33쪽.
- 모경환(2009). 다문화 교사교육의 현황과 과제, <한국교원교육연구> 26권 4호, 한국교원연구학회. 245쪽~270쪽.
- 박지훈·이진(2013). 성소수자에 대한 미디어의 시선: 텔레비전에 나타난 홍석천과 하리수의 이미지 유형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문화> 28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16쪽~42쪽.
- 서영석·이정림·강재희·차주환(2007). 상담자의 동성애혐오 반응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권 2호, 한국심리학회. 213쪽~237쪽.
- 신경희·강미옥(2014). 성소수자에 대한 예비교사의 인식변화 연구, <교사교육연구> 53권 4호, 부산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723쪽~739쪽.
- 이성원(2016). 성소수자(LGB)의 공동체 의식, 긍정적 정체성과 정신적 웰빙 간의 관계: 소수자 스트레스 대처 전략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용승(2014). 다문화시대의 시민권 아포리아, <한국정치학> 48권 5호, 한국정치학회. 185쪽~206쪽.

- 이용승(2016). 다문화수용성 제고, 왜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현대사회와 다문화> 6권 1호,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1쪽~26쪽.
- 이준일(2009). 섹슈얼리티와 법. 서울: 세창출판사.
- 이호림 외(2015). 한국 트랜스젠더 의료접근성에 대한 시론, <보건사회연구> 35권 4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4쪽~94쪽.
- 양희선(2017). 상담자의 성소수자 상담 경험에 관한 합의적 질적 연구. 한국상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대훈(2006). 침묵의 교육과정을 넘어서: 성적 소수자의 인권과 사회교육, <시민교육연구> 38권 3호,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11쪽~241쪽.
- 조대훈(2011). 동성애에 대한 교수적 태도의 영향 변인 연구 : 다문화교육과 교사교육에 대한 시사점. <시민교육연구> 43권 1호,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5쪽~237쪽.
- 차경수·조대훈(2012). 사회과교육의 도전과 전망. 서울: 동문사
- 한동균(2009). 다문화사회에서 소수자교육의 의미와 접근법: 차이의 지리학적 접근과 관련하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이반스쿨팀(2012). <2012년 서울시 성소수자학생인권실태조사 설문결과 보고서(미간행)>.
-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 연구회(2013). 한국 LGBT 사회적욕구조사.
- 차별사례집 모음팀(2011). 학교내 성적소수자 차별 사례 모음집(미간행).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38쪽.
- James A. Banks. 모경환 외(2016). 다문화교육 입문. 아카데미프레스. 57쪽.
- J. Boswell(1980). Christianity, Social Tolerance and Homosexuality. Chicago.
- Norah Carlin(1995). The roots of gay oppression, International

Socialism 42(Spring, 1989) & Colin Wilson, Socialists and Gay Liberation(Bookmarks, 1995). 이승민·이진화 역. 동성애 혐오의 원인과 해방의 전망. 서울: 책갈피.

<불온한 당신>(Troublers, 2015). 한국. 감독: 이영. 출연: 이목·논·텐.

<꿈의 제인>(Jane, 2016). 한국. 감독: 조현훈. 출연: 이민지(소현)· 구교환(제인).

필자 소개

성 명 : 노승인
소 속 : 부산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 박사과정
전자우편 : nsi3139@naver.com

투고일: 2018. 1. 25 / 심사일: 2018. 2.1. / 심사완료일: 2018. 2. 8

재한 외국인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박혜인
(울산대학교)

《목 차》

1. 서론
2. 문화적응과 문화적응스트레스
3. 연구방법
 - 3.1 연구 설계
 - 3.2 연구 대상
4. 연구결과
 - 4.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4.2 문화사회학적 특성
5. 결론

<Abstract>

Park Hye-in. 2018. 1. 24. **A study on the Cultural Adaptation Stress of Foreigners in Korea**,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1, 53-76. This study aims to indicate factors influencing the cultural adaptation stress of a foreigner. The study was divided into two groups, using a similar living environment(regional, language, time), but could act as a cause of stress for foreigners who were returning to the purpose of entry. The group is a student of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and a study at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Center in the

university. Summary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Nationality, gender, age, duration of residence, and the purpose of entry, etc. have been found to affect stress. However, this result is difficult to generalize because there is a limit of representative. However, it is confirmed that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re related to cultural adaptation stress.(University of Ulsan)

[Key words] cultural adaptation, cultural adaptation stres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1. 서론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1월말 현재 체류외국인은 2,130,542명¹⁾으로 이제 체류외국인은 한국사회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은 모두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로인해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이들을 이방인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한국에 공존하는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렇지만 낯선 환경을 경험하는 체류외국인들이 겪는 어려움들은 그들 삶의 크고 작은 장애물로 작용한다. 국내 체류외국인의 수가 증가하고, 미디어를 통해 그들의 모습을 그려내는 프로그램이 많아지는 것은 한국사회가 세계화가 되고 있는 모습의 한 부분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체류외국인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과 이해는 그 속도를 같이하고 있지 않다.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대다수의 선주민들은 이주민들에게 동화와 한국문화에 대한 일방적인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 더 이상 그들을 잠시 머물다 가는 존재가 아닌 동시대에 한국 사회를 함께 구성하는 구성원으로 바라

1) 출입국관리사무소 통계월보(2017.11.30)

보아야 한다.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체류외국인들이 자신이 성장한 문화를 떠나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의 스트레스가 있음을 한국인들도 이해하고 그들에게 닥친 장애물을 함께 뛰어넘어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초기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는 정신건강의 측면에서 시작되어 1980년대 이후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인 문제들에 대한 분석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대처방안에 관해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 결과 2000년대에 들어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재외 동포, 유학생, 난민,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의 집단별(김혜미·원서진·최선화 2011; 김희경 2010; 나임순 2006 등) 분류나 국가별·지역별 특성(김귀성·황지인 2009; 안준희·조정희 2011 등)에 따른 분류로 세분화되어 각 대상자들만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에 대한 연구가 세밀화 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집단별 비교 연구가 소홀하였다. 이에 문제점을 느끼고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일정부분이 유사한 두 집단의 연구대상자들이 가지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원인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통계적 척도를 사용한 연구가 아니라 원인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둔 현상에 대한 기초자료로서의 연구임을 앞서 밝힌다.

2. 문화적응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적응은 두 집단 간에 이미 가지고 있던 문화 경향에 이차적으로 서로 다른 문화를 지닌 개인과 집단이 직접적인 접촉을 지속하면서 발생하는 현상들이다(Berry 1990). 문화적응은 개인이 다양한 문화적 상황과 조화를 이루어가는 능동적 과정이나 결과로 정의될 수 있으며, 특히 이주민에게 문화적응이란 문화적으로 상이한 배경을 지닌 이주 집단이 새로운 문화와 지속적으로 접촉함에 따라 생겨난 현상들을 지칭하는 포괄적 개념이다(박종철 외 1996, 최혜지 2009에서 재인용). 그러한 까닭에 이민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병

리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적응의 과정에서 사회적인 기술을 획득하는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새로운 문화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접촉하며 통합적인 문화적응을 해낼 수 있을 때 성공적인 문화적응이 될 것이다.

문화 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사회적 지지, 의사소통 능력, 인구학적인 변인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같은 처지에 놓인 동포나 조력자가 되어 줄 현지인이 매우 중요하다는 연구도 있다. 이것은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신체적인 건강과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언어는 해당 언어권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 문화에 스며들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단순한 여행이나 어학연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이주를 한 경우라면 한국어 숙달도가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클 것이다. 마지막으로 Jayasuriya, S & Fiedling(1992)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업의 수준이 높을수록, 수입이 많을수록 문화적응을 잘 하고 스트레스도 적다고 하였다(이은정 2009:18 재인용).

이렇듯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자신에게 익숙한 문화와 새 문화와의 접촉과정에서 겪는 갈등이나 어려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은 문화적응을 겪는 개인들이 심리적 고통과 부적응을 경험하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Berry와 Annis(1974)는 문화적응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고통과 역기능을 문화적응 스트레스(Acculturative stress)로 정의하였다(최태일 2001 재인용).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이주자에게 발생하는 정신적 건강 문제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제안된 개념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문화적응과정 중 피할 수 없는 부분으로 부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삶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를 피하기도 한다.

선행연구들에서 출신국가와 한국어 수준, 거주기간, 연령 등의 인구학적 특성들은 문화적응 유형과 관련 된다(임은미 외 2010). 태어나면서부터 자라온 자신의 문화가 아닌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하는 타문화에 대한 적응을 인구학적인 시각에서 탐구할 필요가 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란 새로운 문화로 적응하고자 할 때 개인 또는 집단이 경험하는 현상(Berry 1997)으로 다른 문화권으로 이주한 개인들이 다양한 변화로 인하여 겪는 문화적응은 개인들의 심리적 고통과 부적응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한유경 2009). 특히, 사회적 지지를 적게 받는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 사람이 오랫동안 속해 있던 문화를 벗어나 새로운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적응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새로운 언어, 환경, 생활 방식, 음식에 적응하는 동안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 많은 체류외국인들은 내부적·외부적 또는 만성적·급성적인 스트레스를 겪게 되는데 환경적 변화, 지각된 차별, 정체성 혼란, 역할의 변화, 사회경제적 지위, 그리고 문화적 갈등은 체류외국인들이 겪는 스트레스의 한 예이다(Furnham & Shickh 1993: Shin 1993: 최태일 2001 재인용)

이흥직(2012)에 따르면 이주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인구사회학적 특성, 한국어 능력, 문화적응 스트레스 그리고 사회적지지 요인의 네 요인으로 분류 정리하였다. 첫째, 개인의 성별, 연령, 국적, 결혼상태, 학력, 건강상태, 직장, 근무시간, 경제수준, 소득, 종교, 법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언어능력, 의사소통 수준 등이 영향을 미친다. 셋째,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에 있어서는 자국 문화 유지 정도, 현지문화 수용정도, 문화 정체성, 문화 이질감, 외상경험, 차별감, 향수병, 지각된 적대감, 두려움, 문화충격, 죄책감, 사회적 고립, 열등감, 불신수준 등이 영향을 미친다. 넷째, 사회적 신뢰, 사회활동, 사회적지지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최태일(2001)은 사회적 동물로서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욕구들은 타인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 충족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 내에서 사회적 지지는 인간의 적응 및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사회적 지지를 통한 의지가 스트레스의 완충 효과가 있는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 설계

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유사한 두 집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요인을 확인하고 스트레스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2장에서 언급하였듯이 문화 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사회적 지지, 의사소통 능력, 인구학적인 변인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사회적 지지를 받으면서 의사소통 능력이 유사한 대상자들이 인구학적인 변인들이 다를 경우에 어떤 부분이 문화적응의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모집단에게 질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한 뒤 분석하였다. 질문에 앞서 연구윤리를 설명하고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질문방법은 반구조화 방법으로 미리 준비한 질문지를 통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의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질문지는 한국어로 제공되었다. 연구자들에게는 익명성이 보장됨을 설명하였다.

문화적응과정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Sandhu & Asrababi(1994)가 개발한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 질문지를 한국어로 번안·수정한 최명민 외(2015: 431-432)의 내용을 재수정하여 제시하였다. 본 척도는 총 30문항으로 Likert식 5점 평점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낮을수

록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적은 것을 의미하고 있다. 자료에 대한 상관분석은 하지 않았으며, 총점 및 각 영역별 점수를 5점으로 표준화한 점수를 사용하였다. 연구에 사용한 질문지는 본고의 마지막에 첨부하였다.

3.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문화스트레스에 관해 울산시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23인을 대상으로 2017년 6월 3일부터 6월 15일까지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장소는 연구대상자에게 익숙한 장소인 교실에서 한국어교사의 도움을 받으며 약 1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자는 같은 도시 내에서 거주하고 같은 기간 내에 살고 있는 제한 외국인이다.

이 연구대상은 두 집단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법무부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학습자 11인과 지역 대학 내 한국어교육기관의 어학연수생 12인이었다. 언어적인 면에서 이들의 한국어 구사능력은 4급을 수료하고 5급 수업을 수강하는 학습자들로 한국어가 능숙한 편이며 한국문화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²⁾. 그리고 사회적지지 부분에서는 두 집단 모두 조력자가 있다. A집단의 경우 장기간 한국에 거주하면서 가족 및 지인들이 있고, B집단의 경우 대부분 학생 신분 이기에 같은 나라 친구들과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거나 매일 친구들과의 교류가 있으며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가족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특성3>

*A집단(사회통합프로그램 5급 학습자)

2) 한국어 구사능력을 평가하는 TOPIK(한국어능력시험)의 주관체인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의 안내에 따르면 등급별 평가수준은 아래와 같다.

순번	국적	성별	나이	거주기간(년) ⁴⁾	동반가족	현재동거인	입국목적
A1	베트남	여	34	4.5	혼자		
A2	중국	여	44	3	부부	남편	결혼이민자
A3	중국	여	33	9	엄마	남편, 시어머니	결혼이민자
A4	캄보디아	여	34	10		가족	결혼이민자
A5	러시아	여	35	15	혼자	가족	결혼이민자
A6	베트남	남	32	12	부인	부인	결혼이민자
A7	중국	남	41	20			재외동포
A8	중국	남	38	12	엄마	없음	재외동포
A9	캄보디아	남	32	5	아내, 딸		취업
A10	캄보디아	남	31	7	혼자		취업
A11	베트남	남	36	6	혼자	혼자	취업

등급	평가기준
4급	공공시설 이용과 사회적 관계 유지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뉴스, 신문 기사' 중 평이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인 사회적·추상적 소재를 비교적 정확하고 유창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자주 사용되는 관용적 표현과 대표적인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문화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5급	전문 분야에서의 연구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친숙하지 않은 소재에 관해서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공식적, 비공식적 맥락과 구어적, 문어적 맥락에 따라 언어를 적절히 구분해 사용할 수 있다.

3) 참여자들이 응답하지 않은 곳은 그대로 해당 칸을 비워두었다.

4) A집단은 거주기간이 '연(年)' 단위지만 B 집단은 '개월(月)' 단위로 그 기준이 다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한국에 온 기간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 집단의 단위를 달리 기재하였다.

***B집단(대학교 한국어학당 5급 학습자)**

순번	국적	성별	나이	거주기간 (개월)	함께 온 가족	현재 동거인	입국 목적
B1	일본	여	21	4	없음	일본친구	유학 · 어학 연수
B2	일본	여	21	4	없음	일본친구	
B3	베트남	여	21	15	있음	사촌언니	
B4	베트남	여	21	15	있음	언니	
B5	중국	여	20	10	없음	중국친구	
B6	중국	여	22	4	없음	중국친구	
B7	중국	남	19	9	없음	중국친구	
B8	중국	남	21	8	없음	중국친구	
B9	중국	여	23	9	없음	중국친구	
B10	중국	남	19	10	있음	가족	
B11	중국	남	19	9	없음	중국친구	
B12	러시아	여	22	24	있음	가족	

앞서 설명하였듯이 연구 참여자들의 사회적 지지를 받고 비슷한 수준의 한국어를 구사하고 있지만 거주 목적이 확연하게 다르다. 먼저 A집단인 사회통합프로그램 학습자들(A1~A11)의 평균 연령은 35.5세이고 거주기간은 약 9.4년이며 입국 목적은 취업, 결혼이민, 재외동포로 다양한 분포를 보인다. 그에 반해 B집단인 대학 내 한국어교육기관 학습자들(B1~B12)의 평균 연령은 20.8세이고 이들은 거주기간은 약10개월이며 입국 목적은 유학·어학연수로 나타난다. 이들 대상자들은 연령, 거주기간, 목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받는 문화적 스트레스의 내용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4. 결과

4.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표 2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일반적 특성	A집단		B집단	
	국적	중국	4명	중국
	베트남	1명	베트남	2명
	캄보디아	3명	일본	2명
	러시아	1명	러시아	1명
	합계	11명	합계	12명
성별	남자	5명	남자	4명
	여자	6명	여자	8명
나이	남자 평균	35세	남자 평균	19.5세
	여자 평균	36세	여자 평균	21.4세
	합계 평균	35.5세	합계 평균	20.8세
한국 거주기간	남자	8.4년	남자	9개월
	여자	8.3년	여자	10.7개월
	무응답	20년	무응답	-
	합계	9.4년	합계	10개월
(한국에 함께 거주하는) 가족유무	있다	5명	있다	4명
	없다	2명	없다	8명
	무응답	4명	무응답	-
현재 동거인	가족	5명	가족	4명
	친구	-	친구	8명
	없다	2명	없다	-
	무응답	4명	무응답	-
입국목적	취업	3명	유학·어학연수	12명
	재외동포	2명		
	결혼이민	5명		
	기타	5명 (기재안함)		

먼저 본 연구에서 재한외국인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국적, 성별, 나이, 한국 거주기간, (한국에 함께 거주하는) 가족유무, 현재 동거인, 입국목적 등을 알아보았다.

두 집단은 연령, 거주기간, 가족유무, 동거인, 입국목적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A집단의 경우 B집단에 비해 평균 약15세 정도 나이가 많다. 연령의 폭이 큰 만큼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이 다르다. 이는 입국목적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A집단은 취업, 재외동포, 결혼 이민자 등으로 한국 거주 목적의 생계와 관련이 있다. 그에 비해 B집단은 모두 유학·어학연수를 목적으로 한국에서 거주한다. 즉, A집단은 자신 및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나, B집단은 가족의 지지를 받으며 공부를 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스트레스의 유형이 다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 거주기간을 보면 A집단은 약 9.4년이지만 B집단은 약 10개월로 10배가량 차이가 난다. 그 이유는 A, B집단의 구성원의 특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두 집단은 모두 한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한 집단이지만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만난 A집단의 경우 한국에서 이미 장기거주를 했고 영주권 취득 등의 목적으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⁵⁾. 하지만 B집단의 경우 자국에서 한국어를 어느 정도 습득 한 뒤에 한국에서 학업을 목적으로 입국하였기 때문에 한국어 능력에 비해 거주기간이 짧은 편이고 아직 한국 생활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만큼 관심과 호기심이 높다. 따라서 이 두 집단 구성원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두 집단의 응답자들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지지자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한국 내 거주하는 가족 유무나 현재 동거인에 대해 확인하였다. A집단은 결혼이민자들을 제외하고는 혼자 거주하거나 응답하지 않았다. B집단의 경우 대다수의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며 같은 국가의 친구들과 방을

5)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도입취지에 따르면 재한외국인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KIIP로 표준화하고 이를 이수한 이민자에게는 국적취득 필기시험을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기회가 부여된다. (법무부 KIIP, <http://www.socinet.go.kr>, 검색일2018.01.14)

쓰고 있었고, 일부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B집단의 경우 학교생활이 끝나고 돌아가면 모국어를 사용하고 고향의 음식을 나누며 비교적 편안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었다. 때문에 외로움이 덜하고 외국 생활에서의 문제점들을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4.2 문화적응 스트레스

A집단 응답자의 경우 <표3>의 문항에서는 ‘①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⑤매우 그렇다’ 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응답자들은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모임 및 직장과 같은 사회적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에 긴장감을 보이거나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장기간 타국에 거주했기 때문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었다.

<표 3 A집단의 스트레스 요인6>

번호	문항	점수				
		①	②	③	④	⑤
1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나를 괴롭힌다.	3	1	4	2	1
4	나는 한국말로 의사소통하려면 긴장된다.	3	2	2	3	1
14	한국 사람들이 내 문화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할 때 마음이 상한다.	1	2	5	2	1
15	한국인이 불편하게 느껴져서 나는 주로 혼자 시간을 보낸다.	3	2	3	2	1
20	한국에서는 나와 같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차별 받는다.	1	5	1	2	1
23	나는 외모 때문에 부당하게 취급받는다.	2	4	3	1	1
25	나는 내 조국 사람들의 문제를 생각할 때	1	2	3	3	1

6) ‘점수’ 칸의 숫자는 응답자 수를 나타낸다.

	슬픔을 느낀다.					
30	나는 친척들을 남겨두고 떠난 것이 슬프다	2	3	1	3	1

인터뷰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A4와 A5는 결혼과 국제이주가 동시에 일어나서 모국의 문화와 이주국의 문화에 대한 적응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있으며, 결혼생활에서의 불만이 모국의 그리움으로 이어진다고 답했다. 재외동포 A7의 경우 큰 불편함은 없으나 간혹 자신이 한국인도 중국인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라며 모호한 정체성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경우가 이따금씩 있다고 했다. 취업을 목적으로 온 캄보디아인 A10과 베트남인 A11은 한국이 선진국이라 살기에는 대부분은 괜찮지만 가족과 고국에 돈을 보내기 때문에 높은 한국의 물가를 감당하기가 조금 힘들다고 응답했다.

<표 4 A집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특이사항>

번호	문항	점수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한국 음식에 적응하는 것이 불편하다.	6 (54%)	5 (45%)	1 (9%)	0	0
10	한국에서는 나에게 많은 기회들이 주어지지 않는다.	1 (9%)	6 (54%)	3 (27%)	1 (9%)	1 (9%)
19	나는 한국의 새로운 문화의 가치에 적응하느라 불편하다.	1 (9%)	7 (63%)	2 (18%)	1 (9%)	0
21	한국 사람들은 나에게 대한 미움을 행동으로 표현한다.	1 (9%)	7 (63%)	2 (18%)	1 (9%)	0
28	한국 사람들은 나에게 대한 미움을 말로 표현한다.	1 (9%)	6 (54%)	2 (18%)	1 (9%)	0

29	나는 내가 다른 생활방식으로 한국에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6 (54%)	0	1 (9%)	2 (18%)	1 (9%)
----	--	------------	---	-----------	------------	-----------

각 집단에서 50%이상의 응답률을 보인 항목은 확연히 차이가 있다. A집단의 경우 과반 수 이상의 응답률을 보인 항목은 <표4>와 같다. 응답자들은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한국 사회 내에서 동화되었기 때문에 큰 차별이나 불편함이 없이 잘 지내며 환경적인 차이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A2, A3의 경우 결혼이민자이기는 연애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결혼 전에 충분히 한국에 대한 사전지식을 가지고 왔으며, 자주 모국을 방문하기도 하고 가족들이 서로의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불편한 것이 없다고 답했다. 그 외에도 인터뷰에서 이들은 한국 사회에 적응하면서부터 한국을 제 2의 고향이라 여기며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충실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처음에는 날씨, 환경, 음식, 문화, 근무방식 등이 불편했으나 장기간 거주하면서 오히려 한국생활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자녀들에게도 분명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표 5 B집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특이사항>

번호	문항	점수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한국말로 의사소통하려면 긴장된다.	0	2 (16%)	2 (16%)	8 (64%)	0
5	나는 친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사는 것이 슬프다.	2 (16%)	7 (56%)	3 (24%)	0	1 (8%)
12	한국으로 이주해 온 후	2	7	3	1	0

	나는 많은 압박들을 느낀다.	(16%)	(56%)	(24%)	(8%)	
18	나는 나의 조국과 그 곳 사람들이 그렇다.	0	1 (8%)	7 (56%)	2 (16%)	2 (16%)
19	나는 한국의 새로운 문화의 가치에 적응하느라 불편하다.	2 (16%)	8 (64%)	2 (16%)	0	0
22	나는 나의 문화적 배경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의 나의 지위가 낮다고 느낀다.	3 (24%)	7 (56%)	1 (8%)	0	1 (8%)

B집단의 경우 특정 문항에서 50%이상을 차지한 경우는 아래와 같다. 이들 역시 한국어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에서 긴장을 경험했는데 그 이유는 교실환경에서 배운 정제된 한국어가 아닌 방언이나 신조어 등이 섞인 한국어에 대한 불편함과 발화에 대한 실수에 따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 중 대부분은 현재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나 교환학생으로 학점 취득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었다. 또한 아직 어린 나이에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것에 대해 외로움도 있으나 독립된 생활로 인한 즐거움을 표현하였다.

A집단에 속한 캄보디아인이 외모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들은 한국에서의 생활에서 외국인이기 때문에 특별한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점은 크게 눈에 띄지 않았다. 하지만 두 집단 모두 높은 언어수준을 가지고 있지만 언어로 인한 긴장감을 보이는 것은 의외였다. 문화적응의 문제에서 이들은 익숙해지거나(A집단), 새로워서 즐겁다고(B집단) 생각하기 때문에 큰 불편함을 보이지 않았다.

이들은 인터뷰에서도 같은 동양 문화권이고, 치안이 좋은 편이며,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방송매체를 통해 많이 접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거나 힘들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A집단의 경우

한국에서 장기거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국에서 기회가 된다면 계속 살고 싶다고 응답했고, B집단의 경우 한국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크며 한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한 뒤에 취직하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한국에서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A집단의 경우 혼자 해결하거나, 주변의 한국인 지인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경우가 많았지만 B집단의 경우 같은 나라 친구의 도움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예: 큰 사고 등)에만 학교 관계자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고 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 A집단은 한국에서 장기거주 하며 사회적 활동이나 모임이 구성되어 있지만 B집단은 같은 나라 또래집단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 내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상황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

이들이 한국에서 가장 불편하다고 느낀 점은 공통적으로 한국인의 시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색한 한국어 발음으로 이야기할 때나 모국어로 이야기할 때 한국인들이 쳐다보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냈다. 연구대상자들이 대부분 동양권으로 한국인과 비슷한 외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으면 한국인들이 신경 쓰지 않다가도 입을 여는 순간부터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다고 했다.

그리고 응답자들이 만난 한국인들은 한국어를 잘 하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해 특별한 차별을 하지는 않지만 한국어를 못 하면 차별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했다. 취업비자로 온 외국인이 취업과정에서 겪는 차별이나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수당에 대해 이야기하며 본인들은 문제가 없으나 한국어가 부족한 지인들이 겪는 부당함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또한 한국인들은 외국문화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많은 실수를 하는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중국인들의 경우 중국발 미세먼지와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문제에 예민해져있었다. 한국인들이 국내 언론을 통해 알게 된 정보만으로

중국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그건 정말 중국에 대해 모르기 때문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노를 느낀다고 이야기했다. ‘중국발 미세먼지는 중국 전역의 문제가 아니라 베이징의 문제이다.’라며 현실적 상황에 대해 무지한 한국인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짚어주어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때 천천히 이야기해주고 말을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한국인들과 친해지고 싶은데 한국인들은 외국인을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며 좀 더 한국인들과 교류를 원하는 마음을 드러내었다. 더불어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편한 점도 있지만 버스의 급제동 같은 문제에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고 했다.

5. 결론

본 연구는 재한외국인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동안 많은 문화적응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것에 반해 비교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 연구를 통해 체류외국인의 집단별로 가지는 스트레스의 원인에 대해 파악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 정리하자면 그동안 문화적응의 주요 요인으로 꼽은 사회적지지, 언어 구사 능력, 인구학적인 특성 가운데 인구학적인 특성을 중점적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파악하였다. 먼저 사회적 지지와 언어 구사 능력이 유사한 두 집단에게 오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확인해보았더니 나이, 한국거주기간, (한국에 함께 거주하는)가족유무, 현재 동거인, 입국목적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높은 수준의 한국어 구사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언어적 상황에서는 긴장감을 가지는 것으로 보였다. 입국목적에 따라 스트레스의 상황이 달랐는데 취업비자로 생계 목적의 거주인 경우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나 외로움이 원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유학·어학연수비자의 외국인인 경우 학업에 대한 성과와 관련된 압박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다수의 참여자들이 크게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려움을 호소하지는 않고 있었다. 그것은 높은 한국어 구사 능력과 정서적 조력자들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유사거주환경(지역, 언어, 시간)에서도 입국목적에 따라 다른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두 집단을 나누어 연구를 하였으나 연구 대상자가 적고 대표성에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아울러 이들의 심리, 정서적인 측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광범위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그렇지만 본 연구를 통해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음을 인지하고 앞으로 재한외국인 연구에 다양한 접근을 시도해보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귀성·황지인(2009). 재한 중국 유학생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간의 관계 연구, <學生生活研究> 29호, 원광대학교 학생상담센터. 1쪽~25쪽.
- 김재은(2009).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적응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혜미·원서진·최선화(2011).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차별경험과

- 심리적 적응: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2권 1호, 한국사회복지연구회. 117쪽~149쪽.
- 김희경(2010). 다문화가정 여성결혼이민자의 스트레스 유형분석, <여성연구> 78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19쪽~158쪽.
- 나임순(2006).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비영리연구> 5권 2호, 한국비영리학회. 159쪽~197쪽.
- 박미숙 · 이미정(2014).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갈등원인에 관한 연구, <교육문화연구> 20권 3호,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149쪽~174쪽.
- 박종철 · 김영운 · 이우영(1996).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97쪽~108쪽.
- 안준희 · 조정희(2011).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영향요인 분석: 충청남도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32권,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137쪽~176쪽.
- 이은정(2009). 한국어 학습자의 숙달도에 따른 문화 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홍직(2012).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웰니스학회지> 7권 3호, 한국웰니스학회. 129쪽~143쪽.
- 임은미 · 정성진 · 이수진(2010).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유형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상담학연구> 11권 3호, 한국상담학회. 957쪽~973쪽.
- 최명민 · 이기영 · 김정진 · 최현미(2015). 다문화사회복지론. 학지사.
- 최태일(2001). 주한 외국인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혜지(2009).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유형과 관련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1권 1호, 한국사회복지학회. 163

쪽~194쪽.

- 한유경(2009). 재한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몽골 유학생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Berry, J.W.(1990). Psychology of acculturation. In J.Berman (Ed.), *Cross-cultural Perspectives: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pp.201-234).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Berry, J. W.& Sam, D.L (1997).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In *J. W. Berry, M.H Segal & C.Kagitcibasi(Eds.)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um 3: Social Behavior and Applications*(2nd ed, 291-326). Needham Heights, MA: Allyn and Bacon.
- Sandhu, D.S.& Asrababi, B.R (1994). Development of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Prelimin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 75*, pp.435-448.

[부록]

설 문 지

안녕하세요?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질문지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연구에 이용됩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응답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같은 체류외국인들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이므로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이 설문지는 익명으로 처리되고 결과는 학문적 목적에만 사용될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들의 한국생활에 성공을 기원하며, 본 연구에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문항들은 여러분이 성장했던 곳과는 다른 문화적 환경인 한국

에서 살게 되면서 겪고 있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각 문항과 관련된 여러분의 본인이 느끼는 ‘문화스트레스’를 점수로 표현해주세요.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순번	문항	점수				
1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나를 괴롭힌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한국 음식에 적응하는 것이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사회적 상황에서 다르게 취급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한국말로 의사소통하려면 긴장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친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사는 것이 슬프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내 문화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나의 개인적 안전에 두려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데 주저함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8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가족과 친구들을 남겨두고 떠나온데 죄책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0	한국에서는 나에게 많은 기회들이 주어지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나의 조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열등하게 취급받는데 분노를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2	한국으로 이주해 온 후 나는 많은 압박들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한국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4	한국 사람들이 내 문화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할 때 마음이 상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한국인이 불편하게 느껴져서 나는 주로 혼자 시간을 보낸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나의 문화적 배경 때문에 열등하게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7	한국 사람들은 내 문화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나의 조국과 그 곳 사람들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한국의 새로운 문화의 가치에 적응하느라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20	한국에서는 나와 같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차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21	한국 사람들은 나에게 대한 미움을 행동으로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나의 문화적 배경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의 나의 지위가 낮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외모 때문에 부당하게 취급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한국에서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내 조국 사람들의 문제를 생각할 때 슬픔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는 내가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나와 사귀려 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는 한국에 온 후, 두려움으로 인해 낮은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8	한국 사람들은 나에게 대한 미움을 말로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29	나는 내가 다른 생활방식으로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30	나는 친척들을 남겨두고 떠난 것이 슬프다	①	②	③	④	⑤

<표 3 문화적응과정 스트레스 인터뷰 질문지>

순번	내용
1	한국 사람들과의 모임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모임인지 자세히 이야기해 주세요. 예)언어교환모임,가족모임,종교모임,직장동료모임...
2	한국 사람들과 모임이 없다면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모임에 참석할 계획이 있나요?
3	같은 나라 사람들과의 모임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모임인지 자세히 이야기해 주세요. 예)다문화센터친목모임,가족모임,직장동료모임,봉사활동모임...
4	한국에서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도움을 받나요? 예)아플 때 같은 나라 친구들의 도움을 받는다.
5	한국에 오기 전과 온 뒤의 느낌이 어떤가요?(한국문화, 사람, 생활, 환경....) 5-1. 한국에 오기 전 한국에 대한 생각: 5-2. 한국에 온 뒤 한국에 대한 생각:
6	앞으로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있다면 살고 싶나요? 살고 싶다면 또는 살고 싶지 않다면 그 이유를 함께 적어주세요.
7	한국에서 가장 살기 힘들다고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8	그런 기분이 들 때 어떻게 극복하나요?
9	한국에 살면서 가장 불편한 점 두 가지를 적어주세요.
10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필자 소개

성 명 : 박혜인
 소 속 : 울산대학교 국제교류처
 전자우편 : hieni27@hanmail.net

투고일: 2018. 1. 24 / 심사일: 2018. 1. 31 / 심사완료일: 2018. 2. 8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이 경 주

(부산외국어대학교)¹⁾

《 목 차 》

1. 서론
2. 선행연구 및 독일의 사회통합프로그램
 - 2.1 선행연구 검토
 - 2.2 독일의 사회통합프로그램
3. 한국의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 현황
 - 3.1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도입 취지
 - 3.2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추진 경과
 - 3.3 과정 및 이수 시간
 - 3.4 참가 신청 및 절차
4.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과정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4.1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과정의 문제점
 - 4.2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과정 개선 방안
5. 결론

<Abstract>

Lee Gyeong Joo. 2018. 1. 15.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Korean Education in 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1, 77-100.

1) 본 논문은 ‘한국어교육 정책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열린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7년 제 48차 추계 학술대회의 발표 내용을 최근의 정책변동을 반영하여, 보다 정밀하게 수정 보완한 것이다.

Various Korean education for foreigners are conducted by language school under college, multi-culture family support center, '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 institution under ministry of justice, welfare center or foreigners' support group. Among them Ministry of Justice's '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 has received attention. Government's multi-cultural policies that have been criticized due to redundant support from similar polices of each department. Korean education is now in trend of combined as KIIP(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 KIIP is composed of "Korean language and Korean culture curriculum" and "Understanding Korean society curriculum". When one completes both curriculum, it provides incentive when one obtains nationality, residence permit or changing visa. In the past, one could participate in social integration program only through advance evaluation, but recently, as it is connected to Korean program and TOPIK program from multi-culture family support center, the proportion of not only the married immigrant but also the immigrated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y, foreign students and foreign workers is increasing. However, despite the fact that the program has been operating for 9 years, there are no significant changes in the policy. For KIIP to play its role as representative Korean education by the government, there are many problems to be improved such as curriculum, time and evaluation system. This paper suggested expansion of education time, review on retaking system, review on evaluation system and connected programs after completion to make social integration program Korean language education to actualize its essential goal based on the current problem of 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ey words] 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 Korean education

1. 서론

법무부 2017년 11월 통계에 의하면 2017년 11월 31일 현재 체류 외국인인 2,130,542명이다. 2007년 1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10년 만에 200만 명을 돌파하여 전체 인구의 4%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²⁾ 특히 3개월 이상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인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중도입국자녀 등 다양한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한국어는 한국에서의 원활한 생활을 위한 수단으로서 한국 생활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민자의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어 습득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정부의 다문화관련 정책의 많은 부분 또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이해증진’에 초점을 맞춘 이민자의 한국어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³⁾

현재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한국어교육은 그 대상에 따라 대학교의 언어교육원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복지관이나 외국인 지원단체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

2) 체류외국인 연도별 현황 (법무부 통계월보 2017년 11월호)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총계	910,149	1,066,273	1,158,866	1,168,477	1,261,415	1,395,077	1,445,103	1,576,034	1,797,618	1,899,519	2,049,441	2,130,542

3)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시행주체인 법무부는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나 국립국어원의 교재에서도 ‘여성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등의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도 이민자라 용어를 통일해 사용하겠다.

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법무부가 실시하고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 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기타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개발된 사회통합교육이다.⁴⁾ 200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되어 2010년부터 정식 출발한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모든 이민자 및 국민을 대상으로 2018년 1월25일 전국 296기관이 운영기관으로 등록되어 현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⁵⁾ 교육과정은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 과 ‘한국사회이해 과정’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과정을 이수완료하면 이민자의 국적 및 영주권 취득, 비자변경 등 체류 자격 변경 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⁶⁾

한편 각 부처 간 중복지원 등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정부의 다문화정책 중 한국어교육은 최근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흡수·일원화되는 추세다. 각 부처에서 외국인을 위한 사업들이 중복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2014.1.15. 제8차 국무총리실 산하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다문화가족정책 개선 방안 중 한국어교육과 관련하여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어디에서 교육을 받더라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기관과의 한

4) 사회통합정보망 및 법무부 공고 제 2017 - 295호 참조.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공고를 보면 KIIP 사업개요 중 사업 목적에 정의가 드러나 있다.

5) 인터넷 사회통합정보망 참조. 운영 사정에 따라 향후 추가 지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다.

6) 이수 혜택 적용 ▶귀화 신청 시(귀화필기시험 면제/귀화면접심사 면제/국적심사 대기시간 단축)▶영주자격 신청 시(한국어능력 입증 면제-장기체류 외국인의 일반 영주자격 신청/국민 배우자의 영주자격 신청/국민의 미성년 외국인자녀 영주자격 신청/방문취업자의 영주자격 신청)▶체류자격 신청 시 (장기체류 외국인의 거주 자격 신청/비전문취업 선원취업 방문취업자의 거주 자격 신청 또는 특정 활동 자격 신청)▶사증 신청 시(한식조리연수, 제주도 내 음식점 통역판매 사무원, 국내외 전문학사이상 학위 소지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 등)

국어과정 연계, 한국어능력시험(TOPIK)과의 연계 등 연계과정제도를 통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⁷⁾ 이는 표면적으로는 지자체 중심의 한국어교육으로 일원화하는 것이지만, 지자체에서 공부한 이민자들이 국적이나 체류 혜택을 위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계제도를 반드시 거친 후 이수완료 할 수 있고, 이수완료를 해야 국적 및 체류 상 혜택이 주어지므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궁극적으로는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육이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일원화, 표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사회통합프로그램은 2009년 출발 당시에 비해 이민자를 위한 대표적인 한국어교육으로서 그 위상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으나 참여자 및 대상 확대, 일부 의무제로 운영 등 일련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상 큰 틀은 변화가 없다.⁸⁾ 한 예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능력 향상이라는 한국어교육 목표에서 본다면 여전히 각 단계별 교육 시간은 김종섭 외(2010, 2011)의 국제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 200시간보다 훨씬 짧은 단계별 10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표적인 언어교육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을 알 수 있다.⁹⁾ 현재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일부

7) 연계과정제도란 대학 법인 단체 등 다양한 기관의 한국어교육을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과정으로 인정함으로써 타 기관에서 교육 받은 자도 중간평가에 바로 응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8) 2016년 7월1일부터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외국국적동포가 영주자격을 신청할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기본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9) 최근 3년간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급2단계 참여자들의 구성을 살펴보면 최근 유학생의 참여가 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결혼이민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혼 이민자	일반	
2013 (D 기관 6명)	4	2	(중도입국자녀2)
2014 (D대 14명)	11	3	(중도입국자녀2 / 한국계러시아인1)

를 제외하고는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 사항이다. 일각에서 여성결혼 이민자들에게 전체적으로 교육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누구나 꼭 참여해야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여타의 다른 방법을 본인이 선택하면 된다.¹⁰⁾ 시간에 급급해 ‘시간과 교육의 주객이 전도’ 된 듯한 현재의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의 현실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선행연구 및 우리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모델이 되었던 독일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살펴보고 국내 사회통합프로그램 현황을 간단히 정리한다. 또한 현장에서 느꼈던 문제점을 바탕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이민자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진정한 한국어교육 과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시간 확대, 재이수제도의 검토, 평가체제 검토, 이수 완료 이후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및 독일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 장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현재 우리나라 사회통합프로그램 제도의 모델로 삼은 독일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특징을 살펴본다.

2015 (D 기관 16명)	13	3	(한국계러시아인3)
2015 (B대 9명)	7	2	(중도입국자녀1/한국계러시아인과 결혼한 러시아인1)
2016(Y건강가정지원센터 19명)	14	5	(유학생3/중도입국자녀1/회화강사1)

10) 국민의 배우자인 결혼이민자(F-6)는 국적취득을 원할 때 일반 외국인과 달리 필기시험이 면제되며,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도 귀화면접시험(인터뷰)를 통과하면 국적취득이 가능하다.

2.1 선행연구 검토

선행논문을 보면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2009년 이전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당위성을 강조하거나 초창기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실시된 이후에 나온 논문에서는 법무부가 공시한 100시간의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 단계별 시간은 언어교육으로서 부족함 등을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관련 논문이 많지 않고, 이러한 목소리가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성순(2008)은 다문화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발표문을 통해 결혼이민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도입은 각 부처 간 중복지원을 피하고 부처별 지원 업무를 달리하여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또한 독일과 프랑스의 예와 같이 한국에서 건강한 국민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전 교육의 역할을 할 것이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면접심사의 용이함은 한국사회로의 건강한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당위성 및 기대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을 주로 언급했다.

하지만 김일란 외(2008)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핵심은 언어교육인데 학습자의 교육과정 참여의 의무화 문제만이 부각되어 실질적인 언어 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들이 논의 되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고 했다. 또한 법무부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한국어 수준을 초급2로 보고 있으나 목표언어에 대한 지식이 없는 학습자가 200시간 동안 초급2 수준을 완성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¹¹⁾ 특히 교육 참여를 의무화할 경우 일어날 수 있

11) 초창기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초급2까지 이수하면 바로 5단계로 진입할 수 있었으나 2013년부터 일반이민자와 똑같이 중급2단계까지 마친 후 중간평가에 합격해야 5단계에 진입할 수 있다.

는 문제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로 인해 한국어교육 시간이 단축되고 있다고 지적,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 운영상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다.¹²⁾

한편,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시점에서 논문을 발표한 박혜숙(2012, 2014)은 독일의 통합과정과의 비교를 바탕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과정이 실질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민자 집단에 따른 프로그램의 세분화 및 프로그램 내용의 전문화, 관련 기관 및 프로그램과의 연계, 교육시간의 확대 및 교육목표의 재설정 그리고 표준화된 교육과정, 평가체제의 확립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든 이민자를 대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통합과정과는 달리 학습자 요구에 대한 고려 없이 한 가지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여성결혼이민자에 편중되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의 단계별 100시간은 목표 도달이 불가능할 정도로 부족하기 때문에, 김중섭 외(2010)의 한국어교육 표준모형에서 제시한 200시간으로 설정하되, 독일의 통합과정에서와 같이 빠른 학습 진보를 보이는 학습자를 위한 단기 속성 과정이나 중간시험을 통한 일반제도 등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동기 및 성취도에 따라 교육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혜숙(2012)에 의하면 독일의 ‘통합과정’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세분화와 전문화, 교육시간 확대, 표준교육과정과 표준평가체제의 확립 등을 주장했다

12) 김일란 외(2008) 참조. 이 논문에서는 법무부가 가정과 사회에서 약자인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대한 교육의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학습 참여에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현실적인 문제는 ▶본인은 참여를 원하지만 남편을 포함한 가족들이 한국어교육 참여를 불허할 수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서 제한한 유인책이 참여한 집단에겐만 주기 때문에 참여를 못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인권적이다. ▶가사노동에 생계를 위한 경제적 기여를 위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학습 자체가 과중한 짐이다. ▶교육환경에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등이다.

지만 이 또한 현장에서의 재이수제도의 문제점, 평가 상의 문제점 등 실제적이고도 세세한 부분까지는 개선안으로 반영하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는다.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재인 ‘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책임 집필진이기도 한 이미혜(2015)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과정의 발전과정에 대해 ▶1단계-한국어교육과정 부재(2007-개발연구/2009운영) ▶2단계-교재개발, 평가체계 개발로 교육과정 보완 운영(2010-한국어교재 개발/2011-발전방안 연구, 평가체계 개편) ▶3단계-한국어교육과정 개편, 교재 개편(2012-한국어 교육과정 개편 연구/2013-2014 한국어교재 개편/교사 교육과 재정비) 등 3단계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의 범주는 Graves(1996)의 12가지 범주 구분, 국제통용 한국어 교육과정 표준 모형의 범주 선정, 기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교육을 통하여 검증된 내용들(기존 교재 포함 내용), 요구조사 및 전문가 간담회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루어졌다고 배경을 밝히고 있다.¹³⁾ 그리고 교육 참여자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어휘영역에 대해서는 한국어능력시험의 어휘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¹⁴⁾ 이는 다른 학습자들에 비해 한국어를 사용하는 일상생활에의

13) 교육과정의 내용 범주는 ①주제 ②기능/과제 ③언어지식-어휘 문법 발음 텍스트 ④언어기술-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⑤문화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내용은 이미혜(2015) 논문 참조.

14)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2의 15과 한국의 선거에서 다루고 있는 어휘를 살펴보면 ▶선거관련 어휘로 대통령선거/국회의원 선거/후보자-출마하다, 당선되다/유권자-뽑다-투표하다-선출하다/선거일-투표 장소, 투표용지, 투표함, 개표하다 ▶지도자의 자질 관련 어휘로 인품이 훌륭하다/지도력이 있다/정직하다/책임감이 있다/공정하다/판단력이 있다 ▶투표절차 관련 어휘로 투표소를 방문하다/신분증을 제시하다/신분증을 확인하다/투표용지를 받다/기표소에 들어가다/기표하다/투표함에 넣다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교사 지침서에 보면 한 단원의 수업은 보통 5차시로 구성, 어휘(40분)/문법(80분)/말하기 듣기(55분)/읽기와 쓰기(55분)/한국 사회와 문화 마무리(20분)으로 제시되어 있다.

노출 정도가 높은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로 인해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들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육과정의 현 위치와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했지만 이론적인 부분만 언급, 현장에서의 세세한 부분까지 실제적인 개선점들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계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논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한국어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논문은 그리 많지 않으며 특히 100시간의 각 단계별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과정의 교육시간은 학문 목적의 학습자보다는 대다수가 결혼이민자 등 일반 이민자 참여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실제적인 언어교육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각 단계별 100시간을 고수하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육과정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표준화된 한국어교육으로서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교육시간을 포함한 교육과정의 개선이 시급함을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2.2 독일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우리나라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모델이 되었던 독일의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겠다.¹⁵⁾ 독일은 2004년에 이민법을 개정하면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제도화했다.¹⁶⁾

15) 차용호 (2015).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주관 부처인 법무부 이민통합과 차용호 사무관은 국립국어원과 법무부가 공동주관한 2015년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원 대상 연수회에서 ‘한국의 이민정책의 이해’ 특강을 통해, 우리나라는 관주도 즉 국가가 관여하는 유럽식 사회통합정책을 모델로 정책이 만들어졌음을 밝힌바 있다. 특히 초기에 덴마크와 독일의 사회통합정책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했다.

16) 김일탄 외(2008) 참조.

박혜숙(2012)은 독일어 과정은 기초과정부터 단계별 학습을 거쳐 자립적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B1 수준의 독일어 능력을 갖추는 것, 즉 이민자가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독일 사회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언어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일반 통합과정의 경우 기초 300시간과 상급과정 300시간 도합 600시간으로 구성되었으며, 특수 통합과정의 경우에는 대부분 90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빠른 학습 성취도를 보이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중 이수과정은 400시간으로 구성되는 등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했다.

<표 1 독일 일반 통합과정의 개요18)>

일반 통합과정							
	독일어 과정						오리엔테이션 과정
	기초과정			상급과정			
시수	100 시간	100 시간	100 시간	100 시간	100 시간	100 시간	45시간
목표			A217)			B1	오리엔테이션과정 시험
교육 내용	일상생활에 필요한 언어능력(쇼핑, 주거, 건강과 질병, 일과 직업, 직업교육, 자녀양육과 교육, 여가 활동, 사회활동, 미디어, 이메일 쓰기, 공문서 작성하기, 전화하기, 취업 지원 등)						독일의 법질서, 역사, 문화, 권리와 의무, 사회생활의 유형, 종교 관용 평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
교육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학교 ▪다양한 민간 교육기관 						
교재	연방 이민난민청에서 해당과정을 위해 허가한 주교재 및 부교재						

17) 김종섭 외(2010)에서는 유럽공통참조기준으로 언어학습자들의 의사소통 활동과 언어능력 수준을 기술하기 위한 세분화된 척도 체계로 총 6

또한 일반 통합과정 외에 보다 효율적인 학습을 위한 학습자 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특수 통합과정으로는 알파벳과정, 청년과정, 부모과정, 여성과정, 장기체류자 과정, 집중이수과정 등이 있다고 했다. 이는 동일한 이주배경 또는 비슷한 연령대 및 언어 수준의 이민자들끼리 독일어를 배움으로서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고 독일 사회에서 자립적인 삶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집단에 따라 다양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일반 통합과정과 동일하게 각 도시의 시민학교와 다양한 지역단체 및 언어교육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특수 통합과정 프로그램에 대한 이민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특수 통합과정의 비중도 점차 커지고 있다고 했다.¹⁹⁾

<표 2 독일 특수 통합과정 프로그램의 독일어 과정²¹⁾>

프로그램	대상	교육시간 20)	특징
알파벳 과정	문식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이민자	900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교습이 가능하도록 작은 그룹으로 구성 ▪ 300시간 연장 가능
여성교육 과정	종교적 또는 문화적 이유로 일반 통합과정에 참가가 어려운 여성	900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교사에 의해 교육 ▪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 또는 학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체험
부모교육 과정	자녀의 양육, 교육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부모	900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어 외 유치원 및 학교 교육과정에 관해 배우고, 각 교육기관의 교사와의 교류 주선

단계를 포함하고 있는데 기초적 언어사용을 목표로 하는 A1-A2단계와 자립적 언어사용을 목표로 하는 B1 - B2단계, 그리고 숙달된 언어사용이 가능한 C1-C2단계로 나뉜다. A2단계는 우리나라의 2급에 해당한다.

18) 박혜숙(2012),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과정 개선 방안, 인문학연구 44, p272 표 참조

19) 박혜숙(2012)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일의 교육체계 전반 및 기회에 관한 지식 제공
청년교육과정	취업 준비가 필요한 청년층	900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일어 외 학교 및 직업교육, 직업과 취업 등에 관한 교육 제공 ▪작은 학습 집단 및 경우에 따라 2인의 교사 ▪직업교육기관 및 기업에서의 실습과정 포함. ▪상담 및 교통비 지급
장기체류자과정	독일어를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한 장기체류자	900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언어기능 위주의 학습
인텐시브과정	학습 진보가 빠른 학습자	400시간	

이상에서 간단히 독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우리나라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모델이 되었던 독일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한국처럼 일률적으로 한국어교육과정이 400시간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참여대상자에 따라 400에서 900시간까지 유동적이며, 참여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이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한국의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 현황

결혼이민자 및 일반 외국인들의 국적 취득이나 체류자격 변경 시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민자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적응하고자 자립하는데 필

20) 박혜숙(2014)에서는 각각 오리엔테이션과정을 포함하여, 교육시간이 알파벳과정 (945), 여성과정(960), 부모과정(945), 청년과정(945), 장기체류자과정(945), 인텐시브과정(430) 진행됨을 밝히고 있다.

21) 박혜숙(2012) 표 참조.

수적인 기본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마련한 사회통합교육이다.

3.1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도입 취지

법무부가 밝히고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의 도입 취지는 다음과 같다.²²⁾

첫째, 이민자가 우리말과 우리 문화를 빨리 익히도록 함에 따라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지역사회에 쉽게 융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 재한외국인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KIIP로 표준화하고 이를 이수한 이민자에게는 국적취득 필기시험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 셋째, 이민자에게 꼭 필요하고 적절한 지원정책 개발과 세부지원 항목 발굴을 위하여 이민자의 사회적응지수를 측정, 이민자 지원 정책 등에 반영한다.

이를 살펴보면 한국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다문화 정책의 성격 중, 외국인이 한국어와 한국사회 문화를 빨리 익힘으로서 한국사회에의 융합을 강조하는 동화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둘째 조항의 재한외국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표준화하는 방침은 현재 이민자 대상 한국어 프로그램이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모아지는 최근의 언어정책 흐름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2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추진 경과

사회통합프로그램은 2008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무부 훈령 제 62호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그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었다. 참여대상

22) 사회통합정보망 참조.

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합법 체류외국인 및 귀화자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7년에 자료 수집, 연구에 착수한 이래 2009년 4월 시범적으로 전국 20개 운영기관에 1,331명으로 출발, 2017년 7월 현재 전국 309개 운영기관에 26,010명이 참여해 도입 8년 만에 운영기관은 약 15배, 참여자는 약 2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 연도별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및 운영기관 23)>

(단위 :년/명)

구 분	합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7
참여자 (누계)	143,418	1,331 (1,331)	4,429 (5,760)	6,519 (12,279)	12,444 (24,723)	14,014 (38,737)	22,361 (61,098)	25,795 (86,893)	30,515 (117,408)	26,010 (143,418)
운영 기관	-	20	77	150	271	278	304	308	300	309

결혼이민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2012년까지는 한국어 초급단계인 1, 2단계만 거치면 바로 5단계로 진입하도록 했으나 2013년부터는 결혼이민자들도 반드시 중급과정인 3, 4단계를 거치고 중간평가에 합격해야만 5단계에 진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2016년부터는 한국어능력을 보다 강화하여, 5단계 과정 중 필수로 참여해야 하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와의 국적체류 상담 시 한국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면 국적취득 상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혜택을 무효화하고, 귀화면접시험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

3.3 과정 및 이수 시간

23)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참조

사회통합프로그램은 크게 한국어와 한국문화과정과 한국사회이해과정으로 진행된다. 한국어와 한국문화과정은 총 415시간, 한국사회이해과정은 영주용과 국적용으로 구분하여 50, 70시간으로 각각 진행된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4 현행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별 이수 시간²⁴⁾>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과정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
	기초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이수 시간	15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50시간 (영주용) 70시간 (국적용)
사전 평가	구술3점 미만 (지필점 수무관)	3점~20점	21점~40점	41점~60점	61점~80점	81점~100점

3.4 참가 신청 및 절차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신청대상은 모든 합법적 체류이민자 및 귀화자로, 희망에 따라 자율 신청한다. 신청방법은 사회통합정보망을 통한 온라인으로만 신청한다. 교육등록 및 참여는 사회통합정보망 마이페이지에서 체류지 인근 운영기관 중 교육받기를 원하는 법무부 지정 운영기관에 온라인으로 참여자 등록 신청하고 신청된 교육기관의 운영일정에 따라 교육에 참여한다.

3.5 기본 소양 평가

24) 사회통합정보망 참조.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평가는 사전평가 및 각 단계별 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로 나누어진다.

이중 중간평가는 KIIP-KLT라고 하는데 한국어과정의 최종 단계를 마친 4단계 과정 종료자들이 평가에 참여할 수 있으며 중간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단계에 진입할 수 없다.²⁵⁾ 불합격자는 한국어과정 4단계를 재이수해야만 다음 단계인 5단계로 이동이 가능하다.

종합평가는 한국어민귀화적격시험(KINAT)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한국사회이해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²⁶⁾ 불합격자는 5단계를 재이수 한 후 다시 종합평가에 응시해야 하고, 또 불합격할 경우 5단계를 다시 재재이수 해야만 최종 이수완료로 처리된다. 2016년부터는 5단계 이수 후 필수과정인 출입국관리사무소와의 상담 시 의사소통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혜택을 무효화하고, 국적취득 신청 시 면접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4.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과정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앞 장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현황을 살펴보았고, 본 장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겠다.

4.1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과정의 문제점

앞서 선행논문을 바탕으로 실제로 현장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과정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5) KIIP-KLT는 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Korean Language Test 의 약자이다.

26) KINAT는 Korea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Aptitude Test이다.

첫째, 한국어교육의 근본 목적인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각 단계별 100시간은 부족하다. 또한 이러한 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학습자들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기 힘들다. 한국어교육의 목표는 학습자들이 한국어교육을 통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언어의 4대 기능을 고루 활용하여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그러나 현행 100시간으로 현재의 교재를 진행해 나가기에는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활동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둘째, 평가 상의 문제이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단계평가 탈락자나 한국어 과정의 최종시험인 중간평가에서 60점미만의 점수를 획득해 탈락할 경우, 한 번 더 재이수를 하기만 하면 다음 단계로 자동으로 진입할 수 있다.

셋째, 사전평가를 제외한 다른 평가에서는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이 통합되어 60점 이상만 넘으면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 평가의 점수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사전평가에서는 필기시험과 상관없이 구술시험이 3점 미만일 경우 기초인 0단계로 배정하게 되어 있으나 각 단계평가 및 중간평가, 종합평가에서는 이에 대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힘들지만 필기점수의 충족으로 인해 다음 단계 진입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넷째, 교육장소의 문제점이다. 현재 교육 장소는 각 단계마다 유동적인데, 자신의 거주지 인근에 단계가 개설되지 않으면, 자신에게 맞는 단계를 찾아 멀리 이동해야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실제로 2016년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개설된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참여자 12명의 경우, 학교가 위치한 관내 지역 거주자는 3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최소한 1시간 이상 걸리는 타 지역 거주자였다.

다섯째, 최근 점차 늘고 있는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및 국적취득 후라도 부모교육이라든지 자녀 양육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특별과정으로서의 교육과정이 없다. 오직 표준화된 일반과정만 일 년 3학기제로 운영되고 있다.

4.2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과정 개선 방안

이상에서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언어교육으로서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이 본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4.2.1 교육 시간 확대가 필요

현행 100시간의 단계별 교육 시간을 국제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에서 제시한 150-200시간으로 확대하거나, 자립적 의사소통능력 함양을 목표로 100시간에 활동을 통한 내재화까지 가능한 활동 중심 교재구성으로의 교재 개정이 바람직하다. 현행 교재로는 각 단계별 100시간은 부족하다. 교재의 각 단계는 20과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방대한 어휘와 활동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한 급수를 100시간으로 한 단계를 마치는 것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중급 단계에서 전문적이고도 방대한 내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휘 영역의 경우, 이미혜(2015)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어휘영역이 한국어능력시험의 어휘보다 다소 높은 것은 다른 학습자들에 비해 한국어를 사용하는 일상생활에의 노출 정도가 높은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등급 체계와 타 교육과정의 등급 체계를 살펴보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한국어 과정(4단계 중급2)은 일반 한국어능력시험의 3급보다는 쉽고 4급 수준에는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이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문 목적의 학습자들이 아닌 일반 학습자들이 대다수인 현실을 반영한다면 오히려 각 대학에서 학문 목적의 한국어과정으로 각 급별을 200시간으로 진행하거나 국제통용 한국어교육 표준모형에서 200시간을 교육시간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이보다 훨씬 짧은 100시간에 오히려 어휘 영역은 훨씬 더 어렵고 단시간에 단계를 마쳐야 하는 기현상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

다. 이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침서에 제시된 표준 차시로는, 참여자들이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를 정확하게 익히고 활동으로 내재화하여 발화하기까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단계별 100시간의 틀을 표준모형에 맞춰 150시간-200시간으로 늘리는 등 단계별 시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²⁷⁾

다음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 등급 체계와 표준교육과정과 한국어능력시험의 등급체계를 비교한 것이다.

<표 5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등급 체계와 타 교육과정의 등급 체계 비교²⁸⁾>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초급		중급		고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국제통용한국어 교육표준모형 (200시간)	초급		중급		고급		최상급
	1	2	3	4	5	6	7
사회통합프로 그램한국어 (100시간)	초급		중급				
	1	2	3	4			

위에서 볼 때에도 국제통용 한국어교육 표준모형이 대체로 각 급별에서 20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사회통합프로그램은 100시간을 각 급별 교육시간으로 정하고 있어, 자립적 의사소통능력 함양이라는 한국어교육 본연의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소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2.2 재이수제도의 검토

27) 2016년 Y 기관 중급2단계 참여자들은 수업 마지막의 만족도조사에서 대부분 150시간, 그리고 200시간의 수업시간 확대를 원한 바 있다.

28) 김종섭 외(2011), 이미혜(2015) 참조.

현재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과정은 각 단계평가 및 중간평가에서 60점 이상만 취득하면 다음 단계로 진급하지만 각 평가에서 불합격할 경우 한 번 더 이수만 하면 다음 단계로 진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수될 수 있는 재이수제도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재이수 후 다음 단계로의 진입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재이수 후 평가시험을 다시 치고, 평가시험 합격 후 완료하는 것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4.2.3 평가체제 개선

현행 구술과 필기를 통합하여 60점 이상만 되면 승급여부를 결정 짓는데, 구술과 필기에 각각 커트라인을 도입해 적용함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언어교육의 목표인 한국어로 말하기가 원활하지 않아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한데도 필기시험의 충족으로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 현상 등은 개선되어야 한다.

4.2.4 연간계획 수립 및 교육장소 확대

참여자들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간계획 수립 및 교육장소가 많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예산에 따라 각 분기마다 어디에서 개설이 될지 아주 유동적이기 때문에, 단계가 개설될 때마다 자신의 단계에 맞춰 찾아서 이동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크다. 따라서 제도가 보다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연간 계획을 통해 개설 단계와 장소가 미리 고지되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4.2.5 이수완료 이후 연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필요

현재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적 취득 및 체류 자격 변경 시 혜택을 원하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일반과정의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고 참여자들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거나 이수 완료 후 연계한 프로그램이 없다. 앞서 살펴봤던, 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

로그그램을 운영 중인 독일의 사례를 보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점차 늘고 있는 중도입국자녀라든지, 국적취득 후라도 보다 고급 수준의 한국어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자녀 양육과 관련 특별교육과정 등 수요조사를 토대로 한 수요자 중심의 특별과정 운영이 필요하다.

5. 결론

지금까지 현장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과정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살펴보았다.

2009년 처음 시범으로 도입된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과정은 반드시 사전평가를 통해 참여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또는 지자체(대부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의 연계과정, 본국에서 사전교육프로그램을 마치고 입국한 결혼이민자 등은 사전평가 없이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연계되어 보다 폭 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았다. 이렇듯 정부 부처별 중복·유사 사업의 일원화 추진으로 표면적으로는 지자체중심이지만 현재 한국어교육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로 집중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과정은 초기에 도입된 정해진 틀을 그대로 가지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민자의 자립적인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에는 개선이 필요하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 바로 유학생 등 학문목적 학습자들보다는 결혼이민자 등 일반 학습자들이 많은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표준 한국어교육 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200시간보다 짧은 100시간의 교육시간에, 한국어 숙달도를 한국어능력시험 3급보다는 약간 높은 4급 초반에 맞추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어휘영역의 경우는 한국어능력시험의 4급보다 어려운 상위 어휘를 다루고 있는 모순된 상황들로 인해 참여자들이 교육 시 어

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정해진 4단계(각 100시간) 시간만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100시간의 과정만으로 이민자들의 자립 가능한 언어능력을 키우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참여자의 수준을 고려한 효율적인 교육과정의 시간 조정이 필요하며, 활동이 가능한 시수 확대 등을 통해 언어교육의 궁극 목표인 의사소통능력을 향상 시키고, 이를 통해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과정이, 한국 정부의 언어교육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향후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정 시 이민자의 배경과 성격에 맞는 다양하고도 세분화된 프로그램들이 구성되어, 이수완료 이후에도 보다 실제적으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평생교육으로서 지속적인 한국어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한 특별과정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과정이 언어교육의 궁극 목표인 의사소통 능력 향상, 자립적 언어능력 향상 등 언어교육 본연의 역할을 잘 담당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3).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사용 지침서, 한국이민재단.
- 국립국어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5).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2, 한국이민재단.
- 김일란·김남형(2008). 사회통합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여성 결혼이민자 대상의 한국어교육 방향,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8권, 국제한국어교육학회. 603쪽~623쪽.
- 김중섭 외(2010).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국립국어원.

- 김중섭 외(2011).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2, 국립국어원.
- 박혜숙(2012).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과정 개선 방안-독일의 통합과정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44권,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63쪽~310쪽.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5).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안내 책자.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7). 통계월보 11월호.
- 이미혜(2015).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과정의 현 위치와 발전 방향,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5차 국제학술대회 발표문.
- 이성순(2008). 이민자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도입에 관한 고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다문화사회통합프로그램 구축방안을 위한 공청회’ 발제문.
- 이성순(2010),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현황과 과제-사회통합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1권 4호,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65쪽~187쪽.
- 차용호(2015).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원 대상 연수회 ‘이민정책의 이해’ 강의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www.immigration.go.kr)
- 인터넷 사이트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

필자 소개

성 명 : 이경주

소 속 : 부산외국어대학교 다문화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전자우편 : lkjyh@hanmail.net

투고일: 2018. 1. 15 / 심사일: 2018. 2. 2 / 심사완료일: 2018. 2. 9
--

다문화사회 구성원의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민요 부르기의 실험적 연구
-타액의 코티졸 변화 예비연구-

이도경
(인제대학교)

《 목 차 》

1. 들어가기
2. 배경연구
 - 2.1 미국민요
 - 2.2 문화적응 스트레스
 - 2.3 타액 코티졸과 면역글로블린 A
3. 연구방법
 - 3.1 실험참여자
 - 3.2 진행과정
 - 3.3 타액 수집 및 분석
4. 결과 및 논의
 - 4.1 코티졸
 - 4.2 면역글로블린 A
5. 결론

<Abstract>

Yi Do Kyong. 2018. 1. 25. **Effects of Singing Folk Songs to Reduce Stress for Multicultural Population,**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1, 101-126. Effects of Singing Folk Songs in Reducing Stress by Foreigner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ether singing folk songs is

associated with changes in levels of immunoglobulin A(IgA) and cortisol in foreigners. The number of migrant workers and foreign students has increased rapidly since the end of the 20th century. Korea is naturally turning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The foreigners' life in Korea must be very stressful because of many reasons including culture and language differences. In a naturalistic before-after design, samples of saliva were collected from five foreigners. The results showed that cortisol concentrations decreased significantly an average of 32%, and IgA concentrations increased an average of 21% after singing, respectively.(Inje University)

[Key words] cortisol, stress, multicultural, folk songs

1. 들어가기

최근 우리나라는 남녀 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국제결혼,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외국에서의 노동력 유입, 세계화 시대에 따른 전문 인력 및 유학생의 증가로 인해 체류 외국인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다문화사회로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다. 정부를 비롯한 대중매체의 주도하에 다문화사회가 비교적 우호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타문화에 대한 배타적 태도와 편견, 회피는 다문화가족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하며 낯선 곳에서의 새로운 생활은 언어의 문제와 함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야기한다(박명순, 박재규 2011). 다문화인구가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는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책임과 과제로 부상하였다(장미혜 2008).

이에 정부에서도 급증하는 다문화 배경 구성원의 통합과 적응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한국어 교육과 취업지원, 의

료지원, 생활지원과 같은 교육 및 기본적 욕구의 지원과 함께 심리·정서와 정신·건강 영역을 위한 상담과 치료 서비스가 개입되고 있다(다누리 2014, 조현경 2011). 이 외에도 이주여성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과 다문화가족 자녀의 인성발달 및 적응을 위해 음악의 사용을 기초한 정책들이 제안되고 있다(손희원 2012, 이진진 2013).

음악은 인간 사회에서 문화이고, 언어이며, 의사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음악은 누구에게나 유익할 수 있으며,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또는 인지적 결핍을 가진 사람들에게 치료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긴장을 완화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기분을 개선하게 할 수 있다. 가장 오래된 음악 중 하나는 민요다. 민요(folk songs)는 사람(folk)들의 노래(song)를 의미한다. 미국 민요는 한국 민요와 다른 특징이 있으며, 그 특징들 중에 한 가지는 멜로디와 가사가 간결하고 반복적인 장조(Major Key) 노래들이다. 민요학자들은 민요는 ‘힐링’ 이고 ‘카타르시스’ 라고 했다. 이러한 음악은 건강에 도움이 되고, 음악을 사용하여 정신적, 육체적 질병을 치유하게 된다(Bruhn 2000).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정서적 결핍과 문화 적응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게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민요 함께 부르기가 국내의 다문화 구성원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얼마나 영향을 주나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외국인들의 타액을 수집하여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 농도의 수치와 면역글로블린A를 분석한다. 그 결과를 근거로 국내 거주 이주민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완화 시켜주어 문화적응에 도움을 기여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2. 배경연구

2.1 미국민요

민요는 가사를 통해 감정, 생각, 사상 및 문화적 가치를 표현함으로써 인간의 삶속에서 큰 역할을 한다(Shelemay 1990). 세계 여러 민족들은 그 민족만의 고유한 민속음악과 민요를 소유하고 있으며, 어느 민족이고 민속 음악과 민요가 없는 민족은 없다. 여러 민요 중에서 본 논문에서는 영어 민요에 대해 언급할 것이고, 영어 민요를 본 연구의 실험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영어 민요 가사는 일반적으로 운율을 사용하며, 영어 민요속의 운율은 간단하면서 반복성이 강하고, 가장 큰 장점이 멜로디가 단순하고 명쾌해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흥을 쉽게 돋게 할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의 영어 민요는 유럽에서 시작되었다(Pratt 1921). 노래 부르기와 같은 음악 활동은 종교 활동뿐만 아니라, 노동과 여가 생활 속에서 모두 대중이 만들어 낸 것들이다. 예전의 경제 생산을 위한 작업은 대부분 수작업과 공동 노동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육체노동은 종종 노동자들로 하여금 노동 속에 노래를 함께 하면서 노동을 하여 힘든 순간을 이겨 나갔다(Philips 1939). 이러한 노동요는 반복적인 작업의 지루함을 줄여 주었고 동기화 된 리듬을 유지하고 심기, 제초, 수확, 타작, 및 제작과 같은 많은 노동 활동의 속도를 유지 시켜주었다(Korcynski 2003). 생활의 여가 시간에는 악기를 부르거나 연주하는 것이 일반적인 엔터테인먼트 형식이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음악이 발달된 공동체에서의 삶의 표현으로 간주되었다. 그 Murphy(1992)는 민요는 사람들 그 자체라고 했다.

영어 민요의 가사는 수년에 걸쳐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원래 영국에서는 민요의 가사는 이야기, 지역 사회의 전설,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 표현했다. 영어 민요 가사는 시대와 함께 진화하여 오늘날 민속 음악으로 알려진 것, 전통 민속 음악과 대중 음악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영어 민요는 원래 19세기에 일반인들

의 이야기를 문자를 사용할 수 없었던 문맹자 농민들의 삶에 대해 문자대신에 노래로 불렀다. 민요는 평범한 사람들과 평범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뿌리 내린 것이 일반적인 형태 이다(Grout 1980).

민속 음악의 필수적인 역할은 현재 살고 사람들의 삶을 형성하며, 그들의 가치관, 인격, 그리고 그 사회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러한 음악 문화는 결국 인간의 문화유산으로 정착되어왔다. 시거(Seeger 1991)는 어린 학생들이 민요를 통해서 자신의 유산을 알고 경험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민속 음악을 사용하여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는 것의 가치는 이미 인식되어 다문화 교육의 필수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다(McGuire 2000).

다문화주의 음악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다른 민족의 음악, 문화, 사회, 정치, 종교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준다. 학생들은 종족 음악을 통하여 그 민족의 가치, 의식, 관습, 신화, 사회 기준 등을 이해하게 되고, 그들의 음악, 미술, 문학, 역사, 등을 통하여 그 민족의 삶을 보다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권오경 2010). 학생들은 다문화주의 음악교육을 통해 다른 문화들을 수하고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2.2 문화적응 스트레스

2.2.1 다문화

다문화사회의 정의는 한 사회 안에 이질적인 여러 문화 집단들이 공존하는 사회를 의미하며, 외국인 거주자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5% 이상을 의미한다. 현재 한국은 다문화 사회로 전환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내의 다문화 구조는 국제결혼 및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증가로 근거되고 있다. 국제결혼 이주 여성 증가, 이주 노동자와 유학생 수는 20세기 말부터 급속히 증가했다. 국내의 이주 노동자 수는 85만 명에 이르며, 최근 다문화 가정은 한국인과 외국인 간 결혼 건수가 많아서 23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

했다. 하지만, 그들의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은 쉽지만은 않다(교육부 2016, 국가법령정보센터 2016).

이들은 문화적응 과정을 통과하게 되고 그 적응 과정에서 상당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란 문화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긴장, 즉 스트레스의 원을 의미하기도 하며, 스트레스원의 결과로 인한 스트레스를 의미하기도 한다(우희정 2015, 최진영 2015). 스트레스원로서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란 이주 국가와의 접촉에서 발생하는 긴장을 말한다(배수진 2000). 이주자들은 새로운 주류 사회의 가치, 관습, 사회적 기준과 고유문화의 전통적인 가치, 관습, 사회적 기준의 영향에서 갈등을 느끼게 되며,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높은 우울과 불안을 겪게 된다(김연진 2015, 박은민 2015).

새로운 환경에의 문화적응 과정에서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높이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원으로는 차별, 언어적 어려움, 사회적 재정적 자원의 부족, 소외감 등이 있다(Wilton & Constantine 2003, Rahim 2008). Jibeem(2011)도 언어 문제, 차별, 문화적 비양립성 가족이나 문화적 자부심과 같은 보호가지들로부터의 분리 등을 문화적응 스트레스원으로 보고 있다.

2.2.2 노래 부르기의 효과

Uhling & Baker(2011/2013)는 노래 부르기를 통해 개인적인 욕구나 두려움을 표현하도록 하여 명확하지 않던 혼란스러운 정서들을 정돈시킬 수 있으며, Austine(2008/2012)은 노래 부르기가 정서적 스트레스와 긴장을 완화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집단원 사이에서 표현하고, 수용 받는 노래 부르기의 경험은 자신감과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켜 준다(Uhling & Baker, 2011/2013). 따라서 노래 부르기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이주민들에게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게 하여 정서를 정화시키며, 자신의 내면문제에 대해서도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Olivea, 1993/2005).

한국에서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에도 불구하고 노래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을 줄이고 면역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노래는 호흡기 시스템의 상당한 운동을 포함합니다. 그 활동이 면역 글로블린 A(IgA)와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을 포함한 면역계 단백질 생산을 자극 할 수 있다고 이론화되었다(Beck 2000, Green & Green 1987, 1988).

2.3 타액의 코티졸과 면역글로블린A

2.3.1 코티졸

코티졸은 Hydrocortisone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으로 인체를 정상적으로 유지시키는 '화학 공장'으로 알려진 부신의 바깥부분 즉, 부신피질에서 분비된다. 뇌의 뇌하수체에서 부신의 기능을 조절하는데 부신에서 생산되는 호르몬의 양에 따라서 뇌하수체에서 부신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적절하게 분비하여 부신으로 하여금 코티졸을 비롯한 각종 호르몬들이 알맞게 생산되도록 조절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반응해서 분비되기 때문에 흔히 이 코티졸을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한다. 생화학적 스트레스 반응은 혈청(serum), 타액(saliva), 소변(urine)등에서 측정할 수 있는 호르몬이나 신경전달 물질의 양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 중 코티졸이 인간의 스트레스 정도를 정확히 나타내는 신뢰성 있는 생체지표로 사용된다(Sreebny 2000).

코티졸 수치는 스트레스의 정도에 따라 증가된다고 보고되었다. 치과 치료(Benjamins, Asscheman, & Schuurs 1992), 낙하산 점프(Cook, Read, Walker, Harris, & Ria-Fahmy 1992)등 다양한 생활속에서의 경험이라도 스트레스의 정도에 따라 코티졸 수치는 증가한다. 신생아의 경우 격리로 인한 스트레스가 증가함에 따라 코티졸 수치가 상승했으며 (Larson, Gunnar, & Hertsgaard 1991), 이란에서 444일 동안 인질로 잡혀 있었던 경우에도 코티졸 수치가 상승한

이라고 보고되었다(Rahe 1990).

2.3.2 면역글로블린

면역글로블린은 면역체계에 관여하면서 체내에 이물질의 침입 시 방어 역할을 한다. 이러한 침입자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반응을 면역이라 하며, 우리 몸에는 이 면역을 담당하는 기관과 조직 및 세포들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이 시스템을 면역계라 한다. 항체는 이 일정한 부위의 구조에 따라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은 면역글로블린의 약자에 알파벳 문자를 붙인 IgG, IgM, IgA, IgD, IgE이다. 항체는 종류에 따라 활성이 다르다. IgA는 호흡기관(타액)이나 위장관의 점막에서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면역글로블린 A를 다루고 있다(박희영 2009).

노래 부르는 것은 면역글루블린A를 증가 시킨다고 밝혀졌다(Dillon, Minchoff, & Baker, 1985, Green & Green 1987, Green, Green & Santoro, 1988, Stone, Miletic, Miletic, & Sattely-Miller 1996). 이완이 긍정적인 정서적 각성, 긍정적 무드, 즐거운 사회 활동 등은 노래 부르기과 같은 효과를 만든다고 했다. 또한 적어도 한 가지 연구에서 IgA의 수치가 상대적으로 장기적이고 누적 된 것으로 나타났다. Green et al.(1988)은 단지 21일 동안 이완(relaxation)을 연습 한 환자 그룹이 단지 1일 동안 시행 한 대조군의 환자보다 IgA 농도가 더 높았다고 보고 했다. 또한 장기 실행 그룹은 3 주간의 연습 기간 동안 이전에 얻은 샘플보다 22일째 실행 전과 후에 찍은 타액 샘플에서 IgA 수치가 유의하게 높았다.

Martin and Dobbin(1988)은 일일 번거로운 척도에서 점수가 S-IgA의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수감자의 고강도 억제와 건강과 학업에 관한 스트레스(Jemmot 외 1983, Kiecolt-Glaser, Garner, Speicher, Penn, Holliday, & Glaser 1984), 투옥(Borysenko, McClelland, Meyer, & Benson 1982)은 모

두 IgA 수치의 감소와 관련이 있었다고 보고 했다.

이전 연구에서 IgA 수치의 감소가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McClelland et al.(1980)은 S-IgA 농도가 낮은 환자가 더 자주 질병을 앓는 것으로 보고 했다. 많은 연구자들이 스트레스를 상부 호흡기 감염과 관련시켰다. 타액 실험의 큰 장점은 비 침습성이기 때문에 채취 및 수집이 편리하기 때문에 실험 설정에 많은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민요 함께 부르기가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서 면역 글로블린A(IgA)와 코티졸 수치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에 그 의의를 두고 있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민요를 부른 후 IgA 수치가 증가할 것인가?
2. 최종 세션 후에 IgA 수치가 더 증가할 것인가?
3. 민요를 부른 후 코티졸 수치가 감소할 것인가?
4. 남녀 피험자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인가?

3.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민요를 부르는 것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효과가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타액을 분석하여 면역 강화와 스트레스 감소에 관련이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이었다. 주요 독립 변수는 민요 함께 부르기였고, 종속 변수는 타액에서의 S-IgA 및 코티졸 농도 측정값이었다. 네 번의 민요함께 부르기 중 S-IgA와 코티졸 수치의 사전 노래 부르기와 사후 노래 부르기를 사용하여 자연스런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예비연구(Pilot Study)인 만큼 대조군인 통제집단은 연구 설계에 사용되지 않았다.

3.1 실험 참여자

B대학교에서 한국어 프로그램에 참가한 10명의 유학생이 자원하였으나 실제로 본 실험에 참여한 숫자는 5명이었으며 그들의 정보는 표1과 같다. 실험 참여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기본 설문지와 동의서를 실험전에 배부하여 작성을 요청하였다. 면역 체계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는(Kirschbaum & Hellhammer 1994, Kreuts et al. 2004, Miilctic et al. 1996) 다음 특성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하는 참가자는 최종 샘플을 선택하기 전에 제외되었다. 주당 10회 이상의 알코올을 섭취하는 경우, 주당 담배 한 개 또는 시가 다섯 개를 흡연하는 경우, 현재 병에 걸렸거나 지난 한 달 동안 질병에 걸린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표 1 실험참가자 정보>

실험참가자	성별	나이	출신국가	국내 체류기간
A	여	26	몽골	1년
B	여	27	베트남	2달
C	여	25	몽골	2년
D	남	25	우즈베키스탄	1달
E	남	32	인도	3년

3.2 진행 과정

민요함께 부르기 실험은 연구자가 가르치고 있는 대학의 조용한 강의실에서 실시되었다. 4일간 한 시간씩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4번의 세션으로 이루어졌으며, 매일 아침 10시에 실시하였다. 표 2는 세션에 사용되었던 미국 민요 목록이다.

<표 2 민요 목록>

민요 제목	장조/단조	음계	연대
Oh, Susanna	다 장조	도-라	1840

Row your boat	다 장조	도-도	1840
Skip to my Lou	바 장조	도-라	1731
You are my sunshine	바 장조	도-도	1939

4곡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장조와 바장조로 이루어진 장조의 민요라는 것이다. 이들 민요의 또 다른 큰 특징은 멜로디가 단순하며 반복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실험참여자들이 함께 부르기에 전혀 어렵지 않았다는 것에 큰 비중을 두었다. 각 세션마다 연구자는 유일물을 별도로 준비했으며, 노래하기 전에 가사를 큰 소리로 읽어 주고, 시창을 했다. ‘You are my sunshine’ 와 ‘Skip to my Lou’, 두 노래는 영어로 불렀고, ‘Row row row your boat’, 와 ‘Oh, Susanna’ 는 한국어로 불렀다. 피험자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기 전에, 연구자는 youtube를 사용하여 해당 노래를 들려주었다. 연구자와 실험 참여자들은 해당 노래의 가사 내용에 대해 이야기했고 뜻을 설명하였다. 노래를 배운 후에, 각 피험자들은 그룹 앞에서 노래 할 기회를 가졌다. 매일 피험자들은 새 노래를 배웠고, 항상 배운 노래를 복습 할 시간을 가졌다.

첫날, 세션이 시작되기 직전에 타액 샘플 수집을 요청 받았고 첫 세션이 끝나 자마자 타액 샘플을 다시 수집했다. 세션이 끝난 4일째에, 타액 샘플을 다시 수집 했다. 그러나 남성 과목 중 두 명은 마지막 날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정 악기를 사용하지는 않았으며, 강의실에 설치되어진 컴퓨터를 사용하여 www.youtube.com을 활용하였다.

3.3 타액 수집 및 분석

타액 수집을 위해서 SPL사의 15mL 코티칼 타액 채취 튜브를 사용하였다. 연구자는 피험자들에게 20cc의 투명한 타액 액체를 튜브

에 채워달라고 요청했다. 5명 모두가 성공적으로 실험을 수행했으며 튜브를 연구자에게 성공적으로 전달하였다. 연구자는 타액 샘플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준비해둔 얼음 상자에 넣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타액 분석 방법은 타액의 총 단백질 양을 측정하여 유속을 제어했다. 따라서 IgA 및 코티졸의 농도 변화는 전체 단백질의 비율로 표현된다.

해동 후, 타액을 완전 자동화 된 계측 분석법을 사용하여 IgA와 코티졸의 농도를 분석 하였다. 타액 분석은 서울 JM바이오에서 실시되었다. 해당 업체에서는 이탈리아 DiaMetra사에서 수입 된 'IgA Saliva ELISA' 키트를 사용하여 타액에서 코티졸과 IgA의 농도를 분석하였다.

4. 결과와 논의

4.1 면역글로블린 A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IgA의 농도는 노래 후 증가했다. 노래 후 IgA의 평균 증가 수치는 103 $\mu\text{g}/\text{m}$ 에서 126.6 $\mu\text{g}/\text{m}$ 로 약 1.23배였다(Dillon, Minchoff, & Baker, 1985; Green & Green, 1987; Green, Green & Santoro, 1988; Stone, Miletic, Schiffman, Miletic, & Sattely-Miller, 1996).

<표 3 사전·사후에 나타난 IgA 평균 ($\mu\text{g}/\text{m}$)>

인원	인원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사전	5	103	97.6	36.24	270.59
사후	5	126.6	114.8	42.69	295.52

사전·사후 IgA의 개인별 변화는 향후 연구를 위한 중요한 요소를 찾기 위해 분석 될 필요가 있다. IgA 농도의 정상 범위는

40-170 $\mu\text{g}/\text{m}$ 이다. 피험자 A, B, C는 여성이고, 피험자 D와 E는 남성이다(표4 참조). E의 경우 평균 수치보다 월등히 높은 결과를 보여 주고 있으며, 개인적인 의료상담이 필요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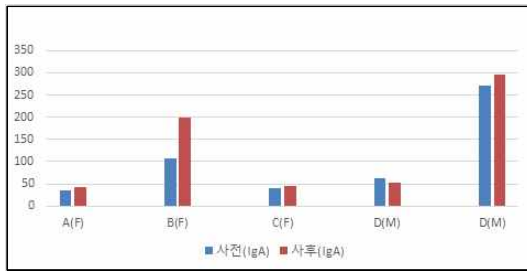
<표 4 사전·사후 피험자의 IgA 개인별 변화($\mu\text{g}/\text{m}$)>

피험자	성별	사전	사후
A	여성	36.24	42.69
B	여성	106.14	197.88
C	여성	39.9	45.34
D	남성	63.11	51.86
E	남성	270.59	295.52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피험자 B의 IgA 농도는 노래 후 거의 100% 증가하였고, 마찬가지로 피험자 B의 IgA 농도는 크게 증가했다. 피험자 A의 IgA 농도는 정상 범위보다 낮지만, 정상 범위 내에서 노래 후에 증가했다. 피험자 A는 네 세션 모두에 참석했으며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피험자 A는 실험 참가에서 노래하는 것이 즐거웠다고 표현했다. 피험자 B는 한국 체류기간이 2개월 밖에 되지 않지만, 영어로 노래하는 것을 즐겼다. 피험자 B의 경우 첫 번째 노래를 끝내고, 그 노래를 혼자 부를 수 있었을 때, 자신을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피험자 B의 IgA 농도는 노래하기 전에 정상 범위 내에 있었고, 노래 부르기 후에는 IgA 농도 수치는 106.14 $\mu\text{g}/\text{m}$ 에서 197.88 $\mu\text{g}/\text{m}$ 로 크게 증가했다. 피험자 C의 IgA 농도는 정상적인 범위보다 낮지만 39.9 $\mu\text{g}/\text{m}$ 에서 45.34 $\mu\text{g}/\text{m}$ 로 정상 범위 이내로 증가했다. 그러나 남성인 피험자 D는 63.11 $\mu\text{g}/\text{m}$ 에서 51.86 $\mu\text{g}/\text{m}$ 로 노래 한 후 그의 IgA 농도가 감소했다. 그의 국내 체류기간은 한 달 이었고, 그의 한국어 수준은 매우 낮았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그는 전에 영어를 배운 적이 없었다. 연구자는 첫 번째 세션에서 피험자 D의 불안을 감지 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 노래를 가장 잘 배웠다. 그러나 피험자 D는 첫 번째 세션 후에 세션에 참

석하는 것을 중단했다. McClelland 등(1980)이 S-IgA 농도가 낮은 사람이 더 자주 병을 앓는 것으로 나타난 걸로 보아 피험자 D는 지병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피험자 E의 IgA 농도 수치는 정상 범위보다 훨씬 높았으며, 270.59 $\mu\text{g}/\text{m}$ 이었고 노래 후에 IgA 농도가 크게 증가했다. 피험자 E는 3년 동안 한국에 체류 했다.

피험자 수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분석은 불가능 했지만, 이 결과는 향후 연구에서 성별 요소를 고려해야 함을 나타냈다. 그래프 1은 실험 전·후를 더욱 명료하게 보여 주며, 남성 피험자들의 결과가 여성 피험자들의 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그림 1 사전·사후 피험자의 개인별 IgA 변화($\mu\text{g}/\tex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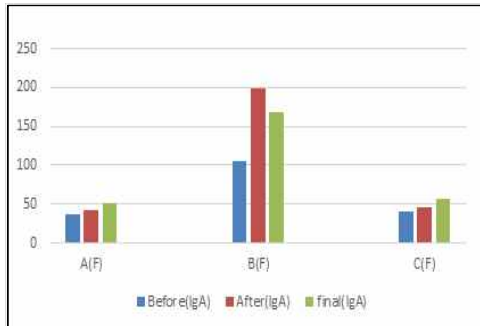
피험자 A, B, C가 네 번의 모든 세션에 참여했기 때문에 연구자는 최종 타액을 수집 할 수 있었다. 결과는 3명의 피험자 모두 IgA 농도가 증가한 것으로 표 5에 나타났다.

<표 5 사전·사후·최종에 나타난 IgA 변화>

피험자	성별	사전	사후	최종
A	여성	36.24	42.69	50.57
B	여성	106.14	197.88	169.10
C	여성	39.90	45.34	55.87

피험자 A의 IgA 농도가 점차 증가하고 최종 수집물의 IgA가 가장 높았으며, 이 결과는 Green et al.(1988)의 주장대로 그들은 피험자가 노래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관련 면역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과 일치했다. 피험자가 더 오랜 시간동안 이완을 연습하면 IgA 분비 속도가 더 빨라지기 때문이다.

피험자 A의 경우 최종 IgA 농도 인 $50.57 \mu\text{g}/\text{m}$ 은 이전과 이후의 타액 수집보다 높다. 피험자 C의 결과는 피험자 A와 동일한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피험자 B의 결과는 피험자 A와 C의 결과와 약간 다른 양상을 보였다. 피험자 B의 IgA 농도 수치는 노래가 끝나기 전에 피험자 A와 B보다 훨씬 두 배가 많았으므로 최종 농도에서의 IgA 농도는 그래프 2에서 볼 수 있듯이 두 피험자보다 여전히 더 컸다. 피험자 D의 IgA 농도 수치는 노래 후 감소했다.



<그림 2 사전·사후·최종 IgA 변화>

4.2 코티졸

타액은 오전 10시에 수집되었고, 코티졸의 정상 범위는 아침에 $1.5\text{-}3.0\text{ng}/\text{ml}$ 입니다. 그러나 전후 두 조건의 평균값은 모두 정상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노래 후 평균값은 정상 범위에 가까워졌습니다.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민요를 부른 후 코티졸 농도의 평균 수

치는 5.55ng/ml에서 3.92ng/ml로 0.71배 현저히 감소는 되었다. 해당 결과는 Hubert & de Jong-Meyer(1990), Keuts et al.(2004), Beck(2000), Kirschbaum & Hellhammer(1994)가 발표한 내용과 일치했다.

<표 6 사전·사후 코티졸의 변화 (ng/ml)>

Condition	n	Mean	SD	Minimum	Maximum
Before	5	5.55	2.56	2.28	9.23
After	5	3.92	1.49	2.97	4.55

노래하기 전에 얻은 코티졸 농도는 피험자 C인 한명만을 제외하고는 정상 범위를 초과했지만, 노래를 부른 후에는 3명의 피험자의 코티졸 농도 수치는 정상 범위 내의 기록을 보였다. 여성 피험자의 평균 코티졸 농도는 4.01ng/ml 이었고, 남성 피험자의 평균 코티졸 농도는 7.85ng/ml로 여성 피험자보다 훨씬 높았다. 그러나 노래 후 여성 피험자의 평균 코티졸 농도는 3.02ng/ml로 거의 0.25 배 감소하였고 남성의 평균 코티졸 농도는 3.76ng/ml로 0.48회였다. 감소 정도는 남성 대상자가 여성 대상보다 더 컸다.

<표 7 두 집단의 코티졸 농도 평균값>

피험자 성별	사전	사후
여성 평균	4.01	3.02
남성 평균	7.86	3.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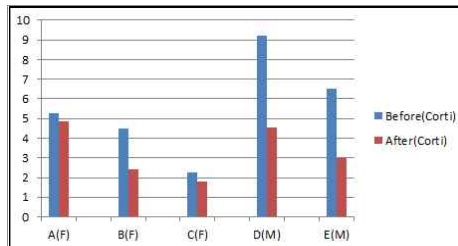
<표 7>은 남성 그룹의 평균값이 여성 그룹보다 훨씬 높음을 보여준다. 피험자 수가 적기 때문에 성별에 유의미한 의미가 있음을 예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이 성별 간 차이 요인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피험자 A의 코티졸 농도 수치는 노래 후 5.251ng/ml에서 4.861ng/ml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정상 범위를 유지했다. 피험자 B의 코티졸 농도 수치는 거의 0.5 배로 2.412ng/ml로 정상 범위 내에 있었다. 대상 C의 코티졸 농도는 2.285ng/ml로 정상 범위였고 코티졸 농도는 1.794ng/ml로 감소했다.

<표 8 각 피험자의 사전·사후 코티졸 변화>

피험자	성별	사전	사후
A	여성	5.251	4.861
B	여성	4.498	2.412
C	여성	2.285	1.794
D	남성	9.226	4.551
E	남성	6.491	2.972

피험자 D의 코티졸 농도 수치는 노래하기 전에 9.226ng/ml이었고 노래 후에는 4.551ng/ml로 크게 감소했다. 감소 정도는 거의 0.5배였다. 피험자 D는 한국에 입국한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았고, 한국어 능력이 높지 않았지 때문에 언어 소통으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스트레스가 다른 피험자들보다 클 수 있었다. 피험자 E의 코티졸 농도 수치는 노래하기 전에 6.491n/ml이었고, 2.972ng/ml로 0.45배 감소하였음을 그래프 3에서 확인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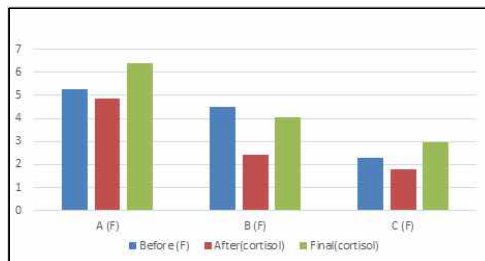
<그림 3 사전, 사후 코티졸 변화>

피험자 A, B, C가 네 번의 모든 세션에 참여했기 때문에 연구원은 최종 타액을 수집 할 수 있었다. 표 9와 그래프 4에서와 같이 결과를 보면 2명의 피험자는 최종에서 코티졸 농도 수치가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피험자들의 숫자가 충분히 않아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코티졸 농도 수치의 변화는 노래 부르기 활동의 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고 할 수 있다(Kirschbaum & Hellhammer 1994; Kreuts, Bongard, Rohrman, Hodapp & Grebe 2004)

<표 9 사전·사후·최종에 나타난 코티졸 변화 (lng/ml)>

피험자	성별	사전	사후	최종
A	여성	5.251	4.861	6.392
B	여성	4.498	2.412	4.063
C	여성	2.284	1.794	2.559

그래프 4에서 볼 수 있듯이, 최종 조건에서 얻은 대상 A와 C의 코티졸 농도는 첫날에 노래하기 전에 수집한 첫 번째 코티졸 농도 수치 보다 컸다.



<그림 4 사전·사후·최종에 나타난 코티졸 변화>

5. 결론

본 연구는 민요 함께 부르기 활동이 국내 다문화사회 구성원의 문화 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실험하고 분석하여 실생활에서 활용하여 효과를 기대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종전의 스트레스 감소와 정서 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음악 치료는 많은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단점이며 일반인이 접근하기에는 부담이 많이 가는 방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미국 민요의 특징을 살려서 민요를 활용한 보다 현실적이고 편리한 음악치료 방법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미국 민요는 한국 민요와 다른 특징이 있으며, 그 특징들 중에는 가지는 멜로디와 가사가 간결하고 반복적인 장조(Major Key) 노래들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을 살려 종전의 긴 시간과 여러 악기를 사용해야하는 번거로운 음악치료법에서 벗어난 단순한 노래 부르기를 활용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조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빙자료를 인타액 분석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타액 분석을 통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과 면역 글로블린A의 사전·사후 변화를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를 보면 노래 후 IgA 농도 수치는 크게 증가했고 코티졸 농도 수치는 감소했다. 해당 결과는 멜로디가 단순하고 반복성이 강한 장조 음의 민요 부르기 활동이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근거를 보여주었다.

민요는 오랜 시간 동안 서민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치유하였고 사람들의 삶의 표현의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오늘날 인간의 삶과 함께 한다. 이러한 단순한 민요 부르기 활동이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면역 체계를 향상 시킬 수 있다는 것은 큰 발견이었다. 이러한 단순한 민요 부르기 활동이 외국인들의 한국 문화 적응과 언어의 차이로 인해 한국에 거주하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노래 부르기 활동을 시작하기 전 남성 실험 참여자들의 코티졸 농도 수치를 여성 실험 참여자들의 코티졸 농도 수치 보다 두 배 높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는 예비연구로서 실험참여자들의 숫자가 충분치 않아서 결과를 일반화 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간의 코티졸 농도 수치를 고려한 민요 부르기 음악 치료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성별 간에 차별을 둔 음악치료법을 고안하는데 기여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2016). 교육통계연보, <http://www.moe.go.kr> 2016년 12월 1일 자료 얻음.
- 국가법령정보센터(2016). 다문화가족지원법, <http://www.law.go.kr> 2016년 12월 1일 자료 얻음.
- 권오경(2010), 다문화사회 통합을 위한 민요의 역할과 방향, <한국민요학> 30권, 한국민요학회. 41쪽~73쪽.
- 김연진(2015). 정서순화예술놀이를 통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성 향상 연구, <부모교육연구> 12권 1호, 한국부모교육학회. 39쪽~61쪽.
- 다누리(2014). 한국생활정보.
www.liveinkorea.kr/kr/contents/contents_view.asp?idx=1
- 박명순, 박재규(2011).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사용능력이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다문화교육연구> 6권 4호, 한국다문화교육학회. 19쪽~41쪽.
- 배수진(2000), 최신 스트레스 관리, 서울: 학문사.
- 박은민(2015). 다문화가정 청소년 적응유연성 증진 프로그램이 자

- 아존증감과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22권 1호, 한국인간발달학회. 37쪽~54쪽.
- 박희영(2009).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아동마사지와 스트레칭이 어머니와 장애아동의 반응성 상호작용 및 타액 코티졸과 면역 글로불린A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손희원(2012).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예술교육정책에 관한 연구: 초등학교 음악수업사례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우희정(2015).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정서조절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6권 3호, 한국지구과학회, 551쪽~563쪽.
- 이전진(2013). 결혼이주여성 여가활동의 공급 및 수요특성 분석: 문화 예술 활동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정책·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미혜(2008). 다문화사회를 향한 전망과 정책적 대응 심포지엄(한국여성정책)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 2, 다문화 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사회적 실천 현황과 발전 방향(총괄보고서).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 조현경(2009). 정서행동 문제 청소년 대상 음악치료 연구 분석: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진영(2015). 노래중심 음악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용·표현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Austine, D.(2012). *The theory and practice of vocal psychotherapy: song of the self*. 한국성악심리치료사협회 (역). *성악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 자기에 대한 노래*. 서울: 시그마프레스(원서출판, 2008).
- Beck, R.(2000). Choral Singing, Performance Perception, and

- Immune System Changes in Salivary Immunoglobulin A and Cortisol, <Music Perception>. *18*, pp.87-106.
- Benjamins, C., Asscheman, H., & Schuurs, A. H.(1992) Increased salivary cortisol in severe dental anxiety, <Psychophysiology> 29, pp.302-305.
- Borysenko, J. Z., McClelland, D. C., Meyer, D., & Benson, H. (1982) Academic stress, power motivation, and decrease in secretion rate of salivary secretory immunoglobulin A, <The Lancet>, 1, pp.1400-1420.
- Bruhn, H.(2000) Music Therapy. History, Theories, Methods. Hogrefe, Gottingen.
- Cook, N. J., Read, G. F., Walker, R. F., Harris, B., & Riad-Fahmy, D.(1992). Salivary cortisol and testosterone as markers of stress in normal subjects in abnormal situations. In C. Kirschbaum, G. F. Read, & D. H. Hellhammer (Eds.), <Assessment of hormones and drugs in saliva in biobehavioral research>. *Seattle: Hogrefe & Huber*. pp.147-162.
- Dillon, K. M, Minchoff, B., & Baker, K. H.(1985). Positive emotional states and enhancement of the immune system,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iatry in Medicine>, 15, pp.13-17.
- Green, R. G., & Green M. L.(1987). Relaxation increases salivary Immunoglobulin A, <Psychological Reports>, 61, pp.623-629.
- Green, M. L., Green, R. G., & Santoro, W.(1998). Daily relaxation modifies serum and salivary immunoglobulins and psychophysiological symptom severity, <Biofeedback and Self-Regulation>, 13, pp.187-199.

- Grout, D.(1990). *A history of western music*. New York: Norton.
- Hubert, W., & de Jong-Meyer, R. Psychophysiological response patterns to positive and negative film stimuli, <Biological Psychology>, 31, pp.73-93.
- Jemmot, J. B., Borysenko, J. Z., Borysenko, M., McClelland, D. C., Chapman, R. & Meyer, D.(1983). Benson, H. Academic stress, power motivation, and decrease in secretion rate of salivary secretory immunoglobulin A, <The Lancet>, 1, pp.1400-1402.
- Jibeen, T.(2011). Moderators of Acculturative Stress in Pakistani Immigrants: The role of personal and social resourc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5(5), pp.523-533.
- Kirschbaum, C., & Hellhammer, D. H.(1994). Salivary cortisol in psycho-neuroendocrine research: Recent developments and applications, <Psycho-neuroendocrinology>, 19, pp. 313-333.
- Korczynski, M.(2003). Music at work: towards a historical overview, <Folk Music Journal> 8(3), pp.314-334.
- Kreuts, G., Bongard, S., Rohrmann, S., Hodapp, V., & Grebe, D., “Effects of Choir Singing or Listening on Secretory Immunoglobulin A, Cortisol, and Emotional State,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Vol. 27, No. 6, 2004, pp.623-634.
- Larson, M. C., Gunnar, M. R., & Hertzgaard, L.(1991). The effects of morning naps, car trips, and maternal separation on adrenocortical activity in human infants, <Child Development>, 62, 1991, pp.362-372.
- Martin, R. A., & Dobbin, J. P.(1988). Sense of humor, hassles,

- and immunoglobulin A: Evidence for a stress-moderating effect of humo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iatry in Medicine>, 18, pp.93-105.
- McClelland, D. C. , Floor, E., Davidson, R. J., & Saron, C. (1980). Stressed power motivation, sympathetic activation, immune function and illness, <Journal of Human Stress>, 6, pp.1-19.
- McGuire, K.(1999). A content ananlysis of the use of music on “Barney and Friends: implications for music education practice and research, Doctoral dissertation, Syracuse University.
- Miletic, I. D., Schiffman, S. S., Miletic, V. D., & Sattely-Miller, E. A.(1996). Salivary IgA secretion rate in young and elderly persons, <Physiology and Behavior>, 60, pp.243-248.
- Murphy, T.(1992). *Music and so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Olivea, D. M.(2005). *Healing with sound*. 이정실, 이정은(역). *소리치료*. 서울: 학지사 (원서출판, 1993).
- Philips, B.(1939) *Folk music in America*. New York: Works Progress Administration, Federal Theatre Project National Service Bureau.
- Pratt, W.(1921). *The music of the pilgrims*. New York: Ovliver Ditson Company.
- Rahe, R. H.(1990). Life change, stress responsivity, and captivity research, <Psychosomatic Medicine>, 52, 1990, pp.373-396.
- Rahim, T. A.(2008). Acculturation and culture shock of Asian international students in higher education: outreach

- strategies and multi-cultural counselling recommendation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Washington State University.
- Seeger, A.(1991). *When music makes history*, In S. Blum, P.B. Bohlman, & D.M. Neuman (Eds.), *Ethnomusicology and modern music history* Urbana IL: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Shelemay, K.(1990). *Music as culture*. New York: Garland Publications.
- Sreebny, L. M.(2000). Saliva in health and disease an appraisal and update. <International Dental Journal>, 50, 2000, pp.140-161.
- Stone, A. A., Cox, D. S., Valdimarsdottir, H., Jandorf, L., & Neale, J. M.(1987). Evidence that secretory IgA antibody is associated with daily mood, <Journal of Personal and Social Psychology>, 52, pp.988-993.
- Uhlig, S. & Baker, F.(2013). *Voice in music: research and practice*. 정현주 외(역). 음악치료에서의 목소리 활용기법. 서울: 시그마프레스(원서출판, 2011).
- Wilton, L. & Constantine, M. G.(2003). Length of residence, cultural adjustment difficulties, and psychological distress symptoms in Asian and Latin American international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Counseling> 6, pp.177-187.

<인터넷 웹페이지>

http://www.liveinkorea.kr/kr/contents/contents_view.asp?idx=1
<http://kcur.org/post/what-folk-gina-kaufmann-and-experts-attempt-answer-impossible-question#stream/0>

필자 소개

성 명 : 이도경

소 속 : 인제대학교 문리대학 교양학부

전자우편 : yiyidodo@hanmail.net

투고일: 2018. 1. 25 / 심사일: 2018. 2. 1 / 심사완료일: 2018. 2. 8

OBE를 적용한 한국어 교육과정 연구

- I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을 중심으로-

이수경*, 김정임**, 양민철***, 김세진****

(인제대학교, 고신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목 차>>

1. 서론
2. OBE 배경
 - 2.1 OBE개념
 - 2.2 OBE 교육의 고찰
3. 연구방법
 - 3.1 연구대상자
 - 3.2 연구과정
4. 연구결과
 - 4.1 OBE 교육과정 적용 강의계획서
 - 4.2 OBE 적용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
 - 4.3 I 대학교 OBE 적용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
 - 4.4 설문지 분석
5. 결론

<Abstract>

Soo Kyeong Lee, Jeong Im Kim, Min Cheol Yang, Se-Jin Kim.
2018. 1. 15. **Application of Outcome-Based Education for the**

본 연구는 2017년 인제대학교 프라임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 제1저자

** 교신저자

*** 공동연구자

**** 공동연구자

Develop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Program: The Case of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Culture Center at University “I”,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1, 127-154. This study is based on a trial application of OBE (Outcome Based Education) system with customized modifications to an actual class in a Korean language education program. The application results are analyzed with the objective to identify the effects of the system on Korean language education. To achieve this goal, we first reviewed the concept of OBE and its application cases to develop an instructional model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model was then applied to the “Korean Level 4” course offered by the Korean Language course at University “I” in Korea. The application and analysis were conducted in four stages: instruction preparation – in-class delivery of instruction I – in-class delivery of instruction II – evaluation and modification. The stages of in-class delivery of instruction were accompanied by counseling for foreign students. The effectiveness of the OBE based instruction was investigated by analyzing the before-and-after survey responses of the subjects on instruction, instructor, and factors outside the class. Statistical testing of the model on instructor and instruction produced an F-value of 23.61 and a p-value of 0.000, exhibiting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in the OBE application. This points to the difference made by the OBE instruction plan, which is differentiated from existing instruction plans and composed of different educational goals and educational activities (evaluation and assignments). In addition, it led to clear identification of intended learning outcomes (ILOs) and their objective and appropriate evaluation using the rubric assessment method. This study suggests a new direction for the design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program in the future, given the limited prior research on OBE application in the field. **(Inje University·Kosin**

1. 서론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국가적 위상이 높아지고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 한국 문화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어 학습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유학생 수가 123,858명에 이르며¹⁾ 국내 대학에서는 국제교육원, 국제교류센터, 한국어교육센터 등 147개 기관에서²⁾ 한국어 강의를 개설하고 있다.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학습 목적 역시 초기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나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나 점차 한국어로 유학, 연수 오는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한국어 학습 목적도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 한국어 교육이 지금보다 더 발전을 하려면 학생들이 한국어를 학습한 다음에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학습의 성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들의 학습 성과를 위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방법이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 보아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어 교육기관에서는 학습자들의 숙달도, 즉 등급에 맞는 교육 목표 설정, 교육 내용 선정, 학습 활동, 평가 등에 관하여 체계적인 교육과정 설계를 해야 할 것이다. 이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의학, 약학, 간호학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인 학생 중심의 성과기반 교육(Outcome-Based Education, OBE)을 적용한 한국

1)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7년 10월 기준)

2) 한국어대표자협의회 회원 기관 현황(2017년 1월)

어 교육과정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첫째, OBE 적용 교육과정의 선행 연구를 탐색하고 둘째, OBE를 적용한 한국어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교육 현장에 적용하며 셋째, OBE를 적용한 한국어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효과를 알아보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하여 I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에 재학 중인 7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OBE 개념

성과(Outcome)란, 일련의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난 후, 목표한 것을 얼마나 달성했느냐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교육과정의 성과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전, 달성 가능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목표에 맞게 수업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성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은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교육과정 설계 방식’을 의미한다(Spady, 1994). 또한, 성과를 설정한다는 것은 교육과정의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Killen, 2007). 즉, 성과는 교육과정 설계의 기본이며 학습 활동을 설계하는데 있어 밑바탕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성과와 비슷한 개념으로 역량이라는 용어를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기도 하나 역량은 과제에서 우수한 활동을 보이거나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이자 개인의 내재적 특성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1997년 OECD의 DeSeCo프로젝트에서는 역량을 인지적, 실천적 기술뿐만 아니라 태도, 감정, 가치, 동기 등과 같은 사회적, 행동적 요소를 작동시켜 충족시키는 능력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역

량에 관한 정의는 최초의 직업적 성공에 목표를 두고 있던 것에서 삶의 성공 그리고 개인의 내재적 특성을 포함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역량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교육하고 수행평가를 통하여 학습능력을 증진시키는 역량기반 교육(Competency Based Education)이 시작되었다. 그 중 Bloom(1956)에서는 완전학습(mastery learning) 개념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는 학습 목표라고 하는 것은 전체 학생의 90% 이상이 완전히 수행하는 학습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완전학습이란 모든 학생이 정해진 학습 목표를 도달하는 차원의 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OBE(Outcome-Based Education)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OBE는 1980년대 Spady(1994)에 의해 다시 주목 받기 시작했다. 이는 새로운 이론적인 것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며, 학습자의 태도, 감정,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또한 성과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습이 끝났을 때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필수적인 것을 중심으로 집중되고 조직화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즉, 교사는 학습을 통하여 학습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의도된 성과(Intended Learning Outcomes, ILOs)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된 교수 설계를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Kullas(1994)는 성과기반 교육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하는 성과에 초점을 맞춘 과정이라고 보면서 학습 성과는 학습한 결과를 통하여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앞의 Spady(1994)에서 밝힌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견해들을 바탕으로 한 OBE는 학습자 중심 교육을 지향한다. 즉, 학습자가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는지, 어떤 과업을 해낼 수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지식의 내용보다는 어떤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다루는 과업중심인 동시에 지식을 바탕으로 어떠한 결과가 도출되는가에 초점을 두는 결과중심의 접근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OBE는 학습자들의 평가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보통 상대적인 평가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보다는 학습자가 어떠한 수준에 도달했

는지에 더 관심을 둔다. 이는 질적인 평가를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수업 내의 수행평가나 피드백을 제공해주는 형성평가를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2.2 OBE 교육의 고찰

2.2.1 Outcome Based Education 국내 선행연구

Outcome Based Education(OBE) 관련 국내 연구는 매우 부족하여 간호학, 의학, 공학 교육에서 소수의 논문이 있으며 약학교육에서 현재 약학인증제 관련 성과기반연구가 진행 중이므로 약학교육에서의 연구가 기대된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과정에서는 OBE 교육과정이 아직 적용되지 않은 상황으로 OBE 적용 한국어 교육과정에 관한 선행연구가 없으며 비슷한 개념의 역량기반, 성취기반, 백워드 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가 있다.

김선(2012)은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의사보다 역량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의사를 사회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의사양성교육에서 기존의 지식위주의 학습 목표에서 수행능력과 역량 함양에 초점을 두는 학생 중심 교육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논하고 이에 필수적인 학습 목표와 학습 성과의 개념 정립을 위해 구체적인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으며, 최근 의학교육에서 성과기반 교육을 통한 의사교육에서의 학습 역량을 논하고 있다.

신선미(2016)의 연구에서는 OBE를 ‘간호연구’ 교과목에 적용하였으며 모든 학습자는 설정된 학습경과에 도달하여 연구역량에 대한 전후 자가 평가에서 긍정적인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p < .001$). 이에, OBE를 기반으로 간호학교육에서는 성과가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하며, 교육기관의 이념과도 부합이 되어야 하고, 이를 통하여 학습자의 전공 지식뿐만 아니라, 실무현장의 직무 수행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음을 밝혔다.

김하원(2017)은 2010년 이후 성과바탕 의학교육과정의 변화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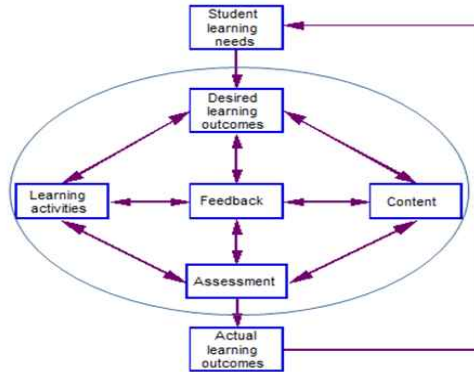
을 분석했으며, 사회적 책무성을 가진 의학교육은 질 관리 면에서 성과기반 교육을 의무적으로 도입하여 강압적인 면이 있었지만 각 대학의 상황에 맞게 시행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러한 교육과정의 변화는 쉽지 않으며 성공적 실행을 위해서는 교육변화를 지지하는 리더십, 전문가를 포함한 핵심 인력의 조직, 교육과정 변화에 동참하는 환경 조성, 인증평가나 국가시험에서 긍정적인 평가, 교육과정 변화에 관한 필요성과 공감, 노력이 요구 된다고 설명하였다.

2.2.2 Outcome Based Education 해외 선행연구

OBE 적용 교육에 관한 해외 선행연구로는 Mary Pang 외 2인(2009)이 홍콩에 있는 대학의 경영학 수업에서 Outcome Based Teaching and Learning을 한 학기 적용한 후에 설문지와 집단 면담을 통하여 성과기반 교육에 잘 적응했음을 밝힌 사례가 있다. 또한, Oliver Au & Reggie Kwan(2009)는 홍콩에 있는 대학의 컴퓨터 공학과 교원 15인을 인터뷰 한 결과 OBE 적용에 따른 시간과 노력에 학교 측에서 이에 관한 배려가 없음을 지적하고 OBE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외, South Africa의 ESL 수업에서의 OBE 적용 사례(Soudin, Crain & Baxen, Jean: 1997), Gawie Schlebusch & Motsamai Thobedi: 2004), OBE에 관한 비판적 연구(Laurie Brady:1996), OBE 교육에서 수업활동을 위한 적절한 시간 분배(Diane Salter 외 2인: 2009), 의학교육에서의 OBE 적용사례(Stephen R. Smith & Rhichard Dollase: 1999), 의학교육에서의 OBE 평가(Miriam Friendman Ban & David: 1999), 홍콩대학교의 디자인 수업에서의 OBE 적용사례(Ming Cheung: 2011), 호주 대학교 OBE 적용 언어교육과정에서의 학생평가(Geoff Brindley: 1998)등이 있다.

홍콩의 OBE 적용사례를 살펴보면, 홍콩의 대학교에서는 최근 학생들의 대학 학습 경험에 대한 조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자 하였다. 이러한 교육과정 거쳐서 선정된 학습 목표는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에 보다 적극 참여하게 하며 학생들의 학습 목표를 보다 잘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OBE를 적용한 홍콩중문대학교의 교육과정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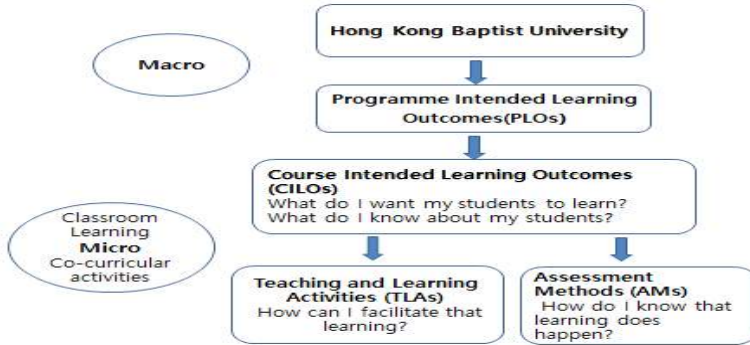
<그림 1 홍콩 중문대학교의 OBE 적용 교육과정>

그림1의 교육과정을 일반적인 교육과정과 비교해 보면, 학습 목표와 평가에 관한 피드백, 학습평가가 각 과정의 학습 활동 및 학습 내용과 더욱 긴밀한 상호 연관성이 있게 진행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 마지막으로 평가를 통하여 학습 성과를 확인한다. 그 후 이를 다시 교수 설계의 첫 단계인 학생들의 학습 요구에 반영한다.

그림 2는 홍콩 침례대학교에서 제시하는 OBE 과정으로 학습 목표 및 성과의 설정은 크게 거시적인 부분(macro)과 미시적인 부분(micro)으로 나누어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OBE 교육과정에서 거시적인 부분에서는 PILOs(Programme Intended Learning Outcomes), 프로그램 전체의 의도된 성과를 미시적인 부분에서는 CILOs(Course Intended Learning Outcomes), 코스별 목표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으로

로 학습자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야 하며 학생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교사가 학습 활동과 평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그림 2 홍콩 침례대학교의 OBE 교육과정>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2017년도 여름학기에 진행하였으며 I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에 재학 중인 유학생 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은 일주일에 20시간(1일 4시간)씩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로 한국어 4급에서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으며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학습 경력을 가지고 있다. 대상자들의 동의하에 구성하였으며, 일반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

국적	나이	성별	학습 기간	단계
베트남 1	27	여	1년 5개월	한국어4

베트남 2	23	여	1년 2개월	
베트남 3	23	여	1년	
베트남 4	23	여	1년	
우즈베키스탄 1	21	남	1년	
몽골 1	28	여	1년 2개월	
태국 1	27	여	1년 2개월	

3.2 연구과정

3.2.1 상담을 포함한 교수-학습 교육과정 적용

OBE 교육과정 적용은 기존의 국내, 국외에서 실시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도출하여 실제 교육현장에 적용하여 교수-학습 과정을 크게 4단계로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교수-학습 준비단계, 둘째, 교수-학습 진행-I, 셋째, 교수-학습 진행-II, 넷째, 수업에서 적용된 교수학습 I, II의 피드백을 통한 수정 및 보완 작업으로 구성되며 수정된 내용은 다시 첫 단계인 교수준비 단계에 적용된다. 특히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상담 I, 상담 II를 통한 학습자들의 피드백을 포함하였다.

3.2.2 기대되는 학습성과(Intended learning outcomes, ILOs)를 강조한 교수-학습 강의계획서 작성

교육과정 모형은 기존 강의계획서와 달리 OBE를 기반으로 한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였다. 강의계획서는 수업의 기본적인 사항(강의 과정, 연도, 과목명, 수업시수, 담당교수)을 기술하고 학습 목표에 지식과 활용(언어적인 측면), 가치 및 태도(문화 및 정의적인 측면)영역을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또한 수업 후 성취해야 하는 기대된 학습성과(Intended Learning Outcomes)의 항목을 학습 활동과 수행평가(수업참여, 과제,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에 명시함으로써 기대된 학습성과(Intended Learning Outcomes)와 수업내용, 활동,

평가가 모두 연관성이 있고 일관되어야 하는 OBE 과정에 따랐다. 또한, 학습성과는 활동 동사를 사용하여 작성하였다.

3.2.3 OBE 교육과정 적용한 교수-학습 진행

OBE 교육과정을 적용한 수업은 강의계획서를 기반으로 진행되었으며, 수업은 총 10주의 교육으로 진행하였다. 일주일에 20시간 (1일 4시간)으로 각 영역별(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 문법)로 진행되었다.

3.2.4 설문지 분석

OBE 적용 수업 시작 전 사전 설문지를 통해 적용 전의 수업에 대해 설문을 하였다. 그리고 10주후 사후 설문지를 통해 OBE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설문지는 총 15문항으로 크게 4영역(일반적 정보, 교사 관련, 수업 관련, 기타)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설문지 구성>

설문지 영역	설문 문항 내용
<기초 정보>	1. 국적, 나이
	2. 한국어 학습 경력
	3. 한국 체류 경력
	4. 한국어 등급 및 TOPIK 보유 여부
	5. 한국어 학습 이유
<교사 관련>	6. 전체 학습 목표 및 기대 성과 설명 유무
	7. 학습 목표 설명 유무
	8. 수업 및 활동, 과제 적용 설명 유무
<수업 관련>	9. 수업 내용에 따른 실생활 응용 여부
	10. 수업 활동에 따른 학습목표 달성 여부
	11. 학습 과제에 따른 학습목표 달성 여부
<기타>	12. 교사와 학생의 관계

	13. 학습목표 수행을 위한 방법
	14. 학습과 의사소통능력 상관 여부

OBE 교육과정 적용 전·후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질문지를 구성하여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분산분석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4. 연구결과

4.1 OBE 교육과정 적용 강의계획서

OBE교육과정 적용 강의계획서는 학습 목표를 지식 및 활용, 가치 및 태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그리고 주별 진도에는 매 수업의 학습내용과 활동이 학습자들이 도달해야 하는 수업의 기대성과 (ILOs)와 연관성이 있도록 각 수업의 기대성과 항목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학습 목표의 세부성과인 학습 활동(평가, 과제)도 OBE 교육 과정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 따라서 OBE를 적용한 강의계획서가 기존의 강의계획서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학습 성과는 반드시 활동 동사를 사용하여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1.1 강의 목표

OBE 교육과정 적용 강의계획서에서는 OBE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기존 강의계획서에서 제시한 의사소통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 전통, 시사, 문학 등 한국 문화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하였다.

4.1.2 학습 목표

학습 목표는 학습자들이 1학기 동안의 수업을 통해 달성될 성과

에 대해 예상되는 결과를 의미한다. 기존의 강의계획서는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읽기, 듣기 텍스트를 이해한 후 목적에 맞는 텍스트를 구성하고 담화 기능을 활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하지만 OBE 적용 강의계획서는 학습 목표를 학생들이 학습 후 수행 가능한 기대성과(ILOs)로 제시하였다. 또한, 이 기대성과(ILOs)를 크게 지식 및 활용, 가치 및 태도의 두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3~4가지의 기대성과를 활동동사를 사용하여 제시하였다. 지식 및 활용에의 기대성과는 어휘, 문법,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 영역을 한국어4급 단계에 맞는 내용으로 설정하였으며, 가치 및 태도 영역에서는 한국 사회와 생활에서 잘 적응하고 한국과 자국문화를 이해함으로써 국제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학습 후 미래에 대한 설계를 통하여 학습이 평생교육으로 이어지길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OBE 적용 강의계획서의 학습 목표에 제시된 기대성과(ILOs)는 다음과 같다.

<표 3 학습 목표에 제시된 기대성과(ILOs)>

지식 및 활용	1. 토픽 3급에 해당하는 수준의 <어휘>와 <문법>을 익혀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다.
	2. 제시된 <듣기> 자료를 듣고 파악한 내용 및 표현을 실제 생활에서 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각 과의 <읽기> 자료를 읽고 자료의 내용과 그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다.
	4. <쓰기>에서는 각 과에 제시된 자료들을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쓸 수 있다.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주제부터 비교적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소재까지 이해하고 한국어로 표현할 수 있다.
가치 및 태도	5. 한국인과 일상생활에서 한국어를 사용하여 상호협력 할 수 있다.
	6. 한국어를 이용하여 한국 문화와 자국의 문화를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7.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학습과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의 학습을 계획할 수 있다.

4.1.3 주별 진도표

주별 진도표(계획서)에서 기존 강의계획서와 달라진 부분은 영역의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강의계획서에서는 학습내용 부분에 듣기, 쓰기, 말하기, 읽기, 문법 의 모든 영역을 구분 없이 학습 내용에 제시하였다. 그러나 OBE 적용 강의계획서의 경우, 학습내용을 다시 내용과 학습 활동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내용 부분에서는 형태적인 부분 즉, 문법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제시하였으며, 학습 활동에서는 앞의 형태적인 부분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활동에 대해 제시하였다. 즉, 내용 부분에서는 문법 영역을 그리고 학습 활동 영역에서는 읽기, 듣기, 말하기를 기반으로 하는 활동 등을 기재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자신이 배울 영역에 대한 목표와 학습활동을 통한 성과를 매 시간마다 숙지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었다. 표4는 주별 진도표 예시이다.

<표 4 주별 진도표 예시>

주	일 자	학습 단원	내용	학습활동	기대 성과
1		1 . 적 성 과 진로	(ㄴ/는)다면서요? -다 보면 -은/는 -(ㄴ/는)다는 것이 다[점이다] -는 대로	관련 어휘·문법 습득 후 조언하기	1,2,5
			적성을 소개하는 글 읽기 전공 선택에 대한 상담 대화 듣기 학교 생활에 대한 조언 듣기 진로에 대한 인터넷 상담 글 읽기	대학 생활에 대한 조언 구하기 진로에 대한 상담 글 쓰기	2,3,4 ,5,6
		2 . 건 강 한	어쩌나[얼마나] -은/는지 -을 정도로(이다) -다가는	관련 어휘·문법 습득 후 증상 설 명하기	1,2,5

		-을 뿐만 아니라 경고하는 글 읽기	경고하는 말하기	
	삶	119 전화 문의 듣기 증상에 대한 대화 듣기 다양한 치료법에 대한 기사 읽기	특별한 상황에서 의 증상 설명하기 민간요법 소개 글 쓰기	2, 3, 4 , 5, 6

4.1.4 학습평가 및 과제 제시

(ㄱ) 평가

기존의 계획서에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각 30%, 퀴즈 20%, 과제 20%로 구성되고 과제는 단원 학습 후 제시되는 워크북과 수업에 따라 교사가 제시하는 과제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나 OBE에서의 평가는 수행평가 70%, 기말고사 30%로 구성하였다. 수행평가는 교수-학습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실시되는 평가로 수행평가의 항목은 수업참여도(활동 참여도, 수업 태도, 팀워크, 기타) 10%, 과제 30%(각 과별 워크북 5%, 쓰기 5%, 말하기 10%, 퀴즈 10%), 중간고사 30%로 구성하였다. OBE 교육과정에서 중간고사는 전체 학습의 중간에 실시되기 때문에 최종 학습 성과를 파악 할 수 없는 항목이므로 수행평가에 포함된다. 또한 최종 평가는 학습이 끝난 후 실시되는 기말고사(총괄평가)와 수행평가(퀴즈, 과제, 중간고사)를 모두 포함하였다.

(ㄴ) 과제와 기대성과(ILOs)

교사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학습 역량을 높이고 학습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학습 활동을 계획하고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교사가 제시한 과제를 통해 학습 목표가 확실하게 달성되었는지 증명해야한다. 기존 수업에서는 교사가 제시하는 과제에 대해서 단순히 학생들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능력을 평가했다면 OBE 적용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과제 수행을 통해서 교사는 학습에서 제시한 기대성과(ILOs)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를 평가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과제 제시를 할 때 학생들에게 과제 수행 후의 성과 목표, 평가 방법, 평가 비율, 과제의 주제, 과제 제출 기간, 과제 제출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도록 하고 강의계획서에도 이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과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수업 참여도와 과제(워크북, 쓰기, 말하기, 중간고사)를 포함하는 수행평가와 기말고사이다.

수업참여도는 교사가 학생들 스스로 다른 학생들과의 활동을 통하여 피드백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지, 토론 및 그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를 평가한다. 교사는 학생들의 수업참여도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고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발표와 질문에 대한 답변의 빈도도 체크하도록 했다.

워크북 과제는 매 차시 수업 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학습 평가 방법이다. 학생들은 워크북 과제를 통해 매 차시 학습에 대한 복습과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대비할 수 있게 했으며 쓰기와 말하기 과제는 매 학기 1회 실행하도록 했다.

학기말시험은 OBE 적용 한국어 교수-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로 학생들의 전반적인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최종 평가 즉 성취도 평가이다. 학기말시험에서는 언어의 4기능을 포함한 전반적인 언어 능력 뿐만 아니라 시험이 끝난 후에도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표현 및 문법 구조,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통해 한국어를 이해하는 과정에 더욱 익숙해질 수 있도록 계획했다. 표5 OBE 교육과정 강의계획서에서 과제 부분을 살펴보면 특정 과제를 통하여 어떠한 기대성과(ILOs)를 성취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표5는 OBE 교육과정에서 과제에 관한 내용이다.

<표 5 OBE 교육과정 적용 과제 제시의 예>

3) 쓰기 과제(10%) (ILOs: 1,2,3)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배운 문법과 어휘를 사용하여 창의적 아이디어

를 표현하기 위해 약 600자 정도의 에세이를 제출한다. 과제를 마친 학생들은 다양한 어휘와 문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나타낼 수 있는 글을 정확하게 쓸 수 있다.

주제 : 한국과 한국인(6과 관련)

제출일 : 2017.9.26.

600자 (± 100자)

수업시간에 제출

제출일 이후에는 하루에 1점씩 감점

4) 프로젝트(20%) (ILOs :1,2,3,4,5,6,7)

각 그룹은 문화관련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한다. 학생들은 그룹으로 작업하며 한국 문화와 자국의 문화를 비교 한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한다. 과제를 마치면 학생들은 문화에 관한 두 나라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파악하고 본인의 생각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소과제를 마치면 학생들은 한국어 발표에 자신감을 갖게 되고 학습을 통합 할 수 있게 된다.

- 주제 : 요리법 설명 (8과 관련)

발표일: 2017. 10.12

- 발표시간 : 5분

- 스크립트는 발표 10일전까지 수업시간에 제출한다.

- 스크립트를 늦게 제출 할 경우에는 하루에 1점씩 감점된다.

4.2 OBE 적용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

이 연구에서는 OBE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어 교육을 적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설계하였다. 설계된 교육과정은 총 4단계로 나누어 구성되었다.

4.2.1 교수-학습 준비단계

이 단계는 교수환경 분석 및 교수학습 설정 단계로, 교수학습 전 학습자 분석 및 학습자의 요구 분석을 실시하고 교수학습 방향

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교수학습 설정 단계에서는 성과를 설정하였다. 성과는 크게 ① 지식 및 활용, ② 가치 및 태도로 나누었다. 그리고 이에 맞는 세부 목표를 설정하고 강의계획서에도 명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강의계획서는 강의의 전반적인 부분(강의과정, 강의연도, 강의과목, 수업시수/주, 담당교수 등)과 강의 목표, 주별 진도표, 학습 활동(평가, 과제 등)으로 나누어서 작성하였다.

4.2.2 교수-학습 진행- I

교수-학습 진행-I은 실제 교수학습을 진행함과 동시에 중간점검을 위한 수행평가를 실시하였다. 수행평가에는 중간고사, 퀴즈, 과제 등이 포함되었다. 과제 평가의 기준은 루브릭 평가를 사용하였다. 루브릭이란,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평가표를 말한다. 방용선(2012)의 연구에서는 루브릭은 교사와 학습자들의 상호작용 결과로 구성된 것으로 활동의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활동에서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자신의 수행 수준을 인식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루브릭은 성과를 중시하는 OBE교육과정에 부합하는 평가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수 학습 첫 단계에서 과제는 쓰기 과제와 말하기 과제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쓰기와 말하기 과제의 경우, 대학(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학습자들에게 리포트 작성 및 논문 쓰기는 진학 후 수업에 대한 연습을 할 수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교수학습을 진행하면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상담 I>을 실시하였다. <상담 I>은 주로 학습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상담 I>을 통해 교사와 학습자 모두 목표로 한 성과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환기할 수 있으며, 상호 친밀감이 증가되었다.

4.2.3 교수-학습 진행-II

3단계의 교수-학습 진행 II에서는 앞서 있었던 수행평가와 기말고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OBE 교육과정 적용 교수-학습의 효과를 알아보았다. 또한 <상담 I>과 마찬가지로, <상담 II>를 실시하였다. <상담 II>는 교수-학습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대인관계에 대한 상담(학습자의 정의적 영역)도 이루어졌다. 또한 성과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에 대한 상담도 진행되었다.

4.2.4 수정 및 보완

수업에서 적용된 교수학습 I, II의 모든 활동과 평가는 학생들의 성과로 나타나야 하지만 부족한 부분에 관하여는 수정 보완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은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으면서 진행되었으며 수정 및 보완 작업 후에 수정된 내용은 다시 첫 단계인 교수준비 단계에 적용하였다.

4.3 I대학교 OBE 적용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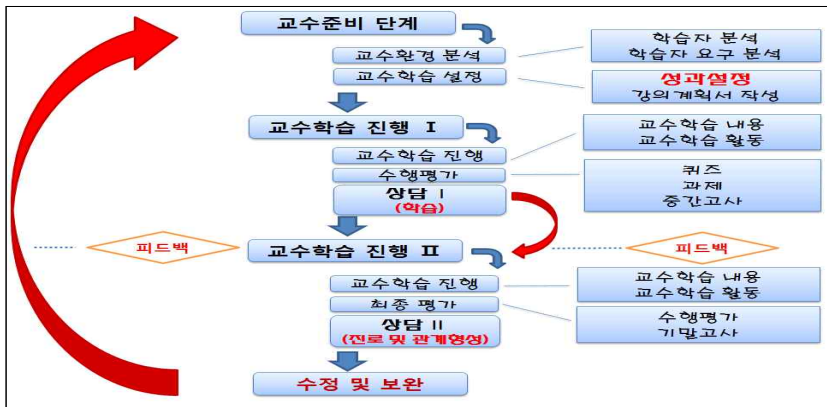
교수-학습 교육과정 설계의 가치으로 < I대학교 OBE 적용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 >하였다.

그림 3은 I대학교 OBE 적용 한국어 교육과정의 전체 설계를 나타낸 것이다. 여러 단계들을 통해 교수환경을 분석하여 교수-학습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있도록 강의계획서 및 학습성과를 설정하였다. 성과의 설정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OBE 교육과정 적용의 핵심으로 설정된 성과를 기초로 OBE 교육과정에 의한 강의계획서를 작성, 수업의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교수-학습을 진행하였다. 또한 중간점검을 위한 수행평가로 성취도평가인 중간고사와 형성평가인 퀴즈, 과제를 포함하였다. 수행평가가 끝난 후, <상담 I>을 실시하여 차시의 교수-학습에 피드백을 할 수 있었다.

모든 교수-학습이 이루어진 후 수행평가 결과 및 기말고사의 결

과를 기초로 <상담 II>를 실시하였다. 이후 각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교수-학습의 전체적인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1단계의 교수-학습 준비 단계에 반영하여 수정 및 보완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을 증가 시키고 학습 역량이 성과로 나타날 수 있는 OBE적용 한국어교육과정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한국어교육에서의 OBE 교육과정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I대학교 OBE 적용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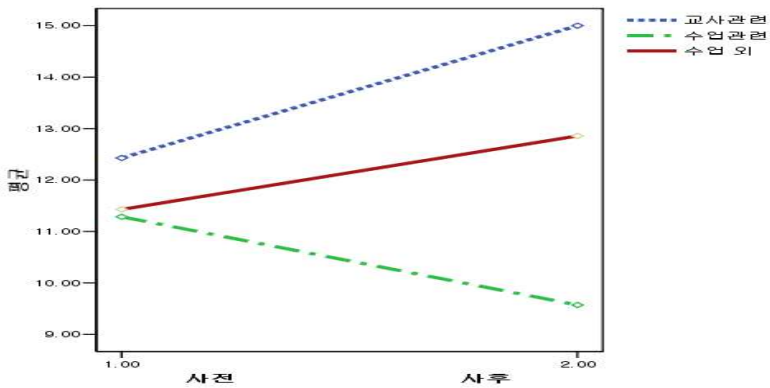
4.4 설문지 분석

연구 대상자들에게 OBE 교육과정을 수업에 대한 사전-사후 설문하여 평균, 표준편차, 분산분석으로 검정을 실시하였다.

4.4.1 사전-사후 평균분석

사전사후의 평균 분석과 그림 4에서는 OBE 교육과정의 사전검사에서는 교사 관련은 평균 12.43, 수업 관련은 평균 11.28, 수업 외에서는 평균 11.43으로 나타났다. 이에 OBE 교육과정 사후검사에서

는 교사 관련 평균 15.00, 수업 관련 평균 9.57, 수업 외에서의 평균은 12.86으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수업 관련 평균에서는 사전의 평균이 사후의 평균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습자들이 OBE 교육과정 적용 전의 수업은 평가나 과제 등이 자유롭고 쉽다고 생각하였으나, OBE 교육과정 적용 후의 수업은 처음 경험하는 OBE 교육과정으로 전과 비교하여 과제 수행이 매우 엄격하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사려된다.



<그림 4 OBE 적용 사전-사후 변화 도표>

4.4.2 분산분석

(1) 회귀모형에 의한 분산분석

교사 관련, 수업 관련, 수업 외에 대한 분석 결과 수업외에 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제외되었다. 교사 관련, 수업 관련의 모형에서 F 통계 값은 23.95, 유의확률은 0.000으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유의수준 0.05에서 OBE수업 적용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어, 총 변화량의 81%(수정결정계수에 의하면 77%)가 모형에 포함되어 설명하고 있다. 분석에서 교사 관련, 수업 관련은 OBE의 수행과정이 집단 간 관련이 있으며, OBE이 적용이 유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은 수업의 회귀모형 분석이다.

<표 6 OBE 수업의 회귀모형 분석>

	제공합	자유도	평균 제공	F	유의확률
선형회귀 분석	2.839	2	1.419	23.612	0.000
잔차	0.661	11	0.060		
합계	3.500	13			
R^2 (adj, R^2)=0.811(0.777)					

(2) OBE 수업에 대한 분석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OBE 수업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교사 관련 ($t=-2.537$, $p=0.000$), 수업 관련($t=6.490$, $p=0.014$)이며, 독립변수의 표준화계수에 의하면 교사, 수업 관련은 OBE 적용 수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7은 OBE 수업에 대한 회귀분석 표이다.

<표 7 OBE 수업의 회귀분석>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 오차				공차	VIF
교사 관련	0.271	0.042	0.855	-2.537	0.000	0.989	1.011
수업 관련	-0.67	0.023	-0.386	6.490	0.014	0.989	1.011
(상수)	-1.522			-2.537	0.028		

5. 결론

본 연구는 OBE 교육과정 적용 한국어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실제

교육현장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 및 국외의 OBE 교육과정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가칭 < I 대학교 OBE 적용 한국어 교육과정 >을 설계하였다. OBE 교육과정을 적용한 선행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추후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에 한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해 기존의 강의계획서와 차별을 둔 OBE를 적용한 강의계획서를 적용하였다. 이에 강의계획서의 특징은 첫째, 학습 목표의 설정이며 둘째, 학습활동(평가 및 과제)의 차이를 들 수 있다. 또한 각 항목별로 기대성과(IL0s)를 명확하게 제시하였으며, 루브릭 평가 기법을 이용하여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교육과정의 각 단계에서 상담을 실시하여 학습자들의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담은 2차례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각 학습 및 수업, 그리고 진로와 생활에 대한 내용으로 상담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개발된 강의계획서 및 교육과정을 실제 교육현장에 적용한 결과는 사전, 사후 설문지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OBE 교육과정을 적용한 후에는 교사 관련, 수업 외 관련에서는 사후 결과가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으나, 수업 관련에서는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이는 OBE 교육과정 적용 전 수업에서는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여러 기대와 의욕적인 부분이 높았으며 수업이 쉽게 진행 되었으나 OBE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한국어 수업에서 매우 엄격한 평가와 과제가 제시되었다. 따라서 과제 준비 과정에서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의 역량이 제시된 과제를 수행하는데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자 수업 관련 항목에서 낮은 평균을 보인 것이라고 판단된다. 분산검증에서는 교사 관련, 수업 관련의 모형에서 F 통계값은 23.95, 유의확률은 0.000으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유의수준 0.05에서 OBE수업 적용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어, 총 변화량의 81%(수정결정계수에 의하면 77%)가 모형에

포함되어 설명하고 있다. 분석에서 교사 관련, 수업 관련은 OBE의 수행과정이 집단 간 관련이 있으며, OBE 교육과정적용이 유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OBE 교육과정은 수업 적용에 유용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4차 산업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OBE 교육과정을 국내한국어교육과정에 처음 적용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I대학 한국어과정에만 적용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후속 연구로서는 타 기관에서도 이를 적용하여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강현석(1996). 학문중심교육과정설계의 준거설정 교육과정, <교육과정연구> 14권 1호, 한국교육과정학회. 156쪽~188쪽.
- 김선(2012). 학습성과의 개념과 필요성, <한국의학교육> 24권 2호, 한국의학교육학회. 89쪽~92쪽.
- 김정빈(2015). 홍콩의 교육개혁과 시사점,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 김정숙(2011). 한국어 교육과정 연구 성과와 향후 과제 연구, <이중언어학> 47권, 이중언어학회. 331쪽~349쪽.
- 김하원(2017). 의학교육과정 변화요인과 과정 분석: 2010년대 이후 성과바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종미(2015). 백워드 교육과정에 따른 문법 교육과정 설계 연구, 한국어교육학회 학술발표, 2015. 89쪽~108쪽.
- 박홍수(2007). 홍콩의 언어교육 정책: 양문삼어, <中國研究> 40권,

- 한국의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169쪽~184쪽.
- 방용선(2012). 루브릭을 활용한 초등학생용 학습전략 프로그램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선미(2016). 성과기반 교육을 적용한 ‘간호연구’ 교과목의 설계·운영 및 평가 연구, <The SNU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25권 1호,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97쪽~117쪽.
- 안경화, 김민혜(2014). 한국어 교육과정의 목표 설계 연구, <어문론집> 59권, 중앙어문학회. 381쪽~405쪽.
- 윤희원(2006). 한국어 교육 방법론의 재검토: 한국어교수법 연구의 전제와 방법, <국어교육연구> 18권,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7쪽~29쪽.
- 이수경(2011). 홍콩의 한국어 교육 현황과 전망: 글로벌 시대 한국어언어문화 교육의 쟁점과 전망, 한국언어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
- 이은희(199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연구, <한국어교육> 9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21쪽~141쪽.
- 이은화(2017). 성과기반 교육과정 운영의 평가도구로서 티칭포트폴리오 적용 방안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권 4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459쪽~478쪽.
- 조은숙(2011). 한국어 교육과정의 설계와 개선 방향에 대하여 : 중국대학교의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7권 3호, 한국언어문화학회. 257쪽~277쪽.
- 지현숙(2004). 학습자 중심 한국어 교육에서의 대안적 평가, <국어교육> 15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33쪽~252쪽.
- 최은주(2013). 역량기반 교육의 학교 적용 사례 탐색,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Anne Mette Morcke, Tim Dornan, Berit Eika(2013). Outcome (competency) based education: an exploration of its origins, theoretical basis, and empirical evidence, *Adv*

- in Health Sci Educ*, 18, pp.851-863.
- Bloom, B. S. (Ed.).(1956).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classification of educational goals, *Handbook 1: Cognitive domain*, New york: Longman, Green & Co.
- Dianne Cmor(2009). Campus priorities and information literacy in Hong Kong higher education: A case study, *Library Management*, Vol. 30 Issue: 8/9, pp.627-642.
- Gawie Schlebusch, Motsamai Thobedi(2004). Outcomes-Based Education in the English Second Language Classroom in South Africa, *The Qualitative Report* Volume 9 Number 1, pp.35-48.
- Geoff Brindley(1998). Outcomes-based assessment and reporting in language learning programmes: a review of the issues, *Language Testing* 1998 15(1), pp.45-85.
- Kennedy, K.(2009). Outcomes based learning, concepts, issues and action, Retrieved 21 Nov. 2010.
- Killen, R.(2007). Teaching Strategies for Outcomes-Based Education (2nd Edition), Cape Town: Juta.
- Kudlas, J. M.(1994). Implications of OBE: What you should know about outcomes-based education, *The Science Educator*, 61(5), pp.32-35.
- Mary Pang, To Ming Ho, and Ryan Man.(2009). Learning Approaches and Outcome-Based Teaching and Learning: A Case Study in Hong Kong, China. *Journal of Teaching in International Business*, 20, pp.106-133.
- Ming Cheung(2011). When mind, heart, and hands meet: communication design and designers. *Int Technol Des Educ* 22, pp.489-511.
- Miriam Friedman & Ben-David(1999).Assessment in outcome-based

- education, *Medical Teacher*, 21(1), pp.23-25.
- OECD(2003). *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Theoretical and Conceptual Foundations(DeSeCo)-Summary of the Final Report*, OECD Press.
- OECD(2005).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Executive Summary*.
- Oliver Au & Reggie Kwan(2009). Experience on Outcom-Based Teaching and Learning. F.L. Wang et al.(Eds.): *ICHL 2009*, LNCS 5685, pp.133-139.
- Soudien Crain, Baxen, Jean(1997). Transformation and outcomes-based education in South Africa: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J Negro Educ*; Fall 1997; 66, 4; pp. 449-459.
- Spady, W. D.(1994). *Outcomes Based Education: Critical Issues and Answers*, Arlington, VA: American Association of School Administration.
- Spady, W. D. & Marshall, K. G.(1991). Beyond traditional outcomes-based education, *Educational Leadership*, 49(2), pp.67-72.
- Stephen R. Smith & Richard Dollase(1999). Planning, Implementing and evaluation acompetency-based curriculum. *Medical Teacher*, 21(1), pp.15-22.
- Tyler, R. W.(1949). *Basic principles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Wang Lixun1(2010). Designing and Implementing Outcome-Based Learning in a Linguistics Course: a Case Study in Hong Kong,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ducation and Education Psychology 2010*.
- Wiggins, G. & McTighe, J.(2005). *Understanding by Design*. (2nd

Expanded Ed.),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http://www.cuhk.edu.hk/clear/enhance/dnd.html>

<http://www.hkbu.edu.hk/eng/main/index.jsp>

<http://www.ipass.gov.hk/edb/index.php/en/>

필자 소개

성 명 : 이수경

소 속 : 인제대학교 문리대학 교양학부

전자우편 : sklee@inje.ac.kr

성 명 : 김정임

소 속 : 고신대학교 직업재활학과

전자우편 : ijk0305@hanmail.net

성 명 : 양민철

소 속 : 부산외국어대학교 만오교양대학

전자우편 : redbaby486@gmail.com

성 명 : 김세진

소 속 : 부산외국어대학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박사수료

전자우편 : sejin@inje.ac.kr

투고일: 2018. 1. 25 / 심사일: 2018. 2. 1 / 심사완료일: 2018. 2. 8

결혼이주여성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중국출신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이채임

(울산대학교)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 2.1 가치관의 개념 및 특성
 - 2.2 선행연구
3. 연구방법
 - 3.1 연구대상
 - 3.2 자료수집 및 분석
4. 연구결과
5. 결론 및 제언

<Abstract>

Lee chae im. 2018. 1. 24. **A Study on the Value of the Marriage Immigrant Women**,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1, 155-178. The growing number of immigrant women in the globalization trend has created a new culture form in our society. This study aims to take a look at the values of Chinese marriage immigrant women living in Korea, and to establish what they seek as members of the Korean society and to be an important indicator of multi-cultural social integration. In an in-depth interview with four Chinese-immigrant women residing in the area of Busan, individual rituals, social ceremonies, and

cultural rituals related to value topics were conducted. They have experienced conflicts in real-life issues with the difficulties of communication and cultural differences in adapting to the Korean lifestyle, but have turned out to be positively acceptable. The most important assumption in family life was the unity and health of families, and the decision-making of the home was respected. The satisfaction of life showed a higher result than a Korean feeling of 8 points in the 10 point. To succeed in the Korean society, the Society has prioritized its ability to be more realistic and preferred a technical profession. by and large their cultural awareness of Korea was low they have kept in touch with their own societies and established identities only by cell phones, and it turned out to establish a transnational identity while bonds with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s.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study, it is hoped that the direction of the marriage will be able to further strengthen the value of education based on the attitudes and perceptions of women's lives and the value of change.(University of Ulsan)

[Key words] marriage immigrant women, values, rituals, multi-cultural societies1.

1. 서론

한국은 21세기를 맞이하여 국가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졌고,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의 숫자도 크게 증가하였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2월 기준으로 217만 명에 이르며, 이중 결혼이민자는 15만 명으로 중국 결혼이민자는 전체 37.1%를 차지하고 있다.¹⁾ 아시아 국가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증가하면서 우리 사회에 새로운 문

1)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7년 12월

화양식을 만들어 내고 우리의 가치관과 사고방식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결혼은 단순히 그들의 요구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들을 끌어들이는 우리 사회의 요인이 그들의 요구와 부합함으로써,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삶을 단지 그들만의 문제이거나 책임일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이 자신의 삶을 어떤 식으로 영위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사는 결혼이주여성²⁾들의 가치관을 살펴보고, 이들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다문화사회의 현 상태를 진단하고 미래 상태를 예측하여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가치에 관한 연구는 한 개인 내지는 전체가 욕구하거나 추구하는 바에 관한 것으로 그 사회 상황을 반영하거나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 변화 추이가 어떠한지 진단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가치에 대한 철학적 성찰은 다문화사회의 진정한 사회통합에 중요한 전제라고 본다.

우리의 다문화 관련 정책은 길지 않은 기간의 경험 속에 수립되어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 현실성 있고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초 연구 및 질적 조사를 강화하여 국가 수준의 대단위 중요도·만족도 조사 실시를 하여 정책의 방향을 모색할 시점이다.³⁾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사회를 자신의 꿈과 생존을 이룰 수 있는 제 2의 터전으로 기대하면서 이주해 오고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이주민에 대한 법제도적인 한계, 다수 시민의 소수 인종에 대한 차

2) 이 연구에서는 법무부의 기준 행정안전부의 기준을 포함하여 결혼 이민자는 결혼을 통해 3개월 이상, 1년 미만의 단기, 1년 이상의 장기 이민자를 포함하여 이들 중 여성과 한국국적 취득자녀를 포함한 용어로 사용한다.

3) 최정순(2014), 다문화 사회 전환에 따른 한국어언문학교육의 정책적 과제. 한국국어교육학회, <새국어교육> 101권 0호, pp. 401-436

별, 가족 안에서의 여러 가지 가정문제, 공동체에서의 일방적인 배려와 편입의 강요를 겪으면서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들은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들의 가치관의 변화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의 결혼과 가족제도는 전통과 관습에 절대적인 영향아래 있다. 이런 현상은 국제결혼과정에서도 여전히 남아 배우자의 국적을 한정하면서, 유교적 영향권에 있는 동남아 여성을 선호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혈통과 규범적 질서를 규정하고 우리의 결혼제도나 사회제도를 규정하면서 특히 남녀 역할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결혼생활의 갈등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급증하는 결혼만큼이나 이혼율 역시 빠르게 증가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국제결혼을 통해 맺어지는 가족 안에 다양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들의 의식세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제결혼은 단기간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서로에 대한 신뢰감도 부족하고 이질적인 배우자의 문화나 관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한다.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이 더욱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은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문화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가족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가정해체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⁴⁾ 두 개 이상의 다른 문화적 집단이 공존하는 다문화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의 문제는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새로운 타자를 수용하여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문제이다.

지금 한국에는 다문화사회라는 새로운 사회구조와 근대적 세계관에 바탕을 두고 잘못 적용된 자본주의 사회구조 간의 격심한 충돌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인종이

4) 김연수. 2007. 서울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행복감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 21권, pp. 217-252

나 민족 집단들의 문화를 단일한 문화로 동화시키지 않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존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가치체계이다.⁵⁾ 이는 문화적 다수집단이 소수집단을 동등한 가치를 지닌 집단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적 태도로 결혼이주여성의 새로운 가치관 형성의 문제 또한 다문화 사회를 함께 살만 한 사회로 만들어 가는 일이 중요한 과제이다.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사회 안으로 쉽게 동화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가정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여성이 혼인과 출산을 통해 남성 배우자의 가족 구성원으로 동화될 것이라는 부계 가족 이데올로기는 한국 사회에서도 이미 약화되고 있다. 상이한 인종·문화·종교를 가진 ‘타자’와 ‘나’에 대한 수용적 태도와 이해의 경험을 확장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가치관문제와 인식의 방향을 제시할 새로운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편협한 이해를 넘어서 우리 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결혼이주여성들의 개인의식, 사회의식, 한국에 대한 인식, 문화 및 가치관을 주제로 한국생활 거주기간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를 조사 연구하고자 한다. 결혼이주여성의 가치관을 통해 가족 안정성과 사회적응 정도를 알 수 있고 이러한 연구의 시도는 다문화사회를 위한 정책수립 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및 여성정책 분야의 귀중한 밑거름으로서 가정의 안정과 사회적응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2. 이론적 배경

2.1 가치관의 개념 및 특성

5) 윤인진(2008),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한국사회학>, 42(2), 72-103

심리학에서 가치란 일반적으로 의식구조의 하위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의식구조와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정의를 하자면, 인간 대 자연, 인간관계 등에서 바람직한 것과 바람직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일반화되고 조직화된 개념으로서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Kluckhohn, 1962)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과학자들은 가치를 생태학적, 제도적 조건의 산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생태학적 제약요인은 집단 간 가치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발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생태학적 요인이 개인의 생활 기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분명한 가치를 발생시킨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사회과학 내 다양한 분야의 가치에 대한 정의를 종합했을 때, 가치는 행위 또는 상태에 대한 인간의 선택이나 판단의 기준 또는 표준과 관련된 신념, 아이디어 또는 태도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가치관에 대해 Rokeach(1973)은 태도나 가치보다 더욱 일반화되고 조직화된 개념으로 인간 행동과 사고에 질서와 방향을 부여하는 원칙인 동시에 중심적인 신념이라고 하였다. 즉 가치관은 하나의 전체적인 체계이며, 개인이 가진 신념체계 가운데 중심적인 것이며, 또한 개인이 인간존재의 목표 상태에 대해서 추구해야 할 것과 회피해야 할 것을 구분해 주는 준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치관은 행동의 표준이나 지침, 선호의 기준 및 형가의 기능을 가진다.

정범모(1976)는 가치관을 여러 가지 인간문제에 관하여 바람직한 것 또는 하여야 할 것에 관한 일반적인 생각 또는 개념이라고 정의하고 가치관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하고 있다. 첫째, 가치관은 사람의 동기와 포부를 결정한다. 즉 사람이 무엇을 원하며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한다. 둘째, 가치관은 사람의 지각과 해석을 크게 좌우한다. 즉 사물과 장면과 상황을 보고 느끼고 해석하는 한 관점을 형성하게 한다. 셋째, 가치관은 사람들의 삶의 만족 및 삶의 의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넷째, 가치관은 사람들이 부딪치는 문제에 대한 좋고 나쁨의 평가 기준을 제

공한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수많은 일을 겪게 되며 이 일에 대해 평가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가치관은 이 평가의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시해 준다. 그리고 Kluckhohn와 Strodtbeck(1961)에 따르면, 가치관은 인지적, 정서적, 그리고 방향성을 갖는 평가 틀로서 인간의 행동과 사고에 질서(일관성)와 방향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가치관은 일종의 “좋다”, “나쁘다” 라는 평가적 요소를 가지며, 행동의 방향과 동기에 영향을 주는 심리학적 개념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가치관은 인간행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행동의 직접적인 압력보다는 일종의 중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행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치관의 형성 및 발달과 관련하여 최근 대표적인 이론적 설명은 Mckinney(1973, 1975) 등에 의해 제안되고 있는 지각적 해석이다. 그는 가치관 형성에 있어서 행동 주체인 당사자의 ‘환경에 대한 지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능동적인 주체자로서의 인간은 주위환경에 있는 자극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행동을 통해 받아들이며, 이에 대하여 환경은 또 다시 그 행동의 결과를 자기 자신에게 피드백하게 된다. 이때 환경의 피드백에 따라 개인의 가치관이 형성된다.

개인의 가치의 측정과 관련하여 콘버스(Converse, 1964)는 신념체계는 극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를 측정한다는 것은 어렵고, 확고한 태도가 없기 때문에 피상적인 대답을 하거나 편리한 대로 응답하는 경향이 있어 측정에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질의 자료 확보를 위해 심층면접과 설문지를 병행하여 측정하고자 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생활 적응과정에서 모국과 다른 주위환경의 자극으로 의식의 변화에 급격한 영향을 받아 가치관이 형성될 것이며, 모국에서 형성된 정체성은 한국문화 가치체계의 해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혼이주여성의 가치관의 연구는 다문화사회 통합에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2.2 선행연구

국내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최근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시작되어 왔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결혼이민자들의 인권과 문화적 차이의 갈등 및 국제결혼의 문제점과 원인(이혜경, 2005; 김오남, 2006)에 관한 연구와 문화적응 과정에서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이영애, 2010; 이지영, 2012)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주제 역시 제한된 영역에 머물러 있으며, 실태조사 수준에 머무르는 연구 결과들이 산발적으로 제시되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생활 적응과정 중 사회와 가정에서 경험하는 갈등과 스트레스에 초점을 두고 적응 방안을 제시할 뿐 이들의 한국 문화 인식을 기초로 한 가치관에 대한 모색은 미흡하다.

박정희(2014)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사회로서 자율적 가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박선규(2008)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사회적 편견과 시선이고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시민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이들이 처한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들이 고려된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2007: 172-173)에서 여성결혼이민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삶의 만족 수준은 10점 만점 척도에서 평균 6.76점으로 중간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산출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을 단일 문항으로 측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어 후속연구를 통한 보완이 요구된다.

원서진 외(2011)는 결혼이주여성의 개인적, 문화적, 사회적 특성이 결혼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 결과를 논의하였다. 연구 결과, 가족가치관과 의사결정권의 관계에 있어서 과거에 가족 내 의사결정권이 남편에서 편중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부부간의 공동결정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가부

장적 가치관이 약화된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기존의 문화적 및 사회적 특성 뿐 아니라 결혼이주여성의 의식의 변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 논의할 필요성이 있으리라 사료된다.

이광자 외(2001)는 정보화 사회에서 한국인들의 의식과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 변화에 따른 가족관계의 변화에서 부부관계는 점차적으로 민주적이고 평등한 관계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가정 내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실제로 우리나라 여성들 중 부부간의 의사결정이 공평하게 이루어진다고 보는 사람이 74.0%로 절대다수이다.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며, 그 다음이 부부간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가족들이 부부관계에서 보다는 주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가족생활의 만족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따라서 중국출신 결혼이주여성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는 중국과 한국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언어와 풍습을 공유한다는 이유로 한국인과 유사한 가치관을 형성할 가능성에 초점을 두었다. 이들이 한국 사회의 사회구조망 안에서 개인의식, 사회의식, 문화의식이 어떠한 변화 과정을 형성해 나아가는지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현재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으로

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생활하는 중국출신 여성이다. 법무부 통계⁶⁾에 따르면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출신국은 한국계를 포함한 중국이 37.6%, 베트남 27.4%, 일본 8.6%, 필리핀 7.6% 순으로 상위 1위로 중국출신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연구 대상자를 중국출신 여성으로 한정하여 연구 조사를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⁷⁾의 협조를 구하고, 이 기관을 이용하는 결혼이주여성 가운데 자발적으로 심층면담 참여에 동의한 중국출신 4명(한국계 중국여성 2명 포함)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2016년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개별 심층면담 참여에 동의한 중국출신 4명(한국계 중국여성 2명 포함)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2016년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개별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면접시간은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제약을 두지는 않았으며, 참여자에 따라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대상자의 동의하에 녹음한 면접 내용을 문서화하여 범주별로 제시하였다.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 대상자를 위하여 중국어로 번안된 자료를 제시하였으며 한국어 실력을 갖춘 대상자는 한국어로 된 자료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면담 자료는 가치관 주제와 관련된 정부보고서⁸⁾, 연구논문⁹⁾ 등의 자료를 의도에 맞게 해석하여 조항을 준비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가치관의 변화가 거주기간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국내 거주기간을 기준¹⁰⁾으로 질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심층면담으로 진행하였으며, 면접방식은 반구조화된 면접법을 활용하였다.

반구조화된(semi-directive) 방식이란 개방형 질문으로 답변의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 놓되 연구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보충하거나 이야기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면접진행과정에서 연구자의 부분적인

6)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7년 12월

7) 기장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8) 2008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참고

9) 이광자 외(2001), 현대 한국사회와 가치관의 변화: 여성과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여성연구논총, 서울여자대학교 여성연구소.

10)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실태조사가 3년 주기임을 참고하여 2년 미만과 5년 이상을 기준으로 함.

개입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Paille & Minchill, 2003). 이 방법은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과 생각, 느낌을 특정한 질문형식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면접과정에서 개인적인 경험과 그 의미 등을 풍부하게 드러낼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이민경 2013, 재인용). 또한 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정확한 생각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면담을 시작하기 전부터 라포 형성을 위해 비공식적인 만남을 가졌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은 다음과 같다. 면담에 참여한 인원은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출신 결혼이주여성 4명으로 읍면지역에 거주하며, 학생을 제외한 대상자 전원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참여자 A는 유학생으로 입국하여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경우로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참여자 B의 경우는 재혼으로 중국에서 남편을 만나 한국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요식업종에서 근무하고 있다. 참여자 C는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가 1명 있으며, 중국인을 상대로 화장품 판매를 한다. 참여자 D는 한국국적 취득을 하였으며, 초등학교 자녀 1명이 있으며 통역사로 활동하며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상자 중 참여자 A, B는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고, 참여자 C, D는 6년 이상으로 조사 연구를 통해서 거주기간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 양상에 주목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표 1 심층 면접 대상자>

대상자	연령	한국 거주기간	직업	결혼
연구참여자 A	24(한국계)	1년 8개월	대학원생	초혼
연구참여자 B	37	2년	서빙	재혼
연구참여자 C	37	6년	판매원	초혼
연구참여자 D	45(한국계)	12년	통역사	초혼

3.2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을 토대로 가치관을 개인/가족, 공동체, 사회 수준으로 구분하고 관련성이 높은 정도에 따라 하위범주를 구성하였다. 결혼이주여성 대상에 맞게 개인의식, 사회의식, 문화에 대한 인식에 대한 설문문항을 재구성하였으며, 모든 과정은 질문하기와 지속적으로 한국인의 가치관과 비교하기를 통해 결과를 분석하였다.

<표 2 개인의식과 관련된 조사 내용>

대분류	소분류
가정생활	가정생활에서 중요한 것/가족간 유대감/전통적 가족관념/아이행복과 부모존재
결혼 및 부부생활	결혼필요성/배우자 선택 시 중요요소/가정 내 의사결정권/이혼인식
부모와 자녀	희망자녀 수/아들딸 선호도/자녀입양/부모의 자녀체벌
행복	삶의 행복도/행복에 있어 분야별 중요 정도/분야별 행복도

1. 가정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 가지만 말씀하여 주세요.

2. 고민거리가 있을 때, 주로 누구를 찾습니까?

3. 배우자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4. 만약 자녀를 한 명만 가져야 한다면 남자 아이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5. 삶에서 행복하거나 불행하다고 느끼시는데 다음 각각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생활/자녀/배우자/건강/재산/직장생활/문화·여가생활

<표 3 사회의식과 관련된 조사 내용>

대분류	소분류
사회일반	경제수준 대비 사회복지 수준/노후대비 방안/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태도/한국 남녀평등 정도/출산 장려를 위한 정부의 지원사항
사회적 자본	가장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사람에 대한 신뢰도/이웃 경조사 참여 정도/ 단체 참여 정도/ 단체 활동 참여가 개인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
교육과 직업	대학교육과 평생교육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교사 체벌에 대한 공감도/직업 선택 시 고려사항/직장생활을 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자녀가 갖기를 원하는 직업

1. 외국인 근로자도 한국 근로자와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2. 한국사회는 부정부패가 많다.
3. 한국의 교육환경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4. 한국은 외국인이 살기 좋은 나라이다.
5. 평상시 이웃과의 관계, 사회단체활동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표 4 문화에 대한 인식>

대분류	소분류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	한국문화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한국문화에 대한 관심 정도/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한국 문화나 브랜드
여가생활에 대한 인식 및 실태	문화여가활동 빈도/문화여가활동 선호도/문화를 즐길 수 있는 여건/건강을 위해 규칙적으로 하는 일이나 운동이 있는지 여부
매체에 대한 인식과	세상 소식을 주로 얻는 매체/가장 신뢰하는 매체

이용 행태	/매체 이용 빈도
-------	-----------

1. 한국에서 자랑할 만한 문화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2.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가장 하고 싶은 문화 여가 활동은 무엇입니까?
3. 인터넷을 통해 주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십니까?
이메일/홈쇼핑/티켓예매/정보검색/메신저/커뮤니티/게임/사이버교육/음악·동영상정보
4. 건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5. 가장 신뢰하는 매체는 무엇입니까?

4. 연구 결과

인간의 삶은 단순히 개인적 행위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상호작용하면서 변화되는 것으로 개인과 사회의 관계는 상호 밀접한 영향 하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변화가 급격할수록 서로 이질적인 세대의 경험으로 인해 세대간 의식과 가치관, 행동양식이 다르게 나타난다(조성남 외, 2000). 본 연구의 심층면접은 특정 국가 여성들의 한국 거주 이전의 가치관에 대한 연구결과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그들의 한국 입국 이전의 일상과 생각(가치판단)을 나누려는 많은 시도를 하였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처음 한국으로 이주해 올 당시, 본국에서 한류 영향으로 한국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와는 다른 경제적 위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선망과 물질적인 여유로움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현실적인 문제에 갈등을 경험하지만 긍정적

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보였다. 특히 한국계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인과 민족적 동질성에서 한국 생활에 대한 적응 양상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아진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인과 같은 동포로 여기지만 한국인은 중국동포는 중국인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폄하의 시선이 존재한다고 여겨 한국 사회에 대한 불만이 나타나고 있었다.

직장생활에서 직무조건과 보수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로 차별받는 현실을 경험하며 이중고의 어려움이 있었다. 한국은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복지제도가 좋고, 여러 방면에서 생활 조건은 선진화되어 있다고 여기고 있었지만 한국 국적 취득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었다. 한국의 교육 환경에 대한 인식은 높은 교육열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과 불안감으로 가족과 함께 모국으로 이주할 의지를 보이는 대상자도 나타났다. 일부 대상자는 한국에 처음 올 때 기대한 경제적 풍요로움에 대한 열망을 여전히 가지고 더 나은 직업에 희망을 걸고 한국에서 터전을 갖고 사는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본 인터뷰 과정에서 연구대상자로부터 개인의 가치와 경험에 치중한 한국생활의 다양한 측면들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들의 의식과 가치관을 개인의식, 사회의식, 문화의식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4.1 개인의식

연구참여자 B : 가족끼리 서로 마음이 통할 때 가장 행복해요.

연구참여자 c : 저는 고민거리가 있을 때 남편보다 친구들과 자주 이야기해요. 친구나 주변 사람들한테 고민을 얘기해서 답을 얻을 때가 많아요.

연구참여자 D : 회사나 가족 모임은 남편과 의논해서 결정하지만 생활비 지출은 제가 알아서 해요. 아이 학원도 제가 생각해서 결정해요.

연구참여자 A : 건강한 아기면 아들, 딸 상관없어요. 자녀는 한 명이면 돼요. 한국에는 아이를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입양도 나쁘지 않아요. 남편과 생각이 같으면 할 수 있어요.

결혼이주여성은 가정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족 간의 화합과 건강이라고 응답했다. 연구자가 가족의 경제적 안정이나 성공, 가정 내 질서와 권위 등 다들 분야도 제시하였지만 대상자들은 모두 화합과 건강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였다. 가족 간의 유대감에 관한 질문에서는 고민거리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가족들에게 의지(依支)는 하지만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친구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意志)가 보였다.

결혼에 대한 인식은 ‘반드시 해야 한다’ 는 응답은 없었으며, 대상자 전원 ‘가능한 하는 것이 좋다’ 는 응답으로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선택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A의 경우 미혼일 때는 결혼의 필요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했으나 현재 결혼생활에 높은 만족도로 오히려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 배우자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성격’ 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국제결혼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와 대화를 통한 소통의 중요성을 반증한다.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의 경우 ‘성격’ 의 중요도는 감소 추세인 반면 ‘경제력’ 이나 ‘장래성’ 이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¹¹⁾로 볼 때 결혼이주여성과는 상

11)2008년 한국인의 의식 · 가치관 조사

	배우자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것 (단위: %)			
	1996년	2001년	2006년	2008년
성격	73.0	66.0	54.8	55.0
경제력	5.4	10.7	15.6	17.3
자라온 환경	9.2	11.7	12.7	11.5
장래성	5.4	6.7	7.2	9.9
종교	3.4	1.7	4.1	2.1
외모/성적매력	0.9	1.2	1.4	1.3
학력/지적수준	1.2	0.7	1.4	1.1

이한 점이 있다. 연구대상자A는 결혼 전 배우자 선택 시 한국에서 풍족한 결혼생활에 대한 기대로 배우자 선택 시 중요한 것은 경제력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재는 ‘경제력’ 보다 ‘성격’ 이 우선시 된다고 응답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가정 내 의사결정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대상자B의 경우는 남편 월급으로 한국 금융권의 금리가 낮아 중국 은행권에 투자를 하고 있다며 남편이 자신에게 경제권을 맡긴다고 말했다. 가족행사나 모임에서 아내의 참가 여부 또한 아내의 의사가 존중되고 있다.

자녀선호도에 대한 인터뷰에서 자녀를 한 명만 가져야할 경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중 선호하는 성을 물어본 결과로 대부분 ‘상관없다’ 는 응답으로 결혼이주여성에게 남아선호현상은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연구대상자D의 경우는 태아의 성별에 따른 선택적 출산에 찬성하며 남자 아이를 선호한다고 응답을 한 것으로 보아 한국에서 10년 이상 장기거주자로 한국의 전통적 가치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본인 삶에 대해 느끼는 행복에 대한 응답으로 볼 때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서 8점으로 한국인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 6.9점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 만족이 되지 않는 이유는 취업, 자녀양육에 대한 고민이 원인으로 가정생활에서 본인 직업의 유무와 자녀양육이 행복도와 상관관계가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연구대상자D의 경우는 다문화가정 멘토링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참여로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으며, 다각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자녀와의 관계가 가정생활의 만족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한국여성과 다르지 않은 결과이다.

취미/기호	0.2	0.9	0.6	0.7
기타	0.5	0.4	2.3	1.1
합계	100.0	100.0	100.0	100.0

4.2 사회의식

연구대상자D : 한국은 능력 있으면 성공해요. 취직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중국은 판시(연줄)중요해요. 아는 사람을 통하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연구대상자C :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에서 돈 벌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니까 한국 사람과 다르잖아요. 대우가 다른 건 당연한 거예요. 한국 국민이 아니잖아요.

연구대상자A : 한국 사람은 외국 사람한테 대부분 친절해요. 하지만 이중성이 있어요. 앞에서는 친절하지만 안 보이면 나쁜 말도 많이 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몰랐는데 지금은 알아요.

사회의를식에 대한 응답은 한국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연줄이나 집안 배경보다는 본인의 능력이 더 중요하고 믿으며 한국을 개인의 능력을 인정하는 건전한 사회로 인식하고 있다. 직장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도 현실적인 인간관계보다 본인의 능력을 우선시하였고 기술직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결혼이주여성으로서 바라보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의식에 대한 질문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도 한국 근로자와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진술에 얼마나 공감하는가의 질문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 대우의 정당성을 한국에 정주하지 않는 이유로 꼽았다.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 여성은 한국에 정착하여 사는 외국인이지만 근로자의 경우는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이기에 한국 근로자와 다른 대우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인의 의식 조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에서 ‘그렇다’ 라는 응답이 76%인데 반해 결혼이주여성의 의식과는 상이한 결과이다.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에서 한국인의 이중성을 지적했다. 외국인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 이면에는 폐쇄적인 태도가 있음을 인식했으며 이는 한국인의 의식 조사결과에서도 ‘한국인은 외국인에

대해 폐쇄적이다 63.2%’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의 빈도를 알기위한 질문에서 이웃의 경조사 참석은 가정생활의 일부분으로 갈등을 빚은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연구대상자D의 경우는 직장생활 6년 차로 경조사 참석에 대한 금전적인 부담과 현실적인 인간관계의 중요성에서 갈등을 경험하면서 경조사 문화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국에서 거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한국인의 사회생활과 유사한 인간관계 패턴이 형성됨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4.3 문화에 대한 인식

연구대상자B : 한국 문화하면 드라마가 생각나요. 중국에서도 드라마를 많이 봤어요. 한국에 유명한 문화가 뭐예요?

연구대상자A : 한국에 있지만 중국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연락도 해요. 중국친구들 모임에 가면 한국 생활에 도움이 돼요.

연구대상자C : 남편은 일요일도 출근하는 날이 많아요. 여행을 가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요. 쉬는 날에도 남편은 TV를 많이 봐요.

응답자 전원이 대체로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해 관심이 저조하고 현재 향유하고 있는 대중문화나 문화여가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여가활동을 구분 짓는 중요한 요인은 금전적인 요인과 시간적 요인으로 부여한다면 현실적으로 남편의 직장생활은 시간적 여유가 없어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편이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정보매체는 TV와 인터넷으로 신뢰 수준이 높고 한국인의 여가생활과 유사한 결과이다. 한국의 자랑할 만한 문화 브랜드로는 드라마, 가수를 꼽았는데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에 대한 질문에서는 한글, 김치에 대한 우수성은 결혼여성 이민자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느끼고 있지 않았다. 한국인은 세계에서 자랑할 만한 우리나라 문화 브랜드로 한글과 김치라고 응답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한국 문화가 우수하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응답이 보였다.

세상의 소식을 접하는 매체로는 휴대폰 사용으로 응답했다. SNS를 통한 사회연결망은 강한 사회적 자본으로 개인에게 보다 긍정적인 효과로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로 작용했다. 이러한 연결망은 자신들의 문화적 특성이나 관습을 유지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한국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대상자 C, D의 경우에서 다양한 직업 종사자와 가까이 알고 지낸다는 응답에 따라 한국 거주기간에 따라 사회연결망이 커지는 편차를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는 채팅으로 모국의 가족과 소통하며 정서적인 안정을 찾고 자신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이 초국적 정체성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여 한국의 사회통합정책에 현실적이고 타당한 방안이 요구된다.

사회단체활동 참여는 지역사회 내에 형성된 동포 모임으로 한국 사회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결혼생활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응답자 전원 참여하고 있었다. 그들은 한국 생활을 하면서 동변상련의 입장에서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여기며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도우면서 적응을 도모한다. 연구대상자 D의 경우는 종교단체의 참여가 가족관계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정서적 자원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및 제언

최근 한국 사회는 결혼이주여성의 증가에 따라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국제결혼은 점차 새로운 문화양식을 만들어 내고 우리의 가치관과 사고방식까지도 영향을 미치

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생활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문제 뿐만 아니라 가족간의 갈등, 정체성의 혼란, 등 이러한 문제는 한국사회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특히 중국출신 결혼이주여성은 현재 가장 높은 비율로 한국에 정착하여 자녀양육을 책임지는 중요한 사회구성원이다. 한국에 적응하면서 다양한 가치관이 어떻게 인식되어 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다문화사회에서 이들과 공존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소중한 연구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심층면접을 통한 결과에서 한국인과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태도에서 개인의식과 사회의식, 문화에 대한 인식이 한국인과 대동소이한 결과로 보인다. 한국사회의 다문화상황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한국인과 동화되어 가는 의식이 드러났다.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에 따른 표면적인 의식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연구대상자 전원 한국 사회에 주변인이 아닌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현실의 갈등과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소수의 연구대상자의 결과로 중국출신 결혼이주여성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보기에 한계가 있다.

이번 조사연구는 매우 제한된 지역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므로 이들이 인식하는 한국에 대한 인식의 조사결과가 우리 사회에 거주하는 이민자 전체가 바라보는 관점으로 보기에 많은 한계가 있다. 이주민 형태, 대도시와 농촌 거주 등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혼이주여성의 가치관에 대한 인식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향후 전국적 범위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태도와 인식 및 변화된 가치에 따라 어떤 가치교육¹²⁾을 더욱 강화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 설정이 가능하리라 본다. 후속 연구로 가치관의

12) 이와 관련한 연구로는 박정희, 「변화와 포용으로서의 문화사회에 대한 가치교육」 『철학논총』 78 (2014)이 있다.

변화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한 연구를 활용하여 이주민의 문화적 적응과 사회 통합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한국인의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사회적 캠페인을 시행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참고문헌

- 김성금(2015). 탈근대적 가치탐색을 통한 다문화교육의 방향성 설정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오남(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족과 문화> 18권 3호, 한국가족학회. 63쪽~106쪽.
- 문화체육관광부(2013).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의 이론적·방법론적 틀 구축에 관한 연구.
- 박기관(2009). 다문화시대 결혼이민자의 실태와 정책과제.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87쪽~106쪽.
- 박정희(2014). 변환과 포용으로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가치교육, 새한철학회, <철학논총> 78권, 새한철학회. 327쪽~346쪽.
- 손동현·홍경남·백송이(2013). 한국 대학교 가치관 교육의 개선 방향에 관하여, <교양교육연구> 7권 1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59쪽~294쪽.
- 이광자 외(2001). 현대 한국사회와 가치관의 변화: 여성과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여성연구논총> 16권, 서울여자대학교 여성연구소. 3쪽~22쪽.
- 이민경(2013). 접촉시대에서의 갈등과 협상, <한국교육학연구> 19권 2호, 안암교육학회. 219쪽~247쪽.
- 이혜경(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28권 1호, 한국인구학회. 73쪽~106쪽.
- 임경희(2014). 결혼이주여성의 선별적 편입과 배제 그리고 유교적

- 공존의 가능, <여성연구논집> 25권,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81쪽~101쪽.
- 원서진·송인옥(2011). 결혼이주여성의 개인적, 문화적, 사회적 특성이 결혼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6권 2호, 한국가족복지학회. 95쪽~113쪽.
- 정범모(1976). 『가치관과 교육』, 서울: 배영사.
- 정현주(2009). 경계를 가로지르는 결혼과 여성의 에이전시:국제결혼이주연구에서 에이전시를 둘러싼 이론적 쟁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2권 1호, 한국도시지리학회, 109쪽~121쪽.
- 조성남·윤옥경(2000). 가치관과 행위양식의 세대간 차이와 유사성, <사회과학연구논총> 5권,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03쪽~135쪽.
- 차윤정(2015). 한국 생활의 경험과 결혼이주여성의 언어 의식 변화, <코기토> 77호,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23쪽~251쪽.
- 최정순(2014). 다문화 사회 전환에 따른 한국어교육정책의 과제, <새국어교육> 101권, 한국국어교육학회. 401쪽~436쪽.
- 한덕웅·이경성(2003). 한국인의 인생관으로 본 가치관의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권 1호, 한국심리학회. 49쪽~67쪽.
- 한상철·김영한(2003) 청소년 가치관 조사: 인생관, 가정관, 교육관, 직업관, <교육학논총> 24권 1호, 대경교육학회. 55쪽~79쪽.
- Kluckhohn, F. R, Strodtbeck, F. L.(1961). *Variations in value orientation*. N. Y: Row, Peterson.
- Mckinney, J. P.(1973). The structur of behavioral values of college student. *Journal of Psychology*, 85, pp.235-244.
- Mckinney, J. P.(1975). The development of values: A perceptual interpretation. *Journal of Personailty and social Psychology*, 5, pp.801-807.

Rokeach, M. (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s*, New York: Free
Pree.

필자 소개

성 명 : 이채임
소 속 : 울산대학교 국제교류처
전자우편 : sunar2010@daum.net

투고일: 2018. 1. 24 / 심사일: 2018. 2. 1 / 심사완료일: 2018. 1. 3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분석과 다문화교육 방향 모색

전수현
(동아대학교)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 2.1 북한이탈주민의 정의와 입국 현황
 - 2.2 북한이탈주민의 유형별 특징
 - 2.3 선행연구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조사
 - 3.1 조사대상 선정기준 및 조사방법
 - 3.2 청소년 인터뷰 세부내용
4. 분석결과 및 시사점
 - 4.1 인터뷰 분석결과
 - 4.2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위한 다문화 교육 방향 모색
5. 결론

<Abstract>

Chun Su Hyun. 2018. 1. 14. **Analysis of adolescents' perceptions of defectors and the direction of multicultural education,**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1, 179-203. Korea is the only divided nation in the world. According to the preliminary report of the Ministry of Unification in September 2017, the total number of defectors is 31,093. In order for South Korea to overcome the conflicts between the two Koreas

and to prepare and achieve unified Korea in the near future, it is very necessary to understand and study the reality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ir suffering due to alienation,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that they feel in South Korean society. This will be reflected and helped in the multicultural research and education of Korea, which is rapidly progressing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The number of North Korean refugees is increasing and is being influxed into South Korean society by various age groups such as age and education. As a result, education and systems for North Korean defectors are available, but no education is provided at the educational sites related to their understanding and North Korean defectors. It is enough that the school district grasps the number of students at each school every semester. In fact, most young people in middle and high school do not even know the term "defectors", and they do not know what reason and process they come to Korea to settle and live in. Most of them do not know about the reality of defectors.

In this study, we interviewed 8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Busan city to find out how young people think about defectors, what kind of educational and understanding efforts they have made, It aims to find educational implications for students in society.(Dong-A University)

[Key words] North Korean defector, Educational implication, Multicultural Education

1. 서론

북한이탈주민이 3만 명이 넘어서면서, 한국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사람들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사회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함께 살아하는 방법을 찾기 위한 논의가 부각되고 있다. 특히 다문화 연구와 교육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다문화가 학문적으로 크게 나타나면서 다문화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다문화 사회에서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을 다문화에 포함시키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늘어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낯선 한국사회에서 적응하면서 새롭게 살아가는 관점에서 비추어 볼 때 북한이탈주민의 정책, 교육이 크게 보면 다문화 정책과 교육에 대한 연구에 있어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연구에 임하고자 한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2017년 9월 통일부 잠정집계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수는 총 31,093명으로 파악된다. 한국이 진정한 남북한의 갈등을 넘어서고 앞으로 다가올 통일한국을 준비하고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이탈주민의 현실과 그들이 남한사회에서 느끼는 소외감과 차별, 편견으로 인한 고통의 이해와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 이는 다문화 사회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다문화 연구와 교육에도 반영되고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연령과 학력 등 다양한 계층에서 남한사회로 유입되고 있다. 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그들에 대한 이해와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교육현장에서 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청에서 각 해당 학교를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인원 파악 정도만 매학기 이루어지는 정도이다. 실제로 중·고등학교 청소년 대부분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조차 잘 모르고 있고, 그들이 어떤 이유와 과정으로 한국에 와서 정착하고 살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며, 북한이탈주민의 현실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북한이탈주민 같은 한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질감과 반감과 편견이 크며, 어른에 비해 개방적일 것으로 여겨지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들에 대한 생각과 인식은 부

정적일 것이라 예상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오해는 우리 사회에서 갈등과 문제점을 야기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간과한다면, 더 큰 문제와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사회의 상황과 현실을 놓고 보면 더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연구는 부족했고, 한국의 다문화교육 연구에서조차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무지하고 편견이 크며, 이러한 인식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적 연구와 논의가 매우 부족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조사하여 그 양상을 확인하고, 요인을 분석하여 교육적으로 시사하는 바를 찾고자 한다. 부산시내 중·고등학생 8명의 인터뷰를 통해 청소년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교육과 이해를 위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경험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교육적인 방법을 찾고, 다문화 사회에서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교육적인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그와 더불어 청소년들과 우리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어울려야 할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위한 다문화교육 방향까지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북한이탈주민의 정의와 입국 현황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국적자가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으로 입국한 후 정해진 절차와 교육을 받은 후 한국에 정착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 통계청에서 밝히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의미는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자”¹⁾를 말한다. 유사한

개념이지만 “재북화교²⁾, 북한적 중국동포³⁾,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⁴⁾는 탈북민이 아닌 사람이다” 라고 「통일부 2017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에 명시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공식 용어가 사용되기 전까지 지칭하는 용어는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귀순용사, 탈북자, 새터민 등으로 다양하게 불렸다. ‘탈북자’라는 용어가 부정적 이미지를 나타내서 ‘이주민’이라는 용어를 대체했고, 2004년 ‘새터민’을 공식 용어로 선정했다. 이후 법개정이 이루어지고 법률상 ‘북한이탈주민’을⁵⁾ 사용하고 권장하였다. 본 논문에서도 북한이탈주민 용어를 사용한다.

북한이탈주민은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자연재해와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식량난이 심각해지자 중국으로 탈북하는 숫자가 급증하였다. 이들 중 일부가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면서 북한이탈주민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통일부에서 발표한 통계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표1>과 <표2>를 살펴보면, <표1>에서 보는 것과 같이 1990년대 말부터 매년 1,000명 가까이 넘게 국내로 들어왔고, 2001년도부터는 매년 1,000명을 넘었다. <표2>는 2011년 이후 입국자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2011년에는 2,706명이 입국하였다. 그러나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북중 접경지역의 단속 강화로 북한이탈주민 숫자가 급감하였다. 2017년 9월 통일부 잠정집계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수는 총 31,093명으로 파악된다.

-
- 1)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2조 1항
 - 2) 북한에 거주하나 중국 국적 보유
 - 3) 북한 국적을 보유하나 중국 거주
 - 4) 북한주민의 자녀로서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하여 북한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
 - 5) 2017년3월21일 일부개정해서 9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약칭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이탈주민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표1 1998년~2009년 입국인원>(2017년 9월말 기준 현황)

구분	' 98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남(명)	831	565	510	474	626	424	515	573	608	662
여(명)	116	478	632	811	1272	960	1513	1981	2195	2252
합계 (명)	947	1043	1142	1285	1898	1384	2028	2554	2803	2914
여성 비율 (%)	12	46	55	63	67	69	75	78	78	77

<표2 2010년~2017년 입국인원>(2017년 9월말 기준 현황)

구분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9	합계
남(명)	591	795	404	369	305	251	302	153	8,958
여(명)	1811	1911	1098	1145	1092	1024	1116	728	22,135
합계 (명)	2402	2706	1502	1514	1397	1275	1418	881	31,093
여성 비율(%)	75	70	72	76	78	80	79	85	71

2.2 북한이탈주민의 유형별 특징

북한이탈주민의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여성북한이탈주민의 증가이다. 1998년 이전까지 여성의 비율은 12% 뿐이지만, 2000년대 들어와서 여성 비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2002년부터 남성보다 그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했다. 2015년에는 80%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가족단위의 탈북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7년 통일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전에는 대부분 북한이탈주민이 남자였고 가족이 아닌 단독인 경우가 많았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가족이 함께 입국하거나 가족 중 한명이 먼저 한국에 와서 정착한 후에 다른 가족들이 탈북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 연령대별 입국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2016년 6월 기준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대별 현황을 살펴보면 20-39세 비율이 반 이상을 차지한다. 청년층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다른 연령층과 비교했을 때 탈북시 이동이 용이하고 정보력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 그 능력이 높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표3 통일부 연령대별 입국 현황>(2017년 9월말 기준)

구분	0-9	10-19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계
남	633	1592	2461	2058	1315	504	328	8,891
여	625	1961	6308	6873	3995	1210	936	21,908
합계 (명)	1258	3553	8769	8931	5310	1714	1264	30,799

세 번째는 학력별 현황이다. 북한이탈주민은 중학교 졸업 이하가 대부분이고, 직업별로는 노동자나 무직이 전체의 86%이다. 이에 반해 전문직 종사자는 2.2% 불과하다.

<표4 재북 학력별 입국현황>(통일부 2017년 9월말 기준)

구분	취학전 아동	유치 원	인민 학교	중학 교	전문 대	대학 이상	무학	기 타	계
남	414	135	757	5120	767	1017	353	28	8,891
여	398	194	1319	16134	2189	1112	491	71	21,908
합계 (명)	812	329	2076	21554	2956	2129	844	99	30,799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루트는 두만강이나 압록강 지역인 북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또 다른 형태로는 해외근무 중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중국으로 정상 방문하여 제3국으로 입국을 하는 형태이다. 시기와 관련해서는 두만강과 압록강이 얼어

도강하기 쉬운 가을과 겨울에 많이 탈북하고, 이에 반해 여름은 홍수나 장마로 국경을 넘기가 어렵다. 그러나 2009년 김정은이 등장하면서 국경 수비지역에 철조망과 감시탑 설치가 강화되면서 북한 이탈주민들은 국경경비원을 금품으로 매수하거나 국경지역 브로커를 통하는 방법으로 탈북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2.3 선행연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선행연구들을 통해 알아보았다. 북한이탈주민이 늘어나면서 그들에 대한 연구도 활성화되고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그러나 기존연구들은 북한이탈주민 자체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많았다. 북한이탈주민을 통해서 북한의 상황이나 인권문제를 논하거나 탈북 이후 남한사회 정착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에 반해서 내국인들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의 결과로 사회, 문화, 정치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결과를 내포하는지 등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다시 말해 한국 사람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성 측면에서 분석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내국인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그들과 접촉을 했느냐 안했느냐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과 접촉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는 동정심과 함께 부정적인 이미지와 정서를 갖고 있다(김영수 1998; 정기선 1999; 양계민·정진경 2005). 업무상 북한이탈주민과 접촉 경험이 있는 경우 보호경찰관, 신변보호담당관 등은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고(양계민·정진경 2005), 반면 대안학교 교사는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양계민·정진경 2005).

특정한 집단이 아닌 일반적인 내국인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연구한 것으로는 권수현(2011), 손애리·이내영

(2012)이 있다. 이명진(2010)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07년 한국 사회 다민족·다문화 지향성 조사자료를 근거로 다문화시대를 맞은 한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를 다루면서 북한이탈주민을 외국인, 이주민에 포함시켰다. 박명규(2016)는 2015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실시한 통일의식조사의 결과를 분석하면서 남한주민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선행연구들에서 내국인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면, 이명진(2010)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연력이 높을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줄어들었다. 권수현(2011)과 손애리, 이내영(2012)은 종속변수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일 때와 북한이탈주민 수용성일 때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수가 달라졌다. 권수현(2011)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과 관련해서 경제적 요인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요인이라 할 수 있는 민족 정체성과 정치적 요인인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였다. 다시 말해, 민족적 정체성이 높을수록,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일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고 경제 상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성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애리와 이내영(2012)은 한국은 북한이탈주민을 한민족 동포로서의 인식보다는 한국에 온 이주민으로서 인식할 때 더 친근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북한이탈주민 대량수용에 부정적이고, 학력이 높을수록 대량수용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규(2016)는 북한이탈주민과 직간접적인 접촉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들에 대한 친근감이 높았다. 그리고 북한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협력과 지원대상으로 보는 응답자들은 북한이탈주민

을 더 친근하게 느끼는 반면, 경계와 적대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우 북한이탈주민과 거리를 두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도가 감소한다고 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줄어들지는 않았다.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조사

3.1 조사대상 선정기준 및 조사방법

본 연구는 부산시 동래구에 소재한 3개의 중·고등학교에서 재학중인 청소년 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으로 중·고등학생을 선정한 이유는 현재 진행되는 교육과정에서 어느 정도 사회교육과 세계시민으로서 가치와 태도에 대해 배우고 익혔을 것이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학습을 했을 것이라 판단되었다. 또한, 효과적인 인터뷰와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언어적인 표현력이나 균형 있는 시각과 이해력 갖춘 중·고등학생이 적합할 것으로 보았다. 하나의 특정 주제에 대해 8명의 참가자들이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전개하였다. 8명의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모든 참여자들의 반응을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친밀하고 익숙한 면접 분위기 형성을 위해 또래집단 친구들을 대상으로 했고 같은 지역에(부산 동래구) 비슷한 가정환경과 경제적 수준에서 자라고 있는 청소년들로 본 연구자가 가르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간단한 단답형 질문⁶⁾과 개방형 질문을 적절히 혼용하여 참여자들의

6) 단답형 질문 사항은 정연중(2002)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주민의 인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과 신미녀(2010)의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상호인식을 통해 본 통일준비, 사회과학연구 제19집 1호 설문지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①북한이탈주민을 만난적이 있나? ②만날 필요성 여부는? ③탈북 동기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하였다. 인터뷰 전체 시간은 3시간 30분정도 소요되었다.

<표5 청소년 인터뷰 응답자 프로파일>

이름	나이	성별	학년	성적수준
김지안	만 14세	남	부산소재 중학교 2학년	중상
손예진	만 17세	여	부산소재 고등학교 2학년	중하
손주성	만 14세	남	부산소재 중학교 2학년	하
이정섭	만 16세	남	부산소재 고등학교 1학년	중하
이현진	만 17세	여	부산소재 고등학교 2학년	상
이연서	만 17세	여	부산소재 고등학교 2학년	중중
최정은	만 17세	여	부산소재 고등학교 2학년	중상
최다연	만 17세	여	부산소재 고등학교 2학년	중중

3.2 청소년 인터뷰 세부내용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질문 범주를 크게 3가지 주제로 정해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호감도와 관심, 한민족 동질감 등 인식 자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물어보았다.

두 번째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생활의 만족도, 적응에 어려움 점 등 북한이탈주민들의 의식과 인식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④남한생활의 만족도는 몇점? ⑤남한사회에 적응하려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걸릴까? ⑥북한이탈주민이 적응에 가장 힘든일은? ⑦일반적으로 남한사람들의 태도는? ⑧북한이탈주민 자녀와 교제는? ⑨대학특례입학제도, 장학금의무할당제, 의무고용제 등에 대해서는? ⑩북한이탈주민 정착 및 지원 정책 인지여부

세 번째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지식과 정보에 대해 물어보았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호감도와 동질감, 관심 등에 대한 질문에 학생들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청 나오기 힘들다고 들었는데 나온 것도 대단하고 용기가 대단하고. 남한이 해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같은민족이었는데 그런 대우를 해주는 건 당연해요. 한민족인데 떨어진거잖아요. 빨리 통일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통일 시기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손주성 중2)

“북한이탈주민은 그냥 우리나라와 같은 민족이니까 남한사람들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남한에서 사는게 부족한 것도 많을텐데 도와주면서 부족한거 채워주면 좋겠어요. 늘어나는 탈북민이 우리나라 성장하는 계기로 좋을 것 같아요.” (이정섭 고1)

“약간의 배려는 필요하지만 동정이나 편견은 절대 하면 안되는 것 같아요. 똑같은 한민족으로 대해야 해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색안경 끼지 않고 알아보고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러데 거의 진짜 잘 몰라요.” (이현진 고2)

“북한이탈주민들 중엔 혼자 넘어온 사람도 있잖아요. 가족들 두고 오려면 진짜. 이민갔는데 혼자 가는거랑 마찬가지로잖아요. 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학습하게 해주고. 고등학생 중학생 애들은 진짜 거의 모를걸요. 저도 고2때 탈북자 처음 알았으니까요. 친해질 수 있는게 있으면 좋을 듯해요. 진짜 강연 오신 분 처음 봤을 때 너무 우리랑 다 똑같아서 별차이는 못느끼고. 다른 애들도 다 놀랐을걸요. 진짜 말안하면 북한에서 온 줄 몰랐을 걸요.” (최다연 고2)

“북한사람들이 내려오는 거 힘든거 아는데, 진짜 자기나라에서 남한으로 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북한에 대해서요. 우리나라 방송매체에서도 북한 안 좋게 말하고, 북한사람들이 많이 내려오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먹고 살기 힘들데 왜 오냐고 안 좋게 생각할 것 같아요. 각자 조금씩 도와주

는게 필요할 것 같아요. 탈북이라는 개념 자체가 위험하잖아요. 그런 거 겪고 오는 거 모르고 저 사람은 왜 내려왔나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강연을 통해서 듣고 아는데 좀 모르는 학생들은 안 좋게 생각하니까. 여튼 편견 갖지 말자. 저도 그랬으니까요.” (최정은 고2)

8명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직접 만나거나 대화를 나누어 본적이 없었다. 단지 4명만 학교에서 북한이탈주민 강사 초청으로 강당에서 강연을 들은 것이 전부였다. 만날 의향이 있는지 또는 만날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나보고 싶고 대화도 나눠보고 싶고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호기심에 오는 가벼운 관심이지 더 알고자 하는 적극적인 관심과는 거리감이 다소 있다. 최정은 학생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무섭고 오히려 외국인이 더 편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청소년과 친구는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친구는 괜찮다는 다소 모순된 대답을 했다. 한편 학교에 북한이탈주민 강사에 대한 강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와 같은 모습이라 정말 놀라웠다며 그런 강연과 교육이 많았으면 한다는 의견을 말하였다.

두 번째로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생활의 만족도, 적응에 어려운 점 등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람들에 대해서, 남한생활과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인식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북한이 살기 어려워서 남한에 왔을거잖아요. 두고 온 가족들한테 미안할 것 같고, 남한생활은 한 70점 정도될 거 같아요. 적응하는데도 한 3년 정도 걸릴 거 같고요. 말투가 달라서 힘들 것 같아요.” (김지안 중2)

“북한은 공산주의고 힘들어서 탈북했을 거잖아요. 남한이 그래도 북한 보다는 문화가 다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좋을 것 같은데, 우린 자본주의잖아요. 근데 또 그게 달라서 힘들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이 왔으니까 먹고사는 것부터 힘들 것 같아요. 탈북자 센터같은게 있어요 혹시? 별로 안많은 거 같은데... 생활 자체가 너무 힘들 거 같아요.” (손예진 고2)

“힘들어서 내려왔을거예요. 가뭄나서? 적응하는데 힘든점은.. 글썽
요 잘모르겠어요. 사람들 시선? 그게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손주성
중2)

“너무 살기 어렵고 그러니까 경제도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시설도 안
좋고 해서 내려왔을거예요. 남한생활 만족도는 60점 정도? 사람들하
고 대인관계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물건 사용하는 것도요.
스마트폰 같은거 어려울 것 같아요.” (이연서 고2)

“아무래도 북한에 그런 약간 체제같은게 힘들어서 살기 힘들어 온거
같아요. 혼자오는건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다 생각할 수 도 있는데 탈
북과정에서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다테리고 가는게 더 무책임할 수
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위험하잖아요. 진짜 죽을 수 도 있는데.
남한생활에 대해서 좋아하고 만족할 것 같아요. 적응하는데 한 5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남한사회 분위기 같은거 문화같은게 다르니까
그게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이현진 고2)

“매체 발달로 옛날이랑 다르게, 남한이 자유로워보여서 일자리도 있
고 해서 온거 같아요. 그런데 남한에 와서는 생각보다 차이를 못느낄
것 같아요. 1년정도면 적응할걸요. 일자리 구할 때 탈북자 출신이라
는거 안밝힐 것 같아요. 말도 차이나서 어려울듯 하고요.” (최다연
고2)

“북한에서 사는게 힘든니까 내려오지 않았을까요. 남한이 좀더 나올
것 같으니까. 근데 남한생활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한 3.7정도 일 것
같아요. 북한에서 내려왔다는 선입견에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 힘들겠
죠.” (최정은 고2)

“예전에 천안으로 학교에서 갔는데 그때 탈북자 강의들었어요. 남자
였는데 45세라고 했어요. 그냥 북한보다는 우리나라가 살기 좋다고
남한이 좋다고 했어요. 근데 제 생각엔 북한보다는 좋은데 기대보단
못하다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시선 그런것도 안좋고,
일자리도 어렵고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거 그
게 제일 힘들지 않을까요.” (이정섭 고1)

학생들은 대부분 탈북의 동기를 경제적 이유, 체제에 대한 반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갈망 등으로 예상했고 특히 경제적인 이유로 탈북이 위험하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내려왔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남한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대체로 비교적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생활에 적응하는데 가장 힘든 점으로 예상한 것은 사람들의 시선, 편견과 대인관계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본인들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시선을 갖고 있거나 지금도 역시 그러하다고 응답하였고 일반인들의 생각과 인식 역시 대부분 부정적이고 냉담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세 번째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인지여부, 얼마나 알고 있으며 지원 정책에 대해서 어떤 의견과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북한이탈주민은 너무 힘들어서 온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도적으로 지원같은거 해줘야 해요. 민족이니까 보살펴야죠. 어린애가 있을 수도 있으니 교육지도도 필요하고 학교에서도 북한아이를 10명 정도 의무적으로 10명요, 한 학교에서 같이 수업해야 한다고 봐요. 나중에 통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교육제도를 만들어서 북한 전용 일자리나 교육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통일을 바라지는 않아요. 분리된 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도같은거를 많이 늘려서 북한이탈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해요. 나중에 통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땐 북한이탈주민이 통일을 위해 일할 수 있으니까요.” (이연서 고2)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나라에 잘 적응하게 사람들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수업시간에 들어본 적도 없고 정말 잘 모르겠어요. 통일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요. 김정은 죽으면 통일이 될 것도 같아요.” (김지안 중2)

“저는 솔직히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쟁 때문에. 통일 비용이 많이 들지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탈북자들에게 지원을 해서 잘 살

수 있는 방안으로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손예진 고2)

대부분의 학생들은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 정책에 대해 전혀 모르는 수준이었다.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3만 명이 넘었다는 말에 깜짝 놀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하나원이나 하나센터와 같은 기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전혀 없었고, 고등학교1학년 남학생 한 명이 유일하게 정착지원금에 대해서 어렴풋이 아는 정도였다. 기존 정착 지원정책과 관련된 연구에서 많이 지적하는 점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금이나 주택 임대 등의 부작용과 오히려 국내 기초생활수급자보다 과한 지원이 아니냐는 지적⁷⁾과는 상반되는 생각을 청소년들은 갖고 있었다. 정책에 대해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수준을 넘어 거의 무지하다고 판단되는데 비하여,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4. 분석결과 및 시사점

4.1 인터뷰 분석결과

8명의 청소년들의 인터뷰가 부산 시내 전체 학생들의 생각이라 볼 수는 없지만, 8명 학생들의 인식과 생각, 의견이 대체로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유추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과 접촉빈도의 경우 청소년들은 거의 만나보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겨우 학교에서 특강으로 북한이탈주민 강사의 이야기를 들어본 것이 고작이었다.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7)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에 대해 2007년에는 59.1%가 동의했지만 2015년에는 50.6%로 낮아졌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2007년 40.9%에서 2015년 49.9%로 높아졌다. (박명규 외 2016: 262쪽)

나는 질문에 대부분 학생들은 꼭 만나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다. 북한이탈주민과 개별적으로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싶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어 하였고, 관심도 많았다. 그러나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의 탈북동기에 대한 질문에는 8명 모두 경제적으로 살기 힘들어서 왔을 것이라고 경제적 요인을 공통적으로 꼽았다. 가족과 헤어져 목숨 걸고 왔을 상황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들은 그렇게 못했을 거라며 대단하다는 표현을 언급하였다.

남한생활에 만족도를 예상하는 질문은 대체로 만족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생각보다 만족하진 못할 것 같다는 의견도 두 명 정도 있었는데 이는 그만큼 남한사회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식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적응하는 평균 연한에 대한 질문에는 대부분 5년 미만으로 생각했다.

남한사회에서 정착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으로 대인관계나 사람들의 편견과 차가운 시선 등을 말했다. 그리고 청소년보다 성인들이 색안경을 끼고 북한이탈주민에게 더 냉담할 것이라 생각했다.

대학특례입학제도나 장학금제도, 의무고용제 같은 제도에 대한 의견은 예상외로 관대하고 적극적이었다. 고3 수험생이 되는 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특히 북한이탈주민은 배움의 기회가 많지 않았을 것이라며 일반학교에서 함께 공부하기를 희망하고 대학에 특별전형으로 입학해서 학습의 기회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고 더 많은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북한이탈주민 정치 및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8명 전원이 거의 모른다고 답했다. 한명정도 지원금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한 정도였다. 하나원이나 하나센터와 같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들어 본적조차 없다고 응답하였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분석을 위한 인

터뷰를 진행하면서 문제점과 아쉬운 점도 나타났다. 8명의 학생들이 동일한 학년이 아니라는 점은 정확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조사하는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동일한 학년의 청소년들이거나 혹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전체를 인터뷰 대상으로 진행했다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향후 심층 인터뷰와 질적 연구를 통해 정확하고 심층적인 연구를 하고자 하는 바람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조사와 앞선 선행 연구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 학생들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업이나 교육을 받은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중등학교와 관련된 교육기관이나 관련기관에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내용을 깊이 있게 연구해야 하고, 이를 교과서와 교육과정 등에 반영하여 학생들에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을 위한 올바른 교육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청소년들은 북한이탈주민보다 오히려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고 냉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본인들도 조금은 두려운 생각이 든다고 하였다. 이는 “탈북자라고 안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냥 중국인이나 조선족이라고 할 것 같아요.” 라는 대답에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셋째, 남한의 언어와 관습과 문화를 이해하는 데는 연령별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일반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대안학교로 가거나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4.2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위한 다문화 교육 방향 모색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까지 경제적 지원에 맞추었던 정책의 초점

을 다문화 통합으로 나아가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한국의 시민사회와 여론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어떤 편견과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표출하느냐이다. 어느 정도의 편견을 나타내느냐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서 적응양상이 달라질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의 의지와 태도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받아들이는 한국에서 시민사회와 여론의 지지가 높아질 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통합 역시 발전할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해서 북한이탈주민 조○○⁸⁾를 50분간 전화로 인터뷰하였다. 비록 북한이탈주민 한명의 이야기가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 한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라도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였다.

“금방 왔을 때는 정착도우미 분들도 계시고 센터의 도움이 있으니 불편하고 어려운지 잘 몰랐어요. 그러나 교육기간이 끝나고 혼자 생활하면서 따갑고 불편한 시선을 느꼈어요. 택시를 타면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 보길래 강원도라고 거짓말 했어요. 북에서 온 걸 알게 되면 사실대로 말은 하지만 숨기고 싶었어요. 북에서 온 친구들이랑 식당에 가서도 조용히 하라고 우리끼리 그래요. 시선이 불편하고 우리만 소외되는 느낌이 들어 많이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조선족이라고 처음에는 그랬어요. 조선족이라면 편찮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중국이라 하는 게 더 이미지가 안 좋다고. 따가운 시선은 중국보다 북한이 낫지 않느냐고. 그리고 북한에 대한 생각이 안 좋을까봐 이쁜 짓 하려고 가식적으로 억지로 노력하고 눈치도 보고 그랬어요. 좋은 일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청소년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우리와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과 상반되게 북한이탈주민 스스로는 정착하는데 제일 힘들었

8) 조○○는 1991년생으로 하나원에서 교육을 마치고 2016년 1월부터 부산에서 정착하여 현재 공장에 취업하여 생활하고 있다.

던 점이 사람들의 시선과 편견이라 하였다. 이는 청소년들이 예상했던 점과 일치한다. 북한이탈주민도 다른 이주 외국인과 같이 다문화 통합 교육을 통해 한국 사회 일원이 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북한이탈주민 조○○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옛날에 살던거 다 잊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마음 아픈일 생각하고 있으면 다른 일은 못해요. 과거를 빨리 지우고 정착을 빨리해서 돈을 모으던 공부를 하던 도움이 되는 쪽으로 노력해야지, 엉뚱한 일에 안 휘말리게 잘해야 해요. 어린나이에 결혼부터 덜컥하는 것도 사실 엉뚱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한두달 일해보고 힘들다고 술집에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친구들도 봤거든요. 노력도 안하고 참 안타깝고 어린친구들은 무엇이든 도전해 보고 죽을 만큼 힘들 때 그때 그만두더라고 일단 노력해야 해요.”

이는 북한이탈주민 스스로 노력과 의지를 강조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스스로는 정착 지원 정책에 대해 큰 불만은 없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오히려 지원 정책이나 제도를 더 늘리고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낮에는 센터에 갔다가 밤엔 일하고, 처음에 일안하면 생활비를 32만원 받았어요. 그런데 그돈으로 생활이 힘들거든요. 돈도 필요하고 공부도 힘들고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무작정 공부한다고 일년만 해보자고 공부했었어요. 몸도 힘들고 돈도 필요하고, 돈 공부 둘다하기 힘들었어요. 5년안에 해야하는데. 진짜 죽을만큼 노력해보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자. 이런 마음으로 했었고, 지금 오는 어린 친구들은 꼭 알았으면 해요. 한두달 하고 때려치지 말고.”

북한이탈주민 조○○는 북한에서의 학력 인정을 받고 대학에 진학하려 공부를 시작했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특히 영어와 수학, 사회 과목 등에서 너무나 학업 능력 차이가 나서 부단히 노력했지만

공부를 포기하고 취업 준비를 해서 현재는 공장에 취직을 한 상태라고 하였다. 경제적인 문제로 대학진학을 포기했지만 언젠가는 간호대학이나 미용관련 전문대학에 진학하고자 했다.

이상으로 종합해볼 때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반다문화 정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반감과 편견, 거부감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3만명 시대에는 한 단계 발전한 사회통합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북한이탈주민만 대상으로 그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정착 지원 정책을 펼쳤다면 앞으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내국인들의 인식에도 신경을 써야한다. 북한이탈주민이 적응하고 초기 정착 자체에만 치중하지 말고 진정한 통합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위한 교육 방향도 모색되어야 한다. 조○○의 인터뷰에서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교육적인 안타까운 현실을 알 수 있다.

“새터민 전용학교에서, 서울에 2곳 있다고 들었어요. 지금 이름은 기억이 안나는데. 거기에서 아는 이모 아들이 다니는데 공부하는 애들이 다 나이가 다르다고 해요. 혼합반이예요. 중졸 인정받는다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일반 학생들하고 따로따로 학교다니는 건 아닌것 같아요. 그럼 계속 자기들끼리만 그 안에서 지내고, 거긴 작은 북한인거 싫어요. 계속 소외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일반학교에서 오전, 오후는 전용학교 가는게 좋을 듯해요. 아니면 주말에 간다거나. 따로 소외된 학교에 다니면 계속 소외될 듯해요. 어린 친구들일수록 꼭 일반학교에 가능하면 다니는 방안으로 가는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8명의 인터뷰 청소년들이 생각한 언어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조○○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별로 없었다고 아래 인터뷰에서 언급하였다. 하나원에서 언어교육 프로그램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생활하면서 남한사회의 언어를 빨리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원 이후 언어교육은 필요없다라고 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외국인처럼 북한이탈주민의 언어교육도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는 것과 상반되는 이야기다.

“하나원에서 발음교정, 맞춤법, 남북한 사용이 다른 단어 같은거 교육이 있어요. 도움이 되고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책자도 줬어요. 그런데 생활속에서 배우는게 제일 빨라요. 하나원 마치고 교육은 따로 필요없을 것 같아요. 나이든 사람은 제3국에서 오래 생활하고 온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남한 문화에 크게 차이를 느끼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잘 적응해요. 문화적 차이로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어린친구들은 제3국에서 태어난 경우가 많아요. 그런 친구들도 빨리 적응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저처럼 젊은 20살 전후에 혼자 온 경우는 많이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외로움도 크고 소외감도 느끼고 다른 사람 시선도 많이 신경쓰이고. 처음엔 저도 많이 힘들고 울기도 했어요.”

5. 결론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분석과 다문화교육 방향 모색까지 생각해 보았다. 청소년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은 무지에서 오는 무관심, 무관심은 다시 편견과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요인이 되었다. 통일한국에서 주역을 될 청소년과 북한이탈주민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사 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주민에 대한 다양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많이 논의되고 관심이 많은 분야지만 북한이탈주민은 초기 정착 지원에만 집중되고 이후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또는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여겨진다.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주기적이고 청소년들과 북한이탈주민의 통합적인 교육과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북한에서 태어나 남한으로 다양한 탈북경로와 제각각 다른 동기로 남한사회에 편입된 북한이탈주민들은 내국인들 사이에서 크고 작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북한에서 태어나 남한사회에 정착하며 적응하고 있는 이들은 앞으로 통일한국을 위한 최고의 인

재로 성장시키고, 앞으로 통일을 미리 내다보고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으로 이들에 대한 교육, 혹은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교육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할 시점임에 틀림없다.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또한 이미 한류를 통해 한국문화를 접한 어린세대의 북한이탈주민의 세대교체도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어린 청소년들이 쉽게 한국에 적응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일반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대학에 진학을 희망하는 탈북 청소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의 수가 더 많음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청소년들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우리학교에도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이 많이 다녔으면 좋겠어요. 친구가 꼭 되고 싶어요. 한번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였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오는 무관심, 교육을 통해 배워 본적이 없어서 모르는 편견과 오해, 외국인과 다른 다문화이지만 오히려 외국인보다 멀게 느껴지는 또 다른 이질감 등등 호기심은 있지만 무엇보다 충족되는 교육과 경험이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 기존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수는 점점 늘어나서 이제는 일반 학교에서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잘 적응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고, 그와 관련된 교육은 미비하나 어느 정도는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학교에서도 담당 교사의 교육이나 연수를 통해서 다문화 교육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위한 교육이나 지침은 없다. 실제 교육현장에서도 통일과 연결해서 언급되거나 다문화 관련해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 정도만 언급될 뿐이다.

앞으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뿐만 아니라 미래 통일한국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위한 다문화교육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권수현(201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국민의 태도, <한국정치연구> 20권 2호,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129쪽~153쪽.
- 김광웅(2012).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배제와 사회성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명선(2016). 북한이탈주민 한국사회문화적응 결정요인의 통합적 고찰: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경제적 적응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영수(1998). 대학생 및 고등학생들의 탈북자관 조사, <전략논총> 10권,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25쪽~155쪽.
- 박명규(2016). 2015 통일의식조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손애리·이내영(2012). 탈북자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연구: 국가정체성과 다문화 수용성을 중심으로, <아태연구> 19권 3호,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5쪽~34쪽.
- 신미녀(2010).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상호인식을 통해 본 통일준비, <사회과학연구> 19권 1호, 한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87쪽~112쪽.
- 안혜연·이금순(2007).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분석, <통일정책연구> 16권 2호, 통일연구원. 145쪽~171쪽.
- 양계민·정진경(2005).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이 남한 사람들의 신뢰와 수용에 미치는 영향, <사회문제> 11권, 한국심리학회. 97쪽~115쪽.
- 윤여상(2001).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2002년 추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한국정치학회. 279쪽~318쪽.
- 이금순 외 9인(2003).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통일연구원 협동연구총서04-01>, 321쪽~327쪽.
- 이명진(2010). 다문화사회와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 <조사연구> 11권 1호, 한국조사연구학회. 63쪽~85쪽.

- 정기선(1999). 탈북자에 대한 이미지 연구, <통일문제연구> 31권,
평화문제연구소. 173쪽~189쪽.
- 정연중(200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주민의 인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정아·임순희·정진경(2007). 새터민의 문화갈등과 문화적 통합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77쪽~289쪽.

필자 소개

성 명 : 전수현
소 속 : 동아대학교 국제대학원 박사과정수료
전자우편 : sh.jun@daum.net

투고일: 2018. 1. 14 / 심사일: 2018. 2. 2 / 심사완료일: 2018. 2. 8

북한이탈여성 통일 관련 인식에 관한 연구

허훈

(동아대학교)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 2.1 북한이탈여성 의의
3. 북한이탈여성 통일 관련 인식 사례연구
 - 3.1 탈북여성의 실태 및 현황
 - 3.2 조사대상 선정기준 및 조사방법
 - 3.3 분석결과
4. 북한이탈여성 통일관련 인식 개선방안
 - 4.1 사회 문화적 교류의 확대
 - 4.2 새로운 코드를 이용한 문화적 문제해결
 - 4.3 패러다임의 변화
 - 4.4 교육제도의 변화
5. 결론

<Abstract>

Heo Hun. 2018. 1. 15.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the Unification of Women in North Korea,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1,** 204-227. The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is constantly increasing, with more than 30,000 people leaving the country to date. Women make up more than 70 percent of the total number. The study on North Korean

defectors is mostly conducted by men and all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although the study did not show any special characteristics of women, and the study conducted by 8.22 percent of the North's total population was based on women. Therefore, this study was designed to compare and analyz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on North Korean defectors and North Korean women who escaped from the country and to discover the uniqueness of North Korean women who escaped from the country by analyzing their studies. General characteristics analysis found that the research arm was limited, the research subjects were small, the ratio of direct research was high, and experimental design study lacked such characteristics as pre - and post-programmed comparison. This study focused on the study of North Korean women who have left the country to focus on defectors, so it excludes research on North Korean women and the North Korean regime, so it excludes the nature of North Korea in its regime.(Dong-A University)

[Key words] North Korean defector, Escapee, A tendency to study

1. 서론

북한이탈여성은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사회에 정착하기까지 생존을 위협 하는 수많은 외상적사건과 스트레스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왔다. 탈북 후의 삶은 생존을 위해서 중국에서 원치 않는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안전감과 가치감을 잃었으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북한으로 강제송환 당할까봐 두려움을 견뎌왔다. 또한 남한에 입국한 후에도 북한이나 중국의 잔여가족을 돌보거나 입국시키는 문제, 자녀양육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부담은 북한이탈여성의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원인

이 되고 있다. 또한 남녀 간의 역할과 지위에 변화가 생기면서 생기는 갈등이나 북한이나 중국에 있는 남편과의 중혼 및 이혼 등의 문제가 남한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남한남성과의 결혼생활에서 생기는 갈등을 겪기도 한다. 그리고 자녀와의 갈등으로 인한 부모자녀 사이의 문화적 괴리감과 공감대 부족에서 오는 경직된 의사소통 등으로 인해 가족 안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한편 증가하고 있는 북한이탈여성은 단순히 수적인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한사회의 변화 과정과 북한이탈주민 전체의 적응과 생활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남한에 정착하는 북한이탈여성은 사회의 구성단위인 가족을 다시 구성하는 중심인물이며, 남북한 통합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북한이탈자녀를 남한사회에서 양육하고 적응하도록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북한 내 가족을 통해 남한에 북한의 소식을 전하는 주요 통로이자 남한사회의 새로운 인적자원이기도 하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은 현재 우리사회의 새로운 일원이며 최근의 흐름은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의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는 시점이다. 북한이탈주민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은 탈북을 결심하게 되는 요인이나 배경에서부터 중국이나 제3국을 거쳐 한국에 오기까지 겪는 경험과 다시 한국에서 적응하면서 겪는 과정에서 남성과는 구분되는 특징이 발견된다(박소연 2017).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대부분은 남성을 포함한 북한이탈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연구들이 많았으며, 이에 반해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수적으로도 제한적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며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통일한국을 대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통일한국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적인 기반을 만들어 놓는 것이다. 70년의 분단세월을 거치며 들어선 사상의 차이와 경제적 불균형, 문화적 차이 등 우리

는 사실 같은 민족이지만 많은 것이 다르다. 이와 같은 차이조차 넘어설 수 있는 힘은 민족의식을 기반으로 하는 내적인 힘, 곧 인성에서 나온다. 다름을 견딜 수 있는 인내, 어려움을 헤아려주는 공감,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희생’ 등의 정신을 남북한이 하나 된 후 함께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나아가 보다 다양한 주제로 실증적인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제언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북한이탈여성의 의의

북한이탈여성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연구는 크게 중국 내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연구와 국내 거주 북한이탈여성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중국 내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논문을 살펴보면, 1990년 이후 북한의 경제 사정 악화와 식량난 및 사회통제의 악화 등으로 북한을 탈출하는 탈북자는 수만에서 수십만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대다수가 여성으로 파악되고 있다. 박명희(2005)는 여성의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전통적으로 가부장적 성향이 짙은 북한사회에서 식량을 구하는 일이 여성의 몫이며, 직장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여성이 장기간 이동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여성이 탈북하기 전 이미 결혼을 하여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탈북을 하며, 새롭게 중국에서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문숙재 외(2000)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에서 거주하는 북한이탈여성은 체포와 북한 강제송환의 공포 속에서 불안한 생활을 해야 하며, 인신매매, 매춘, 폭행, 구걸 등 비인간적인 일들을 겪으며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인이나 북조선인 에게 붙잡혔던 경험 과정에서 매매를 경험한

여성들이 있으며, 중국에서 정착한 경우에도 적응과정에서 경제적 독립성 확보와 법적인 호구획득과 한어습득에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남편의 경제력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시댁가족과의 문제점 폐쇄적 생활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태현(2003)은 중국 내 북한이탈여성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들이 ‘못사는 나라에서 온 조선여성’이라는 정체감을 안고 살아간다는 공통점을 발견하였다. 중국에서의 그들의 삶은 자유롭게 돈을 벌 수 없고 신분을 위협받는 막막하고 불안함의 연속선상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연구하였다. 따라서 조선족으로 감추고 생활하며 중국인들이 그들의 비합법적 상태 때문에 낮게 취급 하는 것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국내거주 북한이탈여성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연구이다. 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실태를 설명함에 있어 여성이기 때문에 갖는 특수성을 설명하는 연구들이 많다. 여성은 정착 초기과정에서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어려움이 외에 임신 출산과 육아 가사 등 여성만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가정생활 취업 및 직장생활을 이중삼중으로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들이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 부모가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 인지적인 시각에서 북한이탈여성의 초기적응단계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닌 자활자립의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연구도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의 교육경험에 대한 연구에서는 북한교육이 교육의 기회교육과정 그리고 교육의 결과면에서 성역할 이데올로기에 따른 역할 구분이 분명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성역할 이데올로기는 북한사회에서 여성에게는 남성과 다른 삶의 경험과 진로 책임과 과제 기회를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선형적으로 부과한다는 점에서 북한교육은 성별에 따른 차별의 또 다른 연장선상에 위치한다는 것이 나타났다. 그리고 북한이탈여성은 여성 보건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만성적인여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북한이탈 여성의 성지식 실태연구에 따르면 북한이탈 여성의 성지식수준이 매우 낮고 북한이탈여성 들은 성교

육을 받은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성교육필요성이 제시 되었다. 북한이탈여성은 탈북과정, 정착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해 통일 관련 인식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3. 북한이탈여성 통일 관련 인식 사례연구

3.1 탈북여성의 실태 및 현황

3.1.1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

<표 1 입국현황>(2017년 9월말 입국자 기준 현황) (단위:명)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9	합계
남	591	795	404	369	305	251	302	153	8,958
여	1,811	1,911	1,098	1,145	1,092	1,024	1,116	728	22,135
합계	2,402	2,706	1,502	1,514	1,397	1,275	1,418	881	31,093
여성 비율	75%	71%	73%	76%	78%	80%	79%	83%	71%

(자료: 통일부 홈페이지)

위에 <표 1>은 2010년도부터 17년도 9월까지 북한이탈주민의 입국현황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년부터 여성 탈북자가 많아지다 2006년 이후부터 여성탈북자가 70%이상을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3.1.2 북한탈북자 중 여성이 많은 이유

●'80%가 여성' 탈북 남성보다 탈북女 많은 이유 '충격'

북한을 이탈해 국내 들어온 주민들 대다수는 여성으로 성별 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입국한 탈북민(1025명) 중 여성은 1025명으로 80.3%에 달했다. 이는 남성(251명)의 4배가 넘는 수치다.

1990년대만 해도 북한이탈자 중 여성은 10%대에 머물렀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1998년까지 입국한 전체 북한이탈자 중 여성 비율은 12.2%였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여성 비율은 급증했다. 2001년 45.8%로 늘어난 뒤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78.2%까지 상승했다.

이처럼 여성들의 탈북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에 대해 심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여성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5년 발간된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들의 탈북 동기는 ‘식량부족과 경제적 어려움’ (53.2%)· ‘돈을 더 벌기 위해’ (29.4%) 순이었다. 반면 남성들은 ‘가족을 따라서’ (32.8%)· ‘통제가 싫어서’ (29.4%) 순이었다.

심 의원은 “탈북자 대다수가 여성이지만 이에 대한 정착 지원은 ‘여성쉼터’ 운영과 의류 수선 및 바리스타 교육 정도”라며 “여성맞춤형 정착 지원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출처: 중앙일보).

3.1.3 북한이탈주민 삶의 만족도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와 이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분석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그 가운데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을 분석한 논문들은 대부분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의 연령이 젊을수록 사회에 대한 적응이 수월하다는 연구(유인진 2000)가 있는 반면, 삶의 만족도와 연령과는 무관하다는 연구도 있다. (이중아 2005) 남한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하는 경우 남성과 여성 사이에 차이는 없었다. 결혼을 한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정신적 안정을 높여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도움을 주었다는 연구가 있었지만, 기혼자가 탈북 과정에서 배우자를 동반하지 못한 경우 자책감으로 인하여 남한에서 삶의 만족도가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김미령 2007) 또한 남한 사회에서 생활한 기간이 더 길수록 남한 사회에 보다 잘 적응하고 있으며, (전우택 2005) 남한에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고 직장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직장과 같은 사회생활을 통해 남한 사회에 대한 소속감 및 통합감이 확대됨으로써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해석하였다. 이 밖에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기간 동안 여가 생활에 참여하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3.2 조사대상 선정기준 및 조사방법

본 연구는 한국사회 전문직에 근무하는 북한이탈여성의 인터넷 상 인터뷰를 인용한 것이다.

<표 2 북한이탈여성과 청년모임 인터뷰 응답자 프로파일>

이름	나이	직업	출신국
이○○	54	경인여자대학(교수), 북한 전통음식 문화연구원 원장	북한

		탈북여성박사1호	
이○○	43	北 4군단 출신 뉴코리아여성연합 대표	북한
강○○	35	탈북청년모임 '위드유'	북한

3.2.1 북한이탈여성 인터뷰

이애란 교수가 생각하는 탈북자들의 역할에 대해

“탈북자들이 지금은 한국사회에서 봉사를 받는 입장이지만 통일 이후에는 북한에 남한의 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 통일 이후에도 봉사를 받는 입장이길 원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현재도 충분히 봉사를 하는 입장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탈북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적극적인 활동이 통일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것임을 강조했으며, 이와 더불어 일반 사람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꼬집기도 했다.

"요즘 사람들은 통일에 대해 많이 부담스러워 합니다. 왜냐면 세금도 많고 부담스럽고 낯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창올림픽과 G20 등 많은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명실 공히 세계적인 경제대국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세금이 많이 들고 부담스러워 통일을 꺼리는 건 정말 졸부적인, 낮은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부끄러운 행동들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 <http://unikoreablog.tistory.com/1684> 검색자료>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남북관계에서는 성과를 내려고 조급해하는 것이 가장 큰 실책이라고 본다. 차라리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본다. 당장 남북관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은 아무것도 없다. 무조건 5·24조치를 해제 하라고

요구하는 정치인들이 있는데 용서도 사과를 받고 해야지 그냥 하는 것을 굴종일 뿐이다. 남녀 관계도 한 쪽이 너무 매달리면 잘 안 된다. 밀당(밀고 당기기)을 잘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밀당을 할 줄 모르는 것 같다.”

너무 대결주의적인 시각은 아닌가?

“남한에 와서 놀란 것이 내가 북한을 비판 했다는 이유로 나를 위협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었다. 남한 내에 북한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일각에선 나를 극우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동안 북한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이다. 극우라는 비판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사람들이 나를 비판한다고 해서 북한의 실상을 미화해서 이야기 할 수는 없지 않나?”

<자료: <http://cafe.daum.net/3hur/AAW8/4582?q=%C5%BB%BA%CF%BF%A9%BC%BA%CO%C7%20%C5%EB%CO%CF%BF%A1%20%B4%EB%C7%D1%20%CO%CE%5%CD%BA%E4&re=1>>

뉴 코리아 여성연합대표 이소연 2017.6.26

남한에 와서 처음부터 적응을 잘 했나?

“아니다. 적응을 빨리 못했다. 서점, 고시원, 아르바이트 등 안 해본 게 없다. 육체적으로 힘들어 카운터에서 계산하는 일을 해보고 싶었다. 한번은 사우나 카운터를 보면 월 90만원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전화했더니 북한 말씨 때문에 안받아주더라. 그렇게 1년이 지나면서 뭐라도 해야겠는데, 나이 30대가 지나가 대학은 못 가겠고, 기술은 있어야겠다 싶어 요리사 자격증을 따고 학원도 다녔지만 취직이 안됐다. 2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북한의 가족소식을 들었다. 안 좋은 일이 생겼더라. 가족들이 나 때문에 피해를 당했다. 그때 나는 북남 체제를 처음으로 비교해봤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다른 분들은 더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더 힘든 것은 인권침해를 받는 것이다. 그런 분들끼리 모여서 작은 일이나마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여성들도 힘을 얻었다. 우리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일해보자는 생각을 갖게 됐다. 북한에 라디오를 보내는 단체, 자유, 북한방송, 자유북한

운동연합, NK지식인연대 등 탈북민단체가 많이 있더라 거기서 활동하는 분들은 보면서 존경스러웠다. 정말 사명감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나도 할 수 있을까? 당시 탈북여성단체가 없었다. 그러나 기존 단체에서 용기를 북돋워주며 많이 도와주셨다. 우리는 김정은 정권의 인권탄압 실태를 고발하고 국제사회에 공론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효과는 있나?

“북한체제가 변해야 인권상이 나아질 수 있다. 탈북자들이 이런 활동을 해도 김정은 정권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만둘 수는 없다. 북한의 인권 탄압실태를 알리는 것은 김정은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다. 자신이 저지른 일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인데 가시적인 변화가 안 보인다고 우리가 그만두면 김정은은 좋아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들은 심리적으로 단 한 번도 힘들지 않은 적이 없었다. 따뜻하게 봐 달라” 이소연대표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탈북청년모임 ‘위드유, “남한 주도 통일 원하는 북한 주민 늘고 있다”

“최근에 탈북한 청년들은 기존의 탈북 세대와는 다릅니다. 제가 탈북하기 전만 해도 북한에서는 ‘통일은 무조건 북한 주도의 적화통일이야 한다’는 생각이 주류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북한 사람들도 한국이 얼마나 발달했고 잘살고 있는지 알게 되면서 많이 변했어요. 최근 탈북한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이 주도해서 통일을 해줬으면 하는 분위기가 깔려 있다고 해요. 북한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통일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죠.”

지난 10월 7일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한 커피숍에서 탈북청년모임 ‘위드유(With-U)’의 초대 대표이자 현 기획팀장인 강원철(33)씨를 만났다. 함경북도 무산에 살던 강씨는 2000년 홀로

두만강을 건너 중국 다롄을 거쳐 이듬해 한국에 들어왔다. 어머니와 동생 등 그의 가족들도 2004년 탈북해 한국에 모두 정착했다.

위드유는 2011년 탈북 청년 8명이 모여 만든 단체. 탈북 청년들이 살아온 애기도 나누고 정보 공유도 하기 위해 갖던 만남이 정기화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지난해에는 광복절 전날인 8월 14일 독도에서 가수 이승철씨와 함께 통일 노래 ‘그날에’를 불러 주목받았다.

“처음에는 친한 친구들끼리 만나 술 한 잔하고 밥 먹는 정도였어요. 모임이 지속되면서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았죠. 모두가 고민하던 것이 ‘앞으로 통일됐을 때 뭘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배운 지식으로 고향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었죠.”

좌우보다 균형을… 기존 단체와 차별화

위드유 회원은 모두 30대 초반의 탈북 남성들이다. 8명 중 6명이 1982년생이다. 대부분 2000년대 초반에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다. 현재 위드유 대표를 맡은 지성림씨는 연합뉴스 TV에서 기자로 일하고, 대학원생인 강씨를 제외하면 나머지 6명도 생업에 종사한다. 2004년 한양대 경영학과에 입학한 강씨는 졸업한 후 2013년까지 북한민주화네트워크에서 ‘NK비전’이라는 잡지를 발간했다. 지금은 고려대 북한학과 석사 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위해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2013년 ‘마중물 음악회’, 2014년 ‘독도 합창단’으로 주목받은 위드유 회원들은 지난 3월 ‘현대사 강좌’를 기획했다. 탈북자들은 한국의 현대사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드유는 이 점에 착안해 ‘한국에서 통일을 이뤄낼 사람들이 한국 발전의 주역들을 모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탈북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해 주목받았다.

“한국이 50년 동안 엄청난 성장을 이뤄낸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짧은 기간에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룩한 몇 안 되는 나라로 해외에서도 부러움을 받아요. 하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패싸움이 치열합니다. 한쪽에서는 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반대쪽에서는 이승만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깎아내리기 바쁘죠. 그 점에 주목해 양쪽 진영에서 대표적으로 추앙받는 대통령 두 분씩을 추렸어요. 고인이 된 대통령들을 배우기 전에 묘역을 먼저 참배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강연은 7월 11일과 18일 이틀 동안 서울 중구에 위치한 외환은행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11일에는 이승만·노무현 대통령을 묶어 ‘박사 대통령과 고졸 대통령’이라는 주제로, 18일 강연은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을 묶어 ‘경제 대통령과 민주화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했다. 양쪽 진영을 섞은 것이다. 연사로는 이승만연구소장인 류석춘 연세대 교수(사회학)와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국제학) 등이 나섰다. 언론사 기자로 일하는 지 대표의 네트워크가 큰 도움이 됐다. 처음에는 탈북청년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려 했지만, 한국 학생들에게도 강연을 개방하면서 판이 커졌다. 50명으로 기획한 행사에 250명 정도의 학생이 몰렸다. 위드유의 활동 취지에 감명 받은 김정태 하나금융회장이 강연 장소와 비용을 지원했다.

“처음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은 정치적이거나 이념적으로 백지 상태에 가깝습니다. 공산주의가 싫어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공주의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좋다고 믿은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냥 세뇌당했습니다. 내부에선 비교 대상도 없어요. 판단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국에 왔을 때 처음 만나는 사람들의 성향을 많이 따라갑니다. 보통 보수단체나 보수언론 쪽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죠. 북한처럼 폐쇄적인 국가를 진보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한국의 진보단체가 나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인권이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신 것처럼, 북한 동포들의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서도 나서주셨으면 합니다.”

통일 후 북한 주민의 미래

강씨는 올해 제출을 목표로 졸업논문을 준비 중이다. 논문주제는 ‘북한 청소년들의 통일의식 변화에 관한 연구’. 최근 탈북하는 청년들의 의식이 종전의 탈북자들과 크게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다. 강씨는 “2000년대 후반부터 중국 국경을 통해 한국의 영화, 드라마 등이 북한에 유입됐다”며 “지금은 한국이 북한보다 몇십배 잘산다는 건 어린애들도 다 알고 있다”고 했다. 강동완 동아대 정치학과 교수와 박정란 카자흐스탄 유라시아국립대 한국학과 교수가 공동 조사한 결과를 보면 북한 주민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급변한 것이 확인된다.

이 조사에 따르면 북한 주민 100명 중 34명이 “통일 한국은 한국의 자본주의 체제로 단일화 할것”이라고 응답했으며 26명은 “남북한 체제를 절충한 방식으로 단일화 할것”이라고 답했다. 통일이 북한에 이익이 될 것인지를 묻는 설문에도 100명 중 88명이 “통일이 북한에 매우 이익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탈북자 3만 명 시대가 되면서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탈북 청년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예전에 탈북한 40~50대 이상의 세대들은 북한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북한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모습이 한국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쳐지는 경우도 많았지요. 하지만 최근 탈북해 한국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청년들의 마인드는 한국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탈북자에 대한 고무한 인식과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위드유가 할 일입니다.”

위드유는 행사 기획 시 ‘탈북자에 대한 이미지를 밝게 하자’는 모토를 내건다. 모든 행사를 아이디어 단계부터 기획, 제작, 실행까지 스스로 하는 위드유의 특성상 쉬운 일은 아니다. 위드유의 첫째 목표는 탈북자 하면 흔히 떠올리는 ‘이탈자’ ‘변절자’ 등의 어두운 이미지를 걷고, 한국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해 북한 사람

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믿음에는 북한 동포에 대한 애정과 고향에 대한 관심이 바탕에 깔려 있다.

“북한 사람들이 우리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전해 듣는다고 해요. 탈북민들의 생활이 통일됐을 때 북한 주민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해 떳떳하게 살면 북한 주민들도 통일을 더욱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죠. 열심히 살면서 사회에도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기적으로 행사를 벌이는 것도 그 때문이고요. 통일이 되고 북한 주민들도 노력하면 우리처럼 잘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위드유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2016. 5. 20. 국가안보자료/각종자료

3.3 분석결과

지금까지의 조사된 인터뷰 내용들이 모든 북한이탈여성들이나 북한이탈주민들의 생각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통일에 대한 생각은 통일이 온다면 이들이 겪은 일들은 우리가 알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사례들이 될 것이며 그들이 잘 정착했는지,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았는지의 여부 등은 미래 통일된 한반도의 국민들의 정서적 행복을 좌우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잘 적응하고 있는지, 어떤 면에서 차별 대우를 느끼는지 알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탈북여성들이 그동안 정착과정에서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차별대우를 느껴왔다는 것은 여러 학술 조사나 저작, 뉴스 등을 통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자유민들을 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아야 할 문제라고 판단한다. 탈북여성들도 대한민국 국민임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소홀히 했던 통일안보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

4. 북한이탈여성 통일 관련 개선방안

4.1 사회 문화적 교류의 확대

사회통합의 촉진과 저해요인 그리고 북한이탈여성의 여러 가지 고 층 그리고 남북한 통합방향의 모색에 있어 계속적으로 모델로 사용해온 독일의 사례를 보았을 때 남북한의 사회통합의 커다란 걸림돌은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경제적인 차이에서 나오는 경제적 문제와 두 번째로는 사회문화적 이질감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문화적 이질감에 보다 중점을 두고 논의를 해 보았다. 독일의 사례 에서도 볼 수 있듯이 통일 후유증은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사회문화적 이질감에서 더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사회통합을 이루었을 때 후유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접근 해야 할 과제를 제공해준다. 남과 북이 진정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와 같은 물리적인 통합과 사회문화적인 통합이 동시에 병행 되어야 할 것이다.

4.2 새로운 세계문화 코드를 이용한 문화적 문제해결

2010년 말부터 이어진 중동의 민주화운동에는 전 세계적으로 구축된 네트워크 환경이 커다란 역할을 했다. 바야흐로 네트워크 시대인 것이다. 앨빈 토플러가 말했던 제3의 물결인 정보화의 물결을 지나 제4의 물결인 관계(network)의 시대라고 말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정보화시대를 뛰어넘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분명히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시대를 정보화의 시대라고 똑같이 말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이 새로운 시대를 Network시대라고 칭한 것은 사람들이 맺고 있는 관계와 관계들이 상당히 중요시 여겨지는 시대가 왔고, 그 연결된 라인들을 통하여 우리가 가진 생각

들을 그 어느 때 보다도 빠르게 전파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고 그러한 생각들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빠르게 모을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시대를 타고 2010년 후반부터 2011년 대에 이르러서 급속도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하나 의문화가 있다. 그것이 바로 ‘한류’이다. 요즘 심심치 않게 TV를 틀거나 인터넷을 하면 ‘K-pop’ 열풍이라는 단어를 들을 수가 있을 것이다. 4~5년 전만 하더라도 음악 변방에 속했던 한국이라는 나라의 음악이 어느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입증된 우수한 한국의 문화를 북한이탈여성이 즐길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만 작용이 된다면 문화적인 이질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빠르게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3 패러다임의 변화

우리는 앞선 장에서 북한이탈여성이 겪는 수많은 어려움을 살펴 보았다. 그중에는 현실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점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안들이 포함 되어 있었다. 현실적으로 개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제도적인 변화로 인하여 변화를 꾀할 수 있는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의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배타적인 시선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사람들의 의식변화를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안이다. 패러다임의 변화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뭔가 커다란 사건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한 커다란 사건은 예측할 수도 없거니와 예측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람들의 의식변화의 수준은 미비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냉전과 반공이라는 패러다임은 남한사회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일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의식적인 측면에서 상호인정 이라고 하는 측면이 함께 충족되어야 사회통합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본다. 만일 통일 이후에도 사회문화적 갈등이 계속되어 진정한 의미의 민족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통일의 의미 자체가 퇴색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열이 심화될 것이다 더 나아가 심리적인 측면에서 사회 문화적인 통합은 여타 제도적인 통합에 비해서 장기간에 걸친 노력과 인내를 필요로 한다. 때문에 사회적·문화적 통합이 완결될 때까지는 통일과정은 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단순한 남북한 비교연구를 통해서도 각 사회가 지닌 공통적 가치나 기준에 대한 인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비교연구를 통해서도 각 사회가 지닌 특성만을 중시하며 공통의 가치는 무시 된다. 이러한 공통의 가치를 먼저 추구하고자 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남북한 사회통합의 열쇠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남북한의 상대방에 대한 상호인정의 자세일 것이다.

4.4 교육문제의 변화

사회문화의 통합이라는 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에 대한 문제이다. 먼저 독일의 교육 통합 시에 발생했던 문제점을 알아보는 것은 우리의 교육 통합에 있어서의 과제를 안겨줄 것이다.

독일 통일과정에서 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진 문제는 동독의 학생과 청소년들이 그들 체제가 편입된 서독 체제에서 건전한 생활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내용들이었다. 즉 통일 후 교육에 대한 동독 학부모들의 관심은 자녀들의 통일독일의 새로운 정치 경제 체제에 잘 적응하도록 교육하는 일이었다. 옛 동독지역의 교육제도는 지나친 마르크스주의 편향으로 말미암아 초·중등학교로 부터 고등교육기관에 이르기까지 이념지향의 교육내용을 보여 왔으며 이러

한 경향은 주입식 교육과 고등교육기관의 사상교육 기관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독일이 선택할 수 있는 교육제도는 서독의 학교제도를 토대로 하는 것일 수밖에 없었다. 공산주의식 집단주의 교육과 획일화된 통제 교육을 서독의 개방적이며 경쟁적인 자유 민주교육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실정에서 당연히 동독 주민들은 동·서독 교육제도 개편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졌으며 옛 동독의 교육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전혀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동독사람들은 교육제도가 개악되었다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동독의 교육제도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또 여러 가지 교육을 한 장소에서 받을 수 있는 종합 체제였다. 또한 유치원 교육과정은 매우 훌륭하던 평가를 받았으나 그러한 장점들이 전부 사라진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교육 문제에 대해 전혀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통일을 맞이한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사회통합에 앞서 교육 문제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하기 위해서 북한학생들의 수준 및 교육과정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독일에서도 발생한 문제점인 공산주의식 집단주의 교육을 개방적인 교육태도로 바꾸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청소년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시범식 교육이나 하나원에서의 중·고등학생들의 교육과정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청소년 탈북자들의 가장 큰 교육적 고민이 남한 학교에 대해 적응을 잘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현재 청소년 탈북자에 대한 교육지원 수준은 그들이 남한에 완전히 적응하기 위해서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5. 결론

북한이탈여성들의 남한사회적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족 안정성 혹은 가족 결속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취업과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뒷받침하며 남한사회의 경제적 풍요와 자유에 대한 균형적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情)에 대한 정서적 접근과 함께 북한이탈여성들이 지니고 있는 도덕성·예술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도 필요하다 남한사회와 남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 직장생활의 어려움 등에 대한 문화적 이해를 증진시키는 노력과 함께 북한이탈 주민들 스스로가 갖고 있는 위축감 북한에서 속고 살았다는 인식 아픈 기억 등에 대한 치유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직업훈련교육과 함께 문화적 소양교육도 겸했으면 한다. 영혼의 양식인 좋은 책을 읽게 하고 영화, 음악회, 연극 등 문화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다. 개인의 인권이 무시되었던 사회에서 살았으며, 남한 사회에서 돈의 절박함과 정작압박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과 돈 외에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한 번쯤 돌이켜 보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은 분명 효과가 클 것이다.

둘째, 탈북민의 70%가 여성이다. 이들에 대한 배려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세워졌으면 한다. 특히 육아 문제에 어려움이 있는 탈북 여성들이 구직활동을 하는데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외에도 법률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특별창구를 마련, 사기, 일터에서의 부당한 대우, 가정폭력, 성희롱 등 여성 탈북자로서 당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과의 정기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 서로의 생활과 삶을 이야기하고 상호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북한이탈여성이 더 이상 북한이탈여성이 아닌 보통주민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여질 때 더 나아가 '성공' 적인 정착이라는 이야기 나오지 않는 한국 사회가 북한이탈주민과 같이 하는 성공적인 사회

일 것이다.

본 연구자는 통일한국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하고 국제적 지원을 얻어야 하며 북한 주민의 자발적인 선택이 필요하다. 하여 탈북민 중 다수를 차지하는 북한이탈여성이 그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강차연(2005). 재중탈북여성들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한국심리학회> 10호, 한국심리학회지여성. 61쪽~80쪽.
- 강차연(2007). 중국내 거주탈북여성들의 스트레스대처방식과 정신건강간의 관계, <여성연구논총> 21권, 서울여자대학교 여성연구소. 39쪽~53쪽.
- 강효백(2009). 사실혼관계의 재중탈북여성 및 그 자녀의 법적지위에 관한 중국법제, <경희법학> 44권 3호, 경희법학연구소. 125쪽~152쪽.
- 김태현·노치영(2003). 북한이탈여성들의 삶이야기: 해석학적 현상학을 통한 중국 생활체험분석, <대한가정학회> 41권 8호,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1쪽~17쪽.
- 김희경(2010). 탈북 여성의 방어기제와 정신건강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15권 1호, 한국심리학회지여성. 155쪽~173쪽.
- 김희경(2010). 탈북여성의MMPI-2 프로파일 유형과 성격 특성에 따른 방어 기제차이, <한국심리학회> 15권 3호, 한국심리학회지여성. 311쪽~329쪽.
- 김희경·신현균(2010). 지역사회 정착 전후 북한이탈주민의 성 및 연령별 심리증상, <한국심리학회> 29권 4호, 한국심리학회지일반. 707쪽~724쪽.

- 김희경·오수성(2010). 탈북여성의MMPI-2 프로파일, <한국심리학회> 29권 1호, 한국 심리학회지 일반. 1쪽~20쪽.
- 김희경·전진용(2010). 탈북여성에서MMPI-2의 진단적 유용성: 정신과내 원군과정 상대 조군의 비교, <한국 심리학회> 29권 2호,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35쪽~353쪽.
- 문숙재·김지희·이명근(2000). 북한여성들의 탈북동기와 생활실태: 중국 연변지역의 탈북여성들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 38권 5호,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137쪽~152쪽.
- 박명희(2005). 中國內脫北女性の 生存實態와 難民地位問題, <신 아세아> 12권 2호, 신아시아연구소. 115쪽~144쪽.
- 박소연(2017), 북한이탈여성의 생애사 재구성: 주체사상에서 벗어나 자본주의 사상의 미망으로. <한국 사회복지 질적 연구> 11권 2호,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 5쪽~30쪽.
- 박영자(2006). 선군시대 북한여성의 섹슈얼리티 연구: 군사주의 국가권력의 성정체성 구성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15권 2호, 통일연구원. 129쪽~161쪽.
- 박정란(2009). 여성 새터민의 자녀 돌봄과 일: 실태와 지원방안, <한민족문화연구> 28권 2호, 한민족문화학회. 97쪽~135쪽.
- 백영옥(2002). 중국내 탈북여성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북한 연구학 회보> 6권 1호, 북한연구학회. 241쪽~264쪽.
- 안재희·민무숙(2003). 탈북여성을 통해 본 북한여성의 교육경험 분석, <여성연구> 2권 65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11쪽~244쪽.
- 육상숙·김윤상·임은미(2004). 탈북여성들의 월경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관련 인자들에 관한 연구, <대한한방부인과학회> 17권 4호,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174쪽~185쪽.
- 이금순(2006). 여성이주자의 사회적응 과정연구, <아시아여성연구> 45권 1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191쪽~234쪽.

- 이민영·김현경(2007) 새터민 여성의 이주로 인한 상실의 극복체
 험: 남한남성과 결혼한 여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5
 권, 한국사회복지연구회. 525쪽~554쪽.
- 이애란(2010). 북한이탈주민여성의 사회정착현황과 조기정착방안,
 <Jpi정책포럼> 39권, 제주평화연구원. 1쪽~18쪽.
- 진미정(2008). 탈북자의 가치관 변화와 사회문화적 적응 및 만족
 도: 성별 비교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5권 1호, 한국
 인간 발달학회. 139쪽~157쪽.
- 최대석·박영자(2011). 북한이탈주민 정책연구의 동향과 과제: 양
 적성장을 넘어선 ‘성찰’ 과 ‘소통’, <국제정치학회> 51권 1
 호, 한국국제정치학회. 187쪽~215쪽.

<인터넷 기사>

이애란 교수

2018년 1월 5일 검색자료

<http://unikoreablog.tistory.com/1684>

2018년 1월 5일 검색자료

<http://cafe.daum.net/3hur/AW8/4582?q=%C5%BB%BA%CF%BF%A9%BC%BA%CO%C7%20%C5%EB%CO%CF%BF%A1%20%B4%EB%C7%D1%20%CE%5%CD%BA%E4&re=1>

이소연(뉴코리아여성연합 대표)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antongnews&logNo=221037806955> (한민족의 중심 미디어 한통신문)

[출처: 중앙일보] '80%가 여성' 탈북 남성보다 탈북女 많은 이유 '충격' 2016.9.21

강원철(탈북청년모임 ‘위드유’)

<http://blog.naver.com/kimhs2769/220714934012>(작성자 일산간지남)

필자 소개

성 명 : 허훈

소 속 : 동아대학교 국제대학원 박사과정수료

전자우편 : hhun09@hanmail.net

투고일: 2018. 1. 15 / 심사일: 2018. 2. 1 / 심사완료일: 2018. 2. 9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창간호 후보

■ 창간준비위원 회의

- 1) 일시: 2017년 9월 1일(금)
- 2) 장소: 부산외대 다문화연구소
- 3) 참석자 : 권오경 회장 외 임원 10명
- 4) 회의 안건 및 보고
 - ①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창간호 발간 준비
 - ② 논문 규정 및 편집 규정 논의
 - ③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학회 창립 논의

■ 임시운영위원회 회의

- 1) 일시: 2017년 12월 15일(금)
- 2) 장소: 부산외대 다문화연구소
- 3) 참석자 : 권오경 회장 외 임원 10명
- 4) 회의 안건 및 보고
 - ①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 ② 학술지 발간 준비
 - ③ 논문 모집 안내 및 홍보
 - ④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학회 창립 및 홍보, 대외협력 활성화

■ 창간호 편집위원 제 1차 회의

- 1) 일시: 2018년 1월 15일(월)

- 2) 장소: 부산외대 다문화연구소
- 3) 참석자 : 권오경 회장 외 임원 10명
- 4) 회의 안건 및 보고
 - ① 논문 접수 현황 및 점검(기한 연장)
 - ②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구성

■ 창간호 편집위원 회의 제 2차 회의

- 1) 일시: 2018년 1월 29일(월)
- 2) 장소: 부산외대 다문화연구소
- 3) 참석자 : 권오경 회장 외 임원 10명
- 4) 회의 안건 및 보고
 - ① 논문 접수 현황 및 결과
 - ② 심사위원 결정

■ 창간호 편집위원 회의 제 3차 회의

- 1) 일시: 2018년 2월 12일(월)
- 2) 장소: 부산외대 다문화연구소
- 3) 참석자 : 권오경 회장 외 임원 10명
- 4) 회의 안건 및 보고
 - ① 게재 논문 결정 및 윤리위원회 규정 위반 논문 심사
 - ② 편집위원회 세부일정 최종 점검 및 확인

■ 창간호 편집위원 회의 제 4차 회의

- 1) 일시: 2018년 2월 23일(금)
- 2) 장소: 부산외대 다문화연구소
- 3) 참석자 : 권오경 회장 외 임원 10명

4) 회의 안건 및 보고

- ① 편집위원회 세부일정 점검 및 확인
- ② 창간호 발간 최종 일정 점검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학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학회(MSES : The Association for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학계와 현장의 전문가간 협력을 통해 다문화사회교육 연구 분야를 선도하고 다문화연구 전문가의 상호교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 다문화사회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3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술대회 개최
2. 학술지 발간
3. 위탁 연구사업 수행
4. 해외 및 국내 관련학회와의 교류
5.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위치) 본 학회의 본부는 회장의 소속기관이나 회장이 지정한 곳에 둔다.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친 자로 한다.

1. 일반회원 : 다문화사회, 다문화교육 및 한국문화, 한국문화교육, 한국어교육학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과정 이상의 연구자 및 일선학교 교사, 교육전문직의 개인
2. 평생회원 : 평생회비를 납부한 일반회원
3. 기관회원 : 학교, 연구소, 학술단체, 도서관 등의 기관으로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친 단체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학회활동과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단 기관회원은 의결권이 없다.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학회 회칙 준수 및 규정의 이행
2. 입회원서와 입회비, 소정의 회비(연회비, 평생회비) 납부 이행

제7조(자격 상실)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학회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8조(임원) 본 학회 임원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종류) 회장(1인), 부회장, 이사, 해외이사, 감사
2. (임무)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학회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유고 시 회장의 역할을 대행한다.

③ 이사는 각 분야별로 아래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총무이사: 학회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 및 실무 총괄

편집이사: 학술지 발간 기획 및 편집

연구이사: 학술연구 및 학술대회 개최 기획 및 운영

섭외이사: 학회 활동에 필요한 제반 섭외 업무

출판이사: 학술지 출판 및 배포

정보이사: 학회의 정보망 구축 및 관리

지역이사: 각 지역에서 본 학회를 대표하는 업무

해외이사: 해외 현지에서 본 학회를 대표하는 업무

감사: 학회의 재정운영 감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

제9조(임기) 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0조(선출)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외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4장 회의

제11조(총회)

1. 총회는 회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임원의 과반수 혹은 재적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① 회장, 부회장, 감사 선출
 - ② 회칙 개정
 - ③ 기타 회계 및 예산, 결산 승인
 - ④ 기타 학회 활동과 관련된 주요 사안

제12조(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3. 이사회는 본 학회 활동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심의하고 의결한다.

제13조(연구윤리위원회)

1.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원의 연구윤리에 대한 전반 사항을 심의하고 감독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논문의 투고자,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와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규정을 제정하고 관장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와 별도로 운영한다.

제14조(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및 학회 출판물의 편집과 발간에 관련된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의결한다.
2.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제5장 재정

제15조(재정수입)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찬조금, 외부 지원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16조(회비) 본 학회의 입회비 및 연회비, 평생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차기 총회에서 승인 받아야 한다.

제17조(회계기간 및 회계보고)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이사회를 편성하여 학회 감사의 감사를 받는다. 감사는 총회에서 이를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부칙]

1. 본 회칙은 이사 2/3 이상 또는 회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개정할 수 있다.
2. 본 회칙에서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에서 심의 후 정한다.
3. 본 회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를 따른다.
4. 본 회칙은 2017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편집위원회는 다문화연구소의 학술논문집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의 발행을 위해 구성되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제2조(구성)

편집위원회는 연구소장 및 운영위원이 관련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3조(편집위원장 선출)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여 소장이 임명하며, 편집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4조(편집위원장 임기)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편집위원회회)

위원회는 연 2회 이상의 편집위원회 회의를 가지며,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할 시 성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6조(편집위원 자격 및 임기)

편집위원의 자격과 임기는 다음의 주요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 (1) 편집위원의 자격은 대학의 조교수 이상이거나 교육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다문화 관련 기관장으로 한다.
- (2)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편집원칙)

편집위원회에서는 다음의 주요 사항을 논의한다.

- (1) 접수된 투고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과정을 진행한다.
- (2) 위원장은 심사를 마친 논문을 접수받아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이 “학회지 논문제출 및 작성요령”에 합당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심사자의 심사평에 의거하여 수정된 논문의 완성도를 평가한 후에 최종적으로 게재될 논문을 선정한다.
- (4) 동일 필자의 3회 연속 게재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제8조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9조 이 규칙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윤리규정

제1조 (목적) 본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약칭함)은 부산 외국어대학교 다문화연구소에서 발행하는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와 각종 출판물에 관계되는 연구결과물에 대한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에 투고한 논문투고자와 편집위원, 심사위원에게 적용된다.

제3조 (윤리규정 서약)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편집위원회는 특집 논문을 접수할 때는 윤리규정을 함께 공시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윤리규정 위반 보고) 논문 투고자나 편집위원, 심사위원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 회장이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반 여부를 판정하고, 이를 공개한다.

제5조(저자의 책임과 의무)

① 논문투고자는 사용하는 자료의 위조, 변조, 표절, 중복투고, 부당한 저자표기 등 제반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 관계를 분명히 하고 저자결정과 순위기준, 연구책임자 선정, 지적 재산권 및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하여 상호 합의와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6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전 연구과정(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및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서 발생하는 위조 및 변조행위, 표절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중복게재 행위 등을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등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게재”는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6.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부당행위를 말한다.

제7조(편집위원회의 윤리규정)

- ① (책임)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 ② (공정한 심사의뢰)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제8조(심사위원의 윤리규정)

- ① 심사위원은 위촉된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9조(연구윤리위원회)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5인 내외, 간사 1인을 둔다.
- ② 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이 윤리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출한다.
-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조사하고,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 적절한 제재조치를 의결한다.
- ⑤ 연구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투고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에게 비공개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⑥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그 내용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⑦ 연구윤리위원회가 제재를 결정한 경우,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기 이전인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게재의 불허,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학술지 게재의 소급적용 무효화, 향후 5년간 본 학술지의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 ⑧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재를 결정한 이후 그 사실을 공식적 연구업적 관리기관에 통보하며, 기타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한다.

제10조

-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학계의 관례에 따른다.
- ② 연구윤리규정 수정은 본 연구소 규정개정 절차에 준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논문투고규정

1. (게재 원칙 및 논문 종류)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에 게재되는 논문은 다문화사회 및 교육 전반에 걸친 학문분야의 학술논문으로,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2. (발간 횟수 및 원고 모집 시기)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학술지는 연 2회 발간을 원칙으로 하며, 발간 시기는 2월 28일, 8월 30일로 규정한다. 원고 모집 시기는 논문 발행 2개월 전까지로 한다.
3. (투고 자격) 다문화사회, 다문화교육 및 한국문화, 한국문화교육, 한국어교육학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연구자 및 일선학교 교사, 교육전문직이어야 한다.
4. (논문 분량) 투고 논문은 학술지 논문 규정 분량으로 25매 이내이어야 한다.
5. (논문 심사 방법)
 - ① (논문 접수) 투고된 논문은 반드시 본 학술지 논문 투고 규정에 맞게 작성되어야 한다.
 - ② (심사위원회 구성)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을 전공별로 분류하여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동일 분야 전공자 각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논문 심사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비밀로 지켜져야 한다.
 - ③ (심사 절차 및 결과 통보) 편집위원장은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해당 논문과 심사의견서를 보낸다. 이때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논문투고자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조치한다. 위촉된 심사위원은 초심 15일 이내, 재심은 7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그 외 심사에 관한 세부 사항과 절차는 본 학술지 심사규정에 따른다.

6. (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

- ① 논문 투고 시, **입회비 1만원(최초 1회)과 연 회비(매년 1회) 1만원**을 학술지 통장으로 내어야 한다.
- ② 논문 투고 시, **논문 심사료 3만원**을 학술지 통장으로 내어야 한다.
- ③ 게재가 확정되면 **게재료 3만원**을 학술지 통장으로 내어야 한다.

7. (논문 저작권의 양도) 심사 후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해당 논문의 저작권에 대해 부산외국어대학교 다문화연구소의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본다.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학회 임원 명단

회장	권오경(부산외대)
부회장	이도경(인제대), 조위수, 박형준(이상 부산외대)
감사	이필숙(부산외대), 이리경(동명대)
총무이사	박정미(부산외대)
총무간사	박혜인(울산대), 박슬기(신라대)
편집이사	황미혜(부산외대)
편집간사	김현민(부산외대), 두보(동아대)
편집위원	이정아(위원장), 최나래, 윤남주(이상 부산외대), 이재명(동아대), 박성옥(동주대), 강보석(한국해양대), 류경혜(양산외국인력지원센터장)
연구이사	김효정, 이경주(이상 부산외대)
섭외이사	최나래, 강현주(이상 부산외대)
출판이사	이채임(울산대), 이수지(부산외대)
정보이사	김현진(동명대), 강서원(성지고등)
지역이사	서울·경기: 옥영혜(서인다문화교육연구소) 기준성(디지털서울문예대)
	충청: 최주열(선문대), 이성순(목원대), 윤향희(공주교육대)
	강원: 김미희(동해시늘사랑사회서비스센터장)
	경남, 울산: 조영미(동국대), 김현주(진주교대)
	대구, 경북: 최은숙(경북대)
	전남: 박혜경(전남교육정책연구소), 전은희(순천제일대)
	제주: 양영자(제주대)
해외이사	한영란(일본 간사이외대), 사정정(중국 길림공정사범학원), 정윤희(베트남 하노이사범대), 김현숙(독일 빌레벨트대학)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이정아(편집위원장), 권오경, 조은래, 우형식, 이도경(인제대) 간사: 박혜인(울산대)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학회 회원 명단

번호	성명	소속	이메일
1	권오경	부산외국어대학교	kok7352@hanmail.net
2	이도경	인제대학교	yiyidodo@hanmail.net
3	조위수	부산외국어대학교	only0124@bufs.ac.kr
4	박형준	부산외국어대학교	corea@bufs.ac.kr
5	이정아	부산외국어대학교	leejunga@bufs.ac.kr
6	조은래	부산외국어대학교	rej@bufs.ac.kr
7	우형식	부산외국어대학교	woohs@bufs.ac.kr
8	최주열	선문대학교	sunmoon888@hanmail.net
9	조영미	동국대학교	m_cultural@naver.com
10	최은숙	경북대학교	olive7007@hanmail.net
11	양영자	제주대학교	ormyj@hanmail.net
12	김정임	고신대학교	ijk0305@hanmail.net
13	이수경	인제대학교	sklee@inje.ac.kr
14	한영란	일본간사이외대	toqurdi@gmail.com
15	정윤희	베트남 하노이사범대학교	janice0405@naver.com
16	김현숙	독일 빌레벨트대학교	kim-cultural@gmx.net
17	박정미	부산외국어대학교	jmpark4601@hanmail.net
18	최나래	부산외국어대학교	korky-paul@hanmail.net
19	황미혜	부산외국어대학교	wineg@bufs.ac.kr
20	두보	동아대학교	tubol110@hotmail.com
21	이리경	동명대학교	vcelloceci@hanmail.net
22	박성옥	동주대학교	minguyoung1@naver.com
23	강보석	한국해양대학교	boseokgang@naver.com
24	박혜경	전남교육정책연구소	acacia333@naver.com
25	김현민	부산외국어대학교	dkhsdd@hanmail.net
26	이재명	동아대학교	2teacher@naver.com
27	김효정	연포초등학교	mksony@naver.com
28	김현진	동명대학교	victoria925@naver.com
29	박혜인	울산대학교	hi01033599891@gmail.com
30	이채임	울산대학교	sujar2010@daum.net
31	강서원	성지고등학교	kangsw41@daum.net
32	이경주	부산외국어대학교	lkjyh@hanmail.net
32	이수지	부산외국어대학교	suji0417@hanmail.net
33	윤남주	부산외국어대학교	namju8364@hanmail.net
34	이필숙	사회복지법인 자성 대표	compass99@naver.com

36	옥영혜	서인다문화교육연구	yasemin2@naver.com
37	김미희	동해시늘사랑사회서비스센터장	mihui@daum.net
38	강현주	부산외국어대학교	love200f@nate.com
39	박슬기	신라대학교	bsg8650@naver.com
40	서상희	부산외국어대학교	seo2340@daum.net
41	김윤주	부산외국어대학교	dbsw0616@naver.com
42	한정범	부산외국어대학교	bun282@naver.com
43	권진너	부산외국어대학교	zhennu@hanmail.net
44	민혜경	울산대학교	min4249@naver.com
45	배정화	경상대학교	ido0124@hanmail.net
46	허경옥	김해대학교	2004hko@hanmail.net
47	이경민	부산외국어대학교	komini78@naver.com
48	노승인	부산외국어대학교	nsi3139@naver.com
49	허훈	동아대학교	hhun09@hanmail.net
50	전수현	동아대학교	kkweck@hanmail.net
51	정세리	부산외국어대학교	cherry6353@naver.com
52	사정정	중국 길림공정사법학원	shitingting@daum.net
53	이선현	세종학당(중국 선양)	junujiwoo@naver.com
54	강남우	부산외국어대학교	jiangnanyu@naver.com
55	류경혜	양산외국인력지원센터장	helen1141@hanmail.net
56	박진미	부산외국어대학교	onlyjin2y@hanmail.net
57	김혜윤	울산대학교	llady27may@naver.com
58	양민철	부산외국어대학교	redbaby486@gmail.net
59	김세진	인제대학교	sejin@inje.ac.kr
60	이정애	한국다문화국제학교	kmis17@hanmail.net
61	정나겸	베트남교류협회	arabypac@daum.net
62	기준성	디지털서울문예대	z3230699@scau.ac.kr
63	윤향희	공주교육대학교	yunhyanghee@naver.com
64	이성순	목원대학교	sslee@mokwon.ac.kr
65	김현주	진주교육대학교	hjkim@cue.ac.kr
66	전은희	순천제일대학교	tanosimini1@gmail.com
67	우시향	단국대학교	wsh4000@hanmail.net
68	김명석	위덕대학교	kimms@uu.ac.kr
69	이명애	경성대학교	k17319@hanmail.net
70	이진석	동아대학교	jinslee@dau.ac.kr
71	이소라	부산외국어대학교	7623scent@hanmail.net
72	코디아마유미	부산외국어대학교	mayumilk@daum.net

국문제목: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영문제목: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권 수: 제1권 제1호

발 행 인: 권오경

발 행 처: 부산외국어대학교 다문화연구소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학회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485번길 65 A동 407호

연 락 처: 051)509-6622

인 쇄: 2018년 2월 26일

발 행 일: 2018년 2월 28일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Vol. 1 No. 1

Hyun-Joo Kang ▪ Analysis of Multicultural Factors in Integrated Textbook for Elementary School: Around the first and Second grades	4
Seung-In Roh ▪ The Enhancement of Multicultural Acceptance of Korea Society on Sexual Minority Appearing in the Films, <Troublers> and <Jane>	30
Hye-In Park ▪ A Study on the Cultural Adaptation Stress of Foreigners in Korea	53
Gyeong-Joo Lee ▪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Korean Education in 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	77
Do-Kyong Yi ▪ Effects of Singing Folk Songs to Reduce Stress for Multicultural Population	101
Soo-Kyeong Lee, Jeong-Im Kim, Min-Cheol Yang, Se-Jin Kim ▪ Application of Outcome-Based Education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Program	127
Chae-Im Lee ▪ A Study on the Value of the Marriage Immigrant Women	155
Su-Hyun Chun ▪ Analysis of Adolescents' Perceptions of Defectors and the Direction of Multicultural Education	179
Hun Heo ▪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the Unification of Women in North Korea	204

The Association for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